

보통의요수

S. D.
II
99

COR. 1-594



구세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福音要史
복음요사

대조연의국오의소년을미

DOVS
A2 7927

예
수
교
학

데일장

하느님이 우리 보지 못하시는 때 당에 계시것마는 이 세상에
 사느 우리를 데다 보시는 나라 하는님은 모든 일을 하시
 는고로 우리 하는 일을 보시고 우리 하는 말을 드르시고 또
 우리 생각 하는 것도 아시는 나라 하는님이 세상과 천당과
 또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내시니 나라히를 내사 낮에 붉게 하시
 고 들과 별을 내사 밤에 붉게 하시며 증승과 새와 물고기 와
 나무와 풀과 새슬 내시고 그 후 처음 사람을 내시니 처음 사
 나희의 일흠은 아담이라 지으시고 처음 너인의 일흠은 이
 화라 지으시니라 하는님이 이 두 사람을 내실새 예이 세상
 에 다른 사람은 업고 다만 이 두 사람을 원이라 하는님이 이 두

사람을 위하야 혼동산을 본드서 먹섯서라 그도 혼동산이
니 세상에 잇는 다른 동산보다 더도 혼곳서라 그 동산 일흠
은 이 단이니 셋서 필썬아니 요먹기도 혼각석실과 나무들
이 그 동산에 잇더라 하는님이 아담과 이와드려닐너 곧으
샤 디여러 실과를 다 먹으디 혼실과는 먹지마라 만일 먹으
면 죽으리라 하시니 그 혼실과를 하니 먹어도 먹을실과가
만흐니라 또 하는님이 곧으샤 디 그 혼실과 일흠은 선악과
이니 착하고 악함을 알게 하는 실과라 하시고 또 그 나무
가 동산에 있는 곳에 잇는 거슬라르치샤 두 사람이 니저리
고 실슈하야 그 실과를 먹을가 하시니라 하는님이 려당에
혼자 계시지 아니 하시고 려스들과 혼가지 계시니 그 려스
들은 우리와 같지 아니 하야 악한 일을 하니 하는고로 혼상

복을 밧고 하는 님의 명하는 때로 하는 나라 ○ 우리가 성
경을 보니 넷적에 죄지은 천스들이 잇스니 하는 님이 주신
거슬 죽게 녀이지 안코 또 하는 님이 날은 신 때로 하니 흠
으로 그런 스들을 내치 사련 당에 잇지 못하게 하시니 라 려
당에 내썩긴 천스들이 신령하게 죽지 아니 하는 고로 지금
사지 잇스나 그런 스들은 려 당에 하는 님과 또 치 잇는 착한
천스들과 또 지 아니 하는 고 악한 천스들이 되니 라 그 중 피슈
의 일흠은 사탄이니 악한 천스들의 님 금인 고로 그 악한 천
스들이 사탄의 명 때로 하는 나라 악한 이는 려 당에 가지 못
하고 사탄과 악한 천스들도 다시 려 당에 가지 못 하는 니 심
관하는 날에 모든 악한 이들이 형벌 밧을 곳으로 보내시는
나라 우리들이 잘 못 하는 고로 고로 음을 당하는 거슬 형벌

을 밝는 거시니라 심판하는 날에 사탄과 악훈련스들이 죄
석문에 형벌 받으러 가는 곳 손일 흡이더 우이니 사탄과 악
훈련스들이 영원히 잇슬 곳이라 하는님이 아담과 이와를
도 혼동산에 두엇슬 때에 그 사름들이 착하여야 하는님의 명
령대로 하는고로 그 동산에 깃거이 잇더라 사탄은 악하여야
복받지 못할 때 사름마다 저와 죽기를 원하는고로 아담과
이와가 도 혼동산에 깃거이 잇는거슬 보고도 하덕이지아
니 하여 생각하되 그 두 사름을 썩여 하는님이 먹지 마라
신실과를 먹게 하여 하는님을 거역하게 하리라 하더라 그
때이던 동산에 큰 비압이 잇더니 사탄은 영신이니 형태가
업서 사름가지 못하는 곳 세 능히 가는지라 비압의 계드러
가서 이와의 계갓가 이와 말하되 하는님이 너도 혼동산에

잇는 나무마다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이화가 티답하
티하는 남말슴이 모든 다른 나무실과는 먹으티 할 나무실
과는 먹지 마라 만일 먹으면 죽으리라 하시더라 사탄이 곧
으티 너 | 가 그 나무실과를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 하리라
하는님이 너 드려 그 나무실과 먹지 말나 하신거 손네 지혜
가 만홀싸 념려 하심이니라 하더라 누구던지 우리를 그른
일을 하라 고 유인 할새 에우리가 맛당히 듯지 아니 하야
죄에 싸짐이 업스리라 이화가 사탄의 말을 듯고 또 그 나무
가 아롬답고 실과가 먹기도 홀쫓음을 보고 또 비암의 말이
지혜가 잇스리라 흠을 생각 하고 그 실과를 쓰셔 먹고 또 저
의 남편 아담을 주니 아담이 또 홀 먹었는니라 우리 가 하는
님을 거역 하는 거시 죄를 짓는 거시 니 그 사롬이 하는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는 나라 그런고로 하는님이 그 두사
름을 이던 등산에 내여 쫓츠샤 그곳에 서 살지 못하게 하시
니라 착한 스들은 하는님과 과한 가지로던 당에 잇시니 잇
는 곳 손 곳던 스의 집이라 성경에 날넛시 티 하는님이던 스
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샤 후 착한 사람은 도으시고 후 악한
사람은 형벌하시니라 하는님이 아담과 이와를 등산에
내여 쫓출새에 착한 스들은 내려보내샤 그 두 사람을 다
시 그곳에 살지 못하게 직히라 하시니 아담과 이와를 등산
에 내여 쫓츠신 거슨 형벌을 하시니라 그 두 사람이 동
산에 살새는 모든 물건을 소원 때로 두었시니 짐승과 새가
한 가지로 잇서 새는 노래하고 짐승은 해함어 업고 새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실과 들은 힘써 자라게 하니 하여도 스스

로자라더니내여썩긴후에그동산보다미우다른곳세잇
시니그곳손실과가스스로자라지아니하는지라그런고
로하담이일을부즈런히하여야이와와즈기먹을거슬엇
더라그두사람이죄를지음으로이것보다더피악한거시
되엿시니하는님을거역한후에는무음이악한지라우리
무음이올흔일을하려하고후그큰일을하려하고
는거시라우리가하는님을공경하는착한무음이잇슬새
에는올흔일을하고저하고하는님을공경치아니하는무
음이잇슬새에는그큰일을하고저하는나라하는님이하
담과이와를착한무음으로내섯것마는저기가되지는고
로무음을홍악하게하니라그후에그즈손들이나서저의
부모와근처악한무음이잇는나라세상에잇는모든사나

희와 계집과 으희들이 악훈 믿음으로 나는 거시 아담과 이
와 가이던 동산에 서하는 님이 먹지 말나 훈신실과를 먹은
연고이라 그러므로 우리 죄를 자조범 훈게 훈는 악훈 믿음
이잇는 지라 하는 님이 곧 으샤티 우리 가 죄를 지으면 심관
훈는 날에 형벌을 밧으리라 훈시니라 그러나 려당에 서누
가느려와 우리 악훈 믿음을 착 훈게 훈고 우리 죄를 업게 훈
야 심관 훈는 날에 형벌 밧을 거슬 구속 훈심을 날으리라 넷
적에 훈이 이스라엘이 란싸이잇스니 일천 팔백 여년 전에 그
곳에 사는 처녀 마리아의 게하는 님이 려스를 보내여 말슴
훈시니 처녀가 려스를 보고 무셔 위 훈게 늘 려스 곧 으티
무셔 위 훈지 마라 하는 님이 너를 어엿비 녀이 샤 예수라 훈
는 아들을 주실 거시니 예수는 하는 님의 아들이니 이 세 상

에잇는님금보다놓흔님금이되리라하고런스는런당에
 다시올나가니라마리아는부자도하니오존귀하지도아
 니하고다만가난흔어런쳐녀요그남편될사람의일홈은
 요셉이니또한가난하고목슈노릇하더라그후에마리아
 와요셉이벧리헴이라하는동녘에왔스니그곳손사는곳
 시아니라잠안죽막에셔머물더니그죽막에행인이그득
 하여잘방이업는고로마구간에들어가머물더니그새하
 느님이런스를보내샤마리아의게언약하늘을주시니
 마리아가그으히일홈을예수라하더라에수나선집이부
 자의집곳치도흔집이하니오벧리헴죽막마구관이라어
 림하건대거귀암쇼의슈쇼들이혹자고혹죽을구유에셔
 먹엇슬니라또예수의어머니가웃스로으히를써셔구유

안에 누웠더라

데이장 그새 그나라 백성들이 양을 만히 치더라 큰을 먹
이려고 밧헤며 물엇사나 밧헤을 드리 가업셔들 증승일회
와곰이와셔 양을 죽이논고로 사름들이 흥상양과긋치잇
셔닐홀싸후죽을싸넘려하야적희니 양직희는사름을목
자라닐긋더라목자들이 늦제단직희는거사하나라들증
승들이밤에와셔양을죽이논새가잇논고로밤에도직희
더라에수나서던밤에목자들이 밧헤셔양을직희더니별
안간에흔붉은빛치들이며흔련스가련당에서느려와셔
목자들의게말하매목자들이 전에련스를보지못할교로
미우두려워하거늘련스ㅣ콜으되두려워하지마라나ㅣ
가도흔쇼문을너희들과모든백성의게전파하려고왔노

라벤티리헴에새로난으히가구세주라흐니그턴스가예수
를뜻흙이라예수를구세주라닐곳는거슨예수가턴당에
서느려오자우리악흔므음을착흐게못치고우리죄를업
게흐자심판흐는날에형벌받을거슬구속흐시는연고
라턴스가목자드려닐으티너희가벤티리헴에가면그하
기를볼수잇시리니하기어마나가웃스로쓰셔구유에뉘인
거시표이니라턴스가목자들드려닐은후에즉시턴당에
서여러턴스들이느려와서하느님의게찬송흐야이세상
에잇는빅성의게엇더케착흐시고어지신거슬닐곳고턴
당에다시올나가니라목자들이서로말흐티우리가지금
벤티리헴에가서하느님이턴스를보내샤말씀흐신구세주
를보리라흐고저의양들을브리고벤티리헴에가서마구에

너르러 마리아와 남편 요셉과 또 쇠구유에 뉘인하기를 좃
즈니라 목자들 이세수를 본 후에 미우깃거 하야 나간 후에
다른 사름들 드려 현스가 저희들의게 하던 말을 닐으니 모
든 비성들이 목자의 말을 듯고 신과 히브리더라 목자들이
양 먹이는 밧헤 도라가셔 하는님이 현스들을 보내샤 세
수를 말슴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곰 베틀리헴 마구에게셔 세
수를 보게 하심을 하는님 쇠감샤 하더라 그새 이스라엘
에 예루살렘이라 하는 성이 잇스니 베틀리헴보다 더 큰 성이
라 집이 미우만코 비성이 만히 살더라 그새에 님금이 잇스
니 일흠이 헤롯이라 이스라엘사는 모든 비성의 님금이 너
그곳 비성을 이스라엘사름이라 도하고 유대사름이라 도
하더라 그러나 그 님금 헤롯시 흉악 잔포 하더라 예수나 신

후에 먼식골에 사는 사롬들이 예루살렘에 왔스니 그사롬
들은 지혜가 있고 아는 거시 만흔 사롬들이라 흥상하늘을
보고 모든 별술 피기를 공부하더니 본국에 서흔 별을 보니
전에 보던 별보다 다른지라 그 별은 하는님이 그박스들로
하여 금에 수나 신겨 술 알게 하시려 고내 신겨시라 그런고
로 박스들이 예수는 하는님이 이세상에 보내신과 연놓흔
사롬인 줄 생각하 고 예수압헤 절하 고 퇴움을 원하야 저
의본집을 썬나 셔이스라엘싸에 왔스니 먼길의 여러 산과
강을 지나 오랜 동안에 와셔 길에 곤흔지라도 도라오지안
코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예루살렘안에 갈싸에 수를 좃지
못흔지라 그런고로 거기 사는 백성들드려 무르디 유대국
님 금될어 린으히가 어퇴잇는 노우리가 본국에셔 그 별을

보고 그으히를 비오려 고왔노라 헤롯이 그 박스들의 말이
어린으히가 남금되리라 흠을 듯고 깃거하니 흥니 때개 그
아히가 장츠커셔 저를 티신 흥야 남금이 될까 두려 위흠이
러라 그런고로 그 어린으히를 위위 흥야 저의 하인들을 불
너셔 닐으티 그으히가 어티 낫는가 무려 보아라 흥더니으
히가 벤틀리헴에 잇슴을 듯고 박스들을 불너 저의 본국에서
보던 별을 무룬 후에 헤롯이 박스들드려 닐으티 벤틀리헴에
가셔 그으히를 쓰세히 츠져 츠존 후에 내게와셔 닐으라 나
도 그으히압해가셔 절흥고 비오리라 흥니 헤롯이 그으히
를 춤외옵고 저흥는거시 아니라 위위 흥는고로 죽이려 흠
이러라 그 박스들이 에루살렘을 썩나셔 벤틀리헴에 갈시저
의 본국에서 보던 별을 보니 그 별이 다른 별과 갓차라 늘에

안정치하니 호고 박스들압해가셔벳리헨에니르도록길
을르치더니그어린으히잇는집우헤긋치거늘그박스
들이집에드러가셔어린으히가그어마나마리아와흙쇠
잇는거슬보고그압해절하니라그썬에님금뵈오려오는
사름은레물을가지고오는법이러라그박스들이에수쇠
레물을가지고와셔드리니황금과유향과물약세가지물
건이라유향과물약은나무진이니불에살오면연기가나
고도흔향내가나는나라그곳뵈성들이유향과물약을큰
보비로아는고로감시만터라그러므로박스들이이게가
지레물을에수쇠드리니라박스들이벳리헨에셔흔쌈은
수니쌈에하는님이닐으시티헤롯의말때로에루살렘에
도라가셔에수가어티잇는거슬닐으지말나호시거늘그

런고로 박스들이 벳리헴에 썬날새에 다른길로본국에도
라가니라 헤롯이 박스들이 저를속인줄을알고성내여악
흥고잔포흥일을흥시하인들을벳리헴스방에보내여두
설못된으히는다죽이라흥니 헤롯싱각에예수가그중에
죽을줄알엇스티다른으히들만죽고예수는죽지아니흥
니라 헤롯외하인이벳리헴에가기전에요섭이자는새하
느님이런신을보내샤닐으시티너1가맛당히어린으히
와으히어마니를드리고헤롯이츠지못할곳의곶이라흥
느싸에도망흥라흥신고로요섭이그밤에이러나샤하모
도보지못할새에마리아와어린으히를드리고의곶에가
서헤롯이죽도록거기셔살더니요섭이잠든새에하느님
이다시런신을보내샤닐으시티이스라엘노도라가라흥

시거늘요섭이마리아와히를드리고그씨으로도라와
셔나살잇이라하는성에살더라

데삼장에루살넬은큰성이니빅성이만코집이만흔거슬
말하엿느니그성에다른집보다미우도흔집하나이잇스
니이집은유대사람들이홍상가셔하는님씩빌고레비하
는성던이라이성던을현화반석으로짓고또산꼭다이에
잇스때빅성들이그때문에드러가기까지놓흔총덕로올
나가니그때문이미우광치잇고크고또은과금으로넙혔
더라유대사람들이어린히들을드리고성던에가셔하
는님씩밧치는법이러라그씨에루살넬에시미언이란착
흔사람이잇스니시미언이비록늙엇시나하는님이허락
하신에수를보기전에죽지아니라하섯더니과연그

러 후도 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드리고 성던에 가거 전
에 하느님이 시미언 드려 낳으시되 성던으로 가라 후시 더
니 마리아와 요셉이 성던에 드러 온디 시미언이 예수를 안
고 곁으 터 하느님의 허락 후 친티로 나기가 구세주를 뵈왔
스니 나기가 즐 겁게 세 상을 썩나게 후 쇼셔 후 더 라 또 예 루
살렘에 후 늙은 녀인이 잇스니 일 훔은 안 나라고 녀인이 성
던에 갔가 이 사느고 로 주야로 가셔 하느님 쇠레 비 후 더 니
시미언이 말 후 세 예 안 나가 또 성던에 와셔 예수를 보고 하
느님 쇠예 수를 보이 신기 슬 감 샤 후 고 다 른 비 성 들 의 게 가
셔 예 수 본 말을 낳으 더 라 예 루 살렘에 사는 유대 사 람 들 은
그 성던에 작 조 가 디 이 스 라 엘 사 람 들 은 히 마 다 후 번 식 거
기 가 셔 유 월 절 를 직 희 는 법 이 니 하느님 이 이 스 라 엘 비 성

들드려닐으시티 전일을 기억함으로 이절기를 직히라
 하셨스니 무어슬 기억하라 하시기를 날으리라 그새 여러 전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굽님 굽파로의 종된지라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의게 사오납게 하여 벽돌 굽제 하고와 집 짓
 게 하고와 밧해서 하는 모든 일을 미우 몹시 식이고 저의 하
 인으로 그 백성을 쓰리게 하고 어린으리 들을 죽이게 도하
 더라 그러므로 하는님이 파로를 짓거 하니 하시닐으사 티
 이스라엘 백성을 내사에 여보내라 하시티 파로가 좃
 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여 여러가지 엄훈 형벌을 내리실시
 나 종형벌이 그중에 더욱 무섭더라 밤중에 하는님이 파로
 의사에 혼연스름보내사 남 굽집에 드리가 남 굽의 맛아들
 도 죽게 하고 백성들의 집에 드리가 백성의 맛아들 도 죽게

흐니 집집마다 죽음이 흐나 썩잇스되 하는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려스들을 보내지 아니 하시고 려신 드려닐으
샤 되 이스라엘 백성에 집들은 지내 늦코 흘사름도 상흐지
마라 흐시니 려신이 파로와 그 백성들의게 이러케 할고로
파로가 미우근심 흐고 무셔 위흐여 하는님이 전에 날으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에 보내여 보내니 그 백성들
이가기 전에 하는님이 날으샤 되 절기를 직히라 흐섯시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절기를 직히시불
에 구은양의 숫기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은 후에 즉시 곱
을 썩나 나라 하는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흐여 곱그날 밤
에 파로의게셔 나아오제 흐신은 덕을 기억흐게 흐고 저흐
샤 날으샤 되 너희 맛당히 이후에 히마다 이날 밤에 이 절기

를 직히라 호시니라 하는님이 백성의게 이말씀을닐으신
 지여러히가 되엿스나 그새사지이절기를 직히매이스라
 엘박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직히더라 이절기를 유월절
 이라 호는거슨 우리가 본바 백성들이 이 곱에 잇슬새에련
 신이 저희집들은 지내 늦코 호나 도상 호지아니 호연고로
 유월절이라 호는니라 그새마리아와 요셉이나 살잇이 란
 성에서 살더라 말흔바 예수를 죽이려 호던 헤롯이 죽은후
 에거괴오시니라 살잇이 예루살렘에 서거의이 백십리가
 되는지라 마리아와 요셉이 히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
 절을 직히더라 먼길에 혼자가 지아니 호고 절기 직히고저
 호는친구와 나웃사람과 곳치 동행 호는거시 도 호니 길에
 도적이 나불한당이 해코저 호면서로 구제 호고저 흠이러

라 그 식골에 서는 이 백십 리가 먼 길인 고로 여러 날을 가며
라 우리가 본바 마리아와 요셉이 히마다에 루살넴에 가서
유월절을 직 회니 예수가 열두 설 되엿을 때에 그치 갔더라
에 루살넴에 서 일 해를 머물어 절기를 지낸 후에 친구와 함
석나 살밋으로 도라 올 식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그 동행
중에 그치 오는 줄 알고 종일도록 찾지 아니 하였더니 밤에
잠 깨가 되매 예수를 찾쳐도 볼 수 업는 지라 마리아와 요셉
이 막우 근심 하여 친구들을 불러 나셔 그 길로 도로에 루살넴
에 가서 예수를 찾더니 에 루살넴 성던에 서 예수가 교사와
박사들과 의론 할 식 그 사림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못기도
하고 늘 예수는 오히요 그 사림들은 능 혼 선 비인 고로 듣는
백성들이 예수가 능히 그 사림들과 이리 깨 변론 함을 이상

이 녀 이 더 라 마 리 아 가 예 수 의 게 화 서 무 러 곧 으 터 었 지
 야 우 리 가 나 살 잇 으 로 갈 때 에 꺾 치 오 꺾 하 니 흥 고 여 기 머
 므 러 트 는 노 도 조 기 와 요 션 이 예 수 를 녀 녀 흥 고 근 심 훈 일 을
 닐 으 니 예 수 가 마 리 아 드 러 무 르 사 터 나 의 아 바 님 이 가 나
 를 이 세 상 에 보 내 사 흥 라 흥 신 일 을 맛 당 히 흘 줄 아 지 못 흥
 었 는 잇 가 흥 더 라 예 수 아 바 지 는 곳 하 는 님 이 시 니 예 수 를
 려 당 으 로 서 조 차 나 려 보 내 사 우 리 가 었 더 케 하 는 님 을 순
 종 흥 고 공 경 흥 야 하 는 님 의 아 들 이 되 는 거 슬 르 처 알 게
 흥 심 이 라 그 때 예 수 나 히 다 만 열 두 설 이 나 빅 성 들 의 게 이
 런 거 슬 닐 으 기 를 시 작 흥 시 더 라 마 리 아 와 요 션 이 예 수 를
 좇 자 올 때 에 예 수 가 흥 썩 나 살 잇 집 으 로 도 라 오 사 조 기 부
 모 와 흥 썩 살 식 부 모 가 닐 으 는 때 로 순 종 흥 시 니 동 님 사 름

물이에 수를 사랑하나 하는 님아 들인 줄 알게 할새 가아 직
되지 못하오로 예수가 하는 님아 들인 줄은 아지 못하더라
그런지 여러히 후에 이스라엘싸에 세례 주는 요한이라
는 사람이 잇스이그 사람은 선지자이라 선지자는 이압
일을 아는 사람이라 우리는 이압 일을 아지 못하매 어제와
그
전일은 알티리일이나 모레일은 아지 못하니 우리는 새가
되기 전에 는 아지 못하되 하는 님의 선지자는 무슴일이던
지장 초엇더케 될 줄을 새가 되기 전에 능히 하는니 선지자
들이 그러케 하는 거스리는 님이그 일을 날으신 연고이라
세례 주는 요한은 선지자요 미우착한 사람이라 백성들이
만히 살지 아니하는 적막한 곳에 잇더라 요한이 비록 하는
님의 선지자이나 할가난한 사람이니 잇는 거서 다만 가난

환사롬의게잇는것썸이러라약티의럴노문든힘환의복
 을납고허리에가족씩를씩고음식은멧독이와덜쌀을먹
 더라그식골에멧독이가만코가난환사롬들이만히먹으
 니그식골은지금사지먹느니라들쌀은들별이나무와들
 림에치는거시라요한이적막환들에서이두거슬츠저먹
 고거기홀노잇슬썸에하느님을싱각하고기도하며성경
 을읽는저를이만터라그썸에수가나살잇에게신지여러
 히가된지라에수가장성하고또이스라엘백성의게당신
 이하느님의아들인줄을알게할썸가된지라하느님이썸
 레주는요한으로하여곰유때사롬의게그말을닐으게하
 시나라이썸요한이요르단강에서갓가온들에잇스매여
 러유때사롬들이요한의말을드르려고오거늘요한이그

사람들 두려워 너를 으티 하는 짐아 돌이 미구에 너희 중에
오시리니 맛당히 하는 짐아 돌오심을 예비하라 도흔의 복
을 넘거나 너희 집을 정케 하라 흠이 아니 오너희 들이 이왕
지은 죄를 뒤웃쳐 못치라 하더라 아모일이던지 불안하게
된 거시 잇스면 뒤웃치는 거시니 그러나 불안한 것도 혼모
양이 아니라 넷적에 두사람이 옥에 갓치 었스니 그 사람들
이 거괴 갓친 연고는 제게 당치 아니 혼물건을 도적 혼 죄라
아모써던지 하는 남이 하지 말나 혼 신일을 하면 그 거시 죄
라 두사람들이 제죄로 인하여 미우 불안하게 되엿스나 혼
사람은 다만 형벌 받는 연고로 불안히 녀이 때 옥에 셔나가
는 때로 즉시 도적질을 또 하리라 하고 또 혼 사람은 제가 잘
못한 거슬 참 불안히 녀이 때 옥에 셔나간 후에 는 도적질을

다시 아니 하고 진실 하니 이 사 례 은 제 죄 를 참 누 웃
치는 사 례 이 라 요 한 이 들 에 서 온 유 대 사 례 들 드 러 닐 너
으 티 너 희 가 네 죄 누 웃 는 거 스 로 예 수 가 네 희 중 에 오 심 을
에 비 호 라 훈 티 유 대 사 례 들 이 요 한 의 말 대 로 저 희 모 든 지
은 죄 를 누 웃 치 니 저 희 죄 가 하 는 님 을 거 역 호 고 악 훈 거 신
줄 알 고 다 시 죄 짓 지 안 키 를 결 단 호 더 라 요 한 이 그 사 례 들
을 드 리 고 요 르 단 강 물 갑 지 아 니 훈 곳 에 가 셔 그 물 에 셔 세
례 를 주 더 라 세 례 받 는 거 스 우 리 죄 를 씨 셔 버 리 는 뜻 시 로
티 물 이 능 히 죄 를 씻 는 거 시 아 니 라 하 는 님 의 성 신 만 능 히
호 시 는 니 라 이 세 요 한 이 백 성 의 계 물 로 세 례 를 주 티 백 성
들 로 호 야 곰 즈 기 가 능 히 백 성 의 죄 를 씻 기 는 줄 알 게 호 고
저 훈 이 아 니 라 백 성 들 드 러 닐 으 티 예 수 가 오 시 면 능 히 너

회죄를 씻기시리라 하고 더라 예수는 하는 님의 아들이시고
또 백성의 믿음에 성신을 줄 수 잇는 고로 능히 이 거술 하고
리라 우리가 예수 님의 신대로 죄를 회기 하고 세례를 받았으
면 예수가 장초우리 믿음에 성신을 주샤 우리 죄를 씻시려
니와 우리가 죄를 회기치 아니 하고 죄짓기를 곳치지 아니
하면 죄가 씻김을 얻지 못 하고 비록 교사가 우리게 세례를
주어도 쓸 티 업는 니라

대스장 요한이 요로 단강에 서 백성들을 세례 줄 때에 예수
가 요한의게 세례 받고져 하고 야나 살 잇 집을 써 나 들에 오셨
더니 요한이 예수 를 볼 때에 하는 님 아들이 오 믿음 이 정결
하야 씨슬 거시 업는 거술 하는 고로 세례를 주고져 하니 호
거늘 예수 가 요한 드려 닐 너 곧 은 샤 티 너 1 조 세 히 알 지 못

할지라도 내게 주는 거시 올타 하시니 요한이 예수와 못치
 강에 가서 세례를 주니라 후이 무려 글으되 예수가 대답하되
 씨슬 죄가 없거늘 엇지 세례 받기를 원하시겠노는 보되 답하되
 예수가 친히 몸을 위하야 세례 받고자 하신거시 하니라 오
 직 우리를 위하야 하는님이 우리 드러 하라 하시니 모든 열에
 모본을 주심이니라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물에 나오샤
 즉시 천당에 계신 아버지께 비르시거니 하니 상하 열이 잇
 스니 예수 우회로 하늘이 열나며 보기에 비둘기 못치 하거시
 려던 땅에 서는 러오나 이거시 좀비 들이 가나니라 성신 비
 들이 못치는 리와 세에 수에 우회 강림하고 후 그 새 하늘에
 서 말하는 소리 잇스니 이는 하는 남의 소리라 빌너 글으샤
 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오 나의 것거 하느니라 하

복음요스

제 2 장

11

시 더 라 그 전 에 는 비 성 들 이 예 수 가 하 는 님 의 하 들 신 글 을
아 지 못 하 였 더 니 이 세 려 는 님 이 텅 당 으 로 보 티 말 손 하 시
티 예 수 가 당 선 아 들 이 라 닐 으 시 니 라 예 수 가 그 곳 을 석 나
샤 적 막 흘 들 에 가 샤 거 기 셔 밤 늦 스 십 일 을 머 무 시 더 라 는
님 쇠 기 도 흘 식 예 수 와 흘 가 지 잇 기 는 들 즘 승 이 로 디 예
수 가 전 능 하 십 이 었 는 고 로 들 즘 승 이 능 리 해 하 지 못 하 더
라 밤 늦 스 십 일 이 되 도 록 음 식 을 잡 스 오 시 지 아 니 하 시 더
니 나 종 에 주 리 신 지 라 우 리 가 사 랫 이 이 던 등 산 에 셔 이 화
를 유 인 흘 고 로 우 리 므 음 이 악 하 게 되 었 슴 을 보 앓 는 니 그
런 지 가 밭 셔 오 린 지 라 아 담 파 이 와 는 죽 은 지 가 여 러 백 년
이 되 었 스 티 사 랫 은 령 신 인 고 로 죽 지 아 니 하 였 더 니 예 수
가 우 리 악 흘 므 음 을 확 하 게 문 들 러 고 텅 당 으 로 좇 차 나 려

오시 때 사탄이 생각 하되 이던 동산에 서이 화를 유인함과
곳치 예수를 유인 하리라 하고 예수계 신들에게 갔더라 어느
새던지 사탄이 사람을 유인 하야 그 큰 일을 하라 할새에 무
엇시던지 그 사람이 데 일원 하는 거슬 초저서 그 사람으로
하여곰 그 거슬 었어 그 큰 일을 하게 하는 지라 사탄이 예수
가 금식 하고로 음식을 원 하는 줄을 알고 생각 하되 예수로
하야곰 음식을 었어 잘 못 함은 짓게 하리라 하고 사탄이 예
수계 신 곳에 와서 싸에 돌이 잇슴을 보고 예수 석 말 하야 곧
으되 너ㅣ가 만일 하는 님의 아들이 면 더 돌로 석을 변 하야
먹을 음식을 문 돌 나 하거 놀 예수ㅣ사탄이 웨 왓는 지 알으
시고 또 예수가 돌 드려 변 하라 닐으 시기 만 하면 그 돌이 석
이 되게 할 수가 잇슬 지라도 사탄의 말을 좃차 그 일을 하니

고고저호사사란드려닐으사티성경에닐넛스티우리가
비곱홀썌에엿엇기를싱각호는것보다하는님의말숨을
순종호고을혼일호기를더싱각호라호시니라이거술과
억호야만일우리가비곱홀썌에음식먹기에죄를범호고
저홀진때우니구썌쥬가주리진썌에엇더케호섯슴을과
억홀지니죄지음으로엇은음식을먹을진때출하리아니
먹는거시나흠을싱각홀지니라사란이에수가그들을엿
으로변호지아니흠을보고다른거스로유인호기를시협
호야에수롤들에서잇그러에루살넴성에게셔성던우회
미우놓흔곳에올나가셔에수드려닐으티너가만일하
느님의아들이면련신이와셔너를붓들어상호지안케홀
거시나니가여과셔셔러지라에수가비록놓흔곳에서

썩러저도조곰도상치아니할줄알으시되다만사탄이
 라흐는고로그거슬형하면고른거시될줄알으시고사탄
 드려닐너골으샤되성경에닐넛스되하느님이우리몸을
 구흐는가시험흐는것만위하야우리몸을위하흔곳에두
 지말나흐시니라사탄이예수를흔번더시험할시예수를
 그성던우희에셔스을고흔놓흔산우희에올나가셔예수
 의게세상모든나라와영화를르르쳐보이고말하되너
 가만일쓸어내제절하던이모든거슬네게다주리라하되
 예수가사타드려닐너골으샤되내게물너나가라성경에
 닐넛스되하느님외만절하고순종하라흐시니라사탄이
 예수가돌노석을변하거나놓흔성던에셔썩러저거나상
 관이업스되이런일을하라고청하는거슨다만예수로하

여곰 제 말을 순종하게 하고 저 함이 오노라 제가 예수 주의 주인
되고 저 함이라 사탄이 에수를 제게 순종하게 할 수가 업슴
을 보고 에수를 썩나니 천신들이 와서 섬기더라 우리가 에
수가 사탄의 유인하는 때로 하지 아니함심을 감샤 할 것이
라 이와는 사탄의 꾀이 있는 때로 하였스매 우리로 하여곰 악
할 마음이 잇서서 죄인이 되게 하였스나 에수는 사탄의 꾀
이 있는 때로 하지 아니함 능히 우리로 새롭고 착한 마음을
주샤 하는 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그 후에 에수가 요
한이 세례 주던 요로던 강에 도라 오시니 거기 에수 섰던
사람들이 와서 물어 에수의 마르치시는 말씀 들으드리니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에수의 데즈가 되니라 함은 거슨 누
구던지 다른 사람의게 무어 슬공부 하며 그 사람의 말을 좃

는 사 례 이 니 라 예 수 가 데 즈 들 을 드 리 시 고 가 나 라 하 는 성
 에 가 시 니 거 기 흐 흐 인 잔 치 가 잇 는 지 라 예 수 의 어 마 니 가
 거 기 오 시 고 또 예 수 와 데 즈 들 을 그 잔 치 에 청 히 이 여 왔 더
 라 그 잔 치 가 올 사 례 들 을 위 흥 야 먹 을 음 식 과 술 을 상 에 예
 비 흥 였 더 니 여 리 사 례 이 온 으 로 잔 치 가 다 되 기 전 에 술 이
 다 흐 지 라 예 수 어 마 니 가 예 수 드 러 술 이 업 슴 을 닐 으 고 거
 기 잇 는 하 인 드 러 닐 으 터 너 희 가 예 수 하 는 때 로 하 라 하
 더 니 그 새 그 집 에 돌 노 문 든 큰 물 독 여 솟 시 잇 스 니 예 수 가
 하 인 드 러 닐 으 샤 티 물 노 그 독 들 을 치 오 라 하 시 니 하 인 들
 이 물 을 갖 다 가 독 을 치 오 더 라 그 리 흐 후 에 예 수 가 말 슴 하
 샤 티 좀 셔 셔 여 잔 치 주 흥 흐 사 례 의 제 가 저 가 라 하 시 니 하
 인 들 이 좀 셔 셔 잔 치 주 흥 흐 사 례 의 제 가 저 가 니 그 사 례 이

복음요수

데스장

십팔

맛보고 솔로알더라 예수가 그물을 먼지도 아니하시고 무
엇슬넛치도아니하시고 다만 솔되라고닐으시기탄호섯
더니 잠안동안에 솔이되엇더라이거시훈령적이니령적
이라호는거슨다만하는님만호시는신귀훈일이라예수
는하는님의아들이시니하는님의큰능이잇는고로능히
령적을호시는나라이거시예수가빅성의게권능이잇슴
을뵈이신처음령적이라그후에호신여러령적을우리가
장춧보리라니코티모라호는사름이예수쇠앗스니그사
름은유대국사름에관원이러라하는님을듯고하는님줄
집게흘거슬알고저호야예수쇠비호려고밤에왔거늘예
수닐너콜으샤티네모음이착호고새롭지아니호면하
는님을깃부게못호고하는님아들이되지못호는나라예

수가니 코디 모 드려 만새 믿음 이잇스라 호심 이하니라네
나 내나 아모던 지맛 당히 새 믿음 이잇슬 지니라 우리가 난
세브터 죄에 자 조썩 지게 호는 악훈 믿음 이잇는 연고라
우리가 죄가 잇고 또 악훈 믿음 이잇서 도하는 님이 우리를
스랑 호심을 곳치 지하니 시고 썩롬고 또 호는 믿음 을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 호야 형벌 받을 거슬 구속 호시려고 려당으
로 좃차 의아 돌를 느려 보내 시니라 예수 가벧니 험에 나섰
슬싸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님 금혜롯이 예수 를 죽이고져
호매에 수가벧니 험어련으 히들 중에 잇슬 줄 알고 조지하
인 들을 보내 여 그곳어련으 히들 을 다 죽이엿느니라 헤롯
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이 님 금이 되엿스니 일흠이 또 호혜롯
이라 헤롯이 제 아버와 곳치 악훈 지라 헤롯의 호던 악훈 일

을 말 할 진 때 제 형의 안해 를 취 호야 제 안해 를 삼 었 스니 이
거 시 큰 죄 라 세 레 주 는 요 한 이 헤 롯 의 계 와 셔 죄 지 었 슴 을
닐 으 니 헤 롯 의 안해 헤 로 디 아 란 계 집 이 요 한 의 말 을 듯 고
미 우 성 내 니 때 개 그 계 집 이 부 귀 호려 고 님 금 의 안해 되 기
를 원 호 는 언 고 1 라 그 계 집 이 님 금 의 계 가 셔 요 한 죽 이 기
를 청 호 티 헤 롯 이 요 한 의 2 르 침 을 드 린 고 또 요 한 이 착 혼
사 롬 인 줄 을 아 는 고 로 죽 이 기 를 두 려 워 호 나 아 직 제 안해
를 기 부 게 호려 고 요 한 을 잡 어 결 박 호야 옥 에 가 도 니 라
데오장 요 한 이 옥 에 잇 슴 때 헤 롯 의 성 일 이 되 때 헤 롯 이
큰 잔 치 를 할 시 군 스 중 에 때 장 과 여 러 때 인 들 을 청 호야 왔
더 라 그 때 헤 롯 디 아 의 계 혼 딸 이 잇 스 니 일 흠 은 사 로 메 라
사 로 메 가 춤 을 잘 추 더 니 헤 롯 과 모 든 때 인 들 이 잔 치 에 안



짓슬때에사로메가방에드리와셔압헤서춤추니헤롯이
 그묘하게춤춤을깃거흐야아모거시라도달나흐는때로
 주리라흐고골으티너가나희나라를반분흐야달나흐
 여도나이가주리라흐니헤롯싱각에사로메가제게잇는
 물건중에서능히취할줄알고쇼원대로주마흐섯시니헤
 롯의이허락할거시미우어리석고약할일이러라사로메
 가아모것도유공할거시업것마는헤롯이입의허락할지
 라사로메가제어미의게가셔말흐티나이가장초무어슬
 달나흐리잇가헤롯티아가제쌀드려아름다운선물이나
 돈을청흐라닐으지아니흐고세레주는요한의머리를버
 허즉시큰티접에담어주기를원흐노라흐라사로메가헤
 롯의게급히가셔제어미가닐은때로청흐티헤롯이요한

복음요스

데오장

이십

을 죽이고 저 하니 흥논고 로마의 우불안이 녀이 더라 우리 가
악훈 일흥기를 허락 흥섯슬 새에 맛당히 하는 님 쇠용서 흥
기를 청 흥고 악훈 벌을 하니 흥거 서니 헤롯이 받드 사사로
메드려 이거 슬 흥지 못 흥젓다 님을 거 서 여늘 그 새 여러 때
인들이 그 잔치에 서 헤롯이 허락 흥을 드렸고 또 헤롯이 이
일 흥기를 겁내는 모양이 잇슬 새 붓그려 워 흥야 제 하인을
옥에 보내 여 요한의 머리를 버혀 큰 티 접에 담 어 서 사 로마
의 게가 저가 게 흥니 사 로마가 제 어미의 게가 저가 니라 요
한의 데즈들이 헤롯이 흥닐을 듯고 와 서 요한의 시체를 가
저다가 장스지 내고 예수 쇠와 서 님 으니 라 ○ 예수와 데즈
들이 가 리리 싸에 가 실 서 시가 라 흥는 성에 오 시니 성밖게
백성들이 먹는 우물이 잇스니 예수 거외가 섰슬 새 가 늦

되엿슬썌라에수가힘역에공호샤우물넘헤안저계실시
데즈들은에수를혼자계시게호고음식을사려고성에드
러갓더라환녀인이성에나와셔동의를가지고물을쓰니
그녀인은모음에하느님을사랑치아니호고또여러가지
하느님명을거역호는일을호엿더라에수는우리모음을
보시고우리호는일을다하시느고로이거술하시고그녀
인과니아기호실시그녀인의전에환일이하느님을거역
호엿음을닐으시니그녀인이에수가이런일을알으시는
거슬본후에늘나골으티션성님이여당신이션지자스로
소이다나이가이세상에구세주오신줄을알고또구주가
오실썌에모든일을우리게닐으실줄을아노라에수나골
으샤티네게말호는나이가그사름이로라호시니그녀인

이물등의물브리고급히성에드리가서빅성드려말하되
나1가전에훈일을다내게닐으는사롬을와셔보라이가
구세주가아니나빅성들이와셔예수를보고데희성안으
로오심을빌더라그러므로예수가거기오샤빅성들과함
기사흘을며무실식빅성들이예수마르치심을드른후에
그녀인드려말하되우리가지금예수를밋는거시너1가
우리드려예수를말할연고가아니라우리가친히드른고
로예수가런당으로좃차오신구세주신줄아노라하더라
그제브터예수가이스라엘빅성을마르치기를비로소하
시며닐너곧으샤티심관하느날이오매너희가맛당히죄
를회개하고나를밋으라하시더라○그후에예수가물로
술를변하던가나성에다시가섯더니거기흔벼슬한사롬

이에 수쇠 왓스니 그 사람이 혼병든 아들이 잇는고로 예수
 쇠와 쳐제 아들 낫게 호심을 청하며 에수를 제 아들이 잇는 집
 으로는 시기를 원하야 곧 으티 속히 내 아들 죽기 전에 오쇼
 셔하니 그 사람 심각에 예수가 제 아들을 가보신 후에야 낫
 게 호실 줄 알엇더니 예수가 그 사람 드려닐너 곧 으샤티네
 아들이 나 홀거시니 네 집으로도라가라 호신티 그 사람이
 예수 말씀을 밋고 먼길에 제 집으로도라갈식다 음날에 제
 집에 나르기 전에 제 하인들이 와서 그 사람을 맛나 보고 그
 아들이 낫다 호거늘 그 사람이 제 하인 드려 부르티 내 아들
 이어는 썩브러 비로 소나 헛는 노 하인이 티답호티 어제 미
 시브러 열병이 업셔 졌다 호거늘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수
 말씀이 네 아들이나 호리라 호시던 썩가 곳 그 썩인 줄을 알

고 그 사름과 그 식구들이 예수령적을 보고 하는 님아 물인
줄 밋더라 예수가 여러 히 살던 그 나 살 잇 성에 오시니 그곳
에 흔 회당이 잇는 지라 우리 본바 예루살넴에 유대 사름들
레 비 호는 성던이 잇스나 예루살넴에 서 길 이 먼 다른 시골
사는 유대 사름들은 레 비 일 마 다 그 성던에 올 수가 업스매
그 사름들 리제 시골에 저 근 레 비 당을 지엿스니 저 근 레 비
당은 회당이 라 부르더라 레 비 일 에 예수 가 나 살 잇 회 당에
까지 고 초 여러 유대 사름들이 거기 되히 매 예수 가 유대 사
름들 드려 닐 너 곧 으샤 티 나 1 가 하 는 님 이 텨 당 으 로 좃 차
느려 보 내 친구 세 유로 라 호 시 니 유대 사름들이 예수 가 구
세 유 신 줄 을 밋 지 아니 훈 고 로 예수 가 이 말 숨 호 실 세 에 비
성들이 미우 성 세 고 예수 를 붓 잡고 회 당 밧 쇠 나 가 서 성 싸

혼산절벽에셔러티려죽일만흔곳으로쓰을고갓스나에
 수논하느님전능이잇는고로그사름들이능히해치못하
 고또에수가그사름들을브리고그성을셔나시니라에수
 가바다에가베나옴이란성에가셔물에셔섯스매빅
 성들이에수의르치심을드르려고들너모헛더라에수
 가어부의두빅를보시니그빅들은바다에셔싱션잡는사
 림의비라그셔어부들니싱션을잡지아니하고그물을씻
 고곳치더라흔사름의일흠은베드로니제형안드레하
 와흠쇠도음더라그히변에빅성들이에수말슴을드르려
 고들너섯스매에수가베드로의빅에가샤베드로드러빅
 를좀히변에셔셔나게하기를청하시니베드로니빅를좀
 셔나게흔후에에수가빅에안즈시고섯는빅성들을르

치시더라 예수가 빅성들을 다 부르치신 후에 베드로와 안
드레아 드려닐으샤 티바다의 빅질흐야 나가셔 그물을 물
에 너허싱션을 잡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곧으티 우리가 밤
쉬도록 싱션잡기를 시험흐티 잡지 못흐엿느니 다 그러나
션싱님이 흐라 하시니 그물을 너흐리다 흐고 그물을 너헛
더니 싱션을 미우만히 잡엇스매 그물을 들수가 업셔 씨여
지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갓가히 잇는 다른
어부야 곱보와 요한을 불너 도아달나 흐니 그 두사람이 그
빅에 와셔 협력흐야 그물을 물밖게 쏘을어 내고 싱션을 취
흐야 두빅에 시르니 엇더케 만흔지 빅가가거의 잠기게 되더
라 이늘 예수가 그 싱션들을 어부가 잡을 곳으로 오게 흐신
거시라 그 전에 는 어부들이 싱션을 잡으려 흐티 거기 싱션

이 업더니 예수가 어부드려시 험하라 하시니 후에 그러케 탄
흔 심선이와셔 두빅에 마득히 엮스니 이 거시 물을 변히야
술은 든 것과 버술하는 사름의 아 들 곳 친 것과 마흔령적 이
러라 베드로가 예수히 신령적 을 보고 예수압헤 절하고 공
경히 드러 예수가 그 사름들로 데즈를 삼고 저히 시는 고로
배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계당 신이 하느님
아름인 줄을 알게 하려 고이러케 하시니라 그 사름들의 계
말씀 하샤 티나와 흙 석오라 하시니 그 사름들이 제비와 그
물과 또 제게 잇는 거슬 다 브리요에 수를 쓰라 가니라
데류장 레비 일 에 예수가 배나 음회 당에 가샤 거기 온 백
성 들 을 마르치 실 식 그 중에 흔샤 귀 들 닌 사름 이 잇스니 우
리가 본 바 악흔 셴 스와 샤귀 가 넷 적 에 는 셴 당 에 잇는 착흔

런 스엿 마는 하는 님을 거역 혼고로 하는 님이 려당에 서 내
치섯 는 니 려스와 싸귀는 죽지 아니 하는 고로 려당에 서 내
친 려스 들도 지 금 사 지 살 아 잇 서 모든 착 혼 일을 위 위 하는 야
티 덕 혼 고 저 혼 고 우리 와 또 치 몸 이 잇 지 아니 하는 때 우리 가
지 못 하는 곳에 능히 드리 가 는 니 사 랫 이 그 중에 님 금 이 라
제 모 음 에 어 티 던 지 해 흘 곳 으 로 모든 악 귀 들 을 보 내 더 니
넷 적 에 예 수 께 이 세 상 에 계 실 쎄 에 사 랫 이 잇 다 금 악 귀 들
을 사 나 회 계 나 계 집 에 계 나 어 린 으 히 들 의 계 드 리 가 계 혼
니 악 귀 들 님 사 름 은 무 어 시 던 지 악 귀 가 식 이 는 때 로 혼 더
라 그 쎄 회 당 에 잇 는 혼 사 름 의 계 악 귀 가 드 리 갓 스 니 악 귀
는 사 름 의 뜻 을 순 종 하는 지 아니 하는 고로 그 사 름 이 그 악 귀
를 나 가 게 못 하는 더 니 그러 나 악 귀 들 이 예 수 의 계 는 순 종 하는

는지라 능히 악귀를 나가게 하고 또 악귀 드려 그 사람의
게셔 나오라 하시니 그 악귀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
을 쓰에 너머지게 하더라 그 후에는 악귀가 그 사람을 쓰나
가니 회당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서
로 말하되 악귀도 예수의 계는 순종하니 이거시 엇지 할 일
이뇨 하고 가리리 일경 백성들이 예수 하신령적을 다 드러
나라 예수가 회당에 나오샤 두데즈베드로와 안드레아 사
는 집에 가시니 베드로와 장모가 열병으로 알켜늘 그 사람
들이 예수 쓰에 그녀 인갓게 하심을 청하되 예수가 그녀 인누
은 침상 넘혀서서 손으로 그녀 인을 잡하니 러키시니 즉시 열
병이 업셔지매 그녀 인이니 러나셔 집에 있는 사람들 을 접
되 하더라 그날 저녁에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 병인과

샤귀들닌사람들을드리고왔거늘 예수가 병인마다 다 낫게
홍시고 악귀잇는 사람의게 악귀를나가게 홍시니라 그이
른날아 촌복기전에 니러나셔 그성밖게적막한들어가샤
거기셔 싸에술어안자셔하는님씩기도 홍시니라 예수가
비록하는님의아들이오런당에셔살으섯시나 우리로말
미암아 사람이되샤세상에느려오시고 또세상에게신동
안에근심파고로온여러가지일이잇스매하는님씩도아
달나고기도 홍시니라 예수가들어나가신후에가베나옴
빅성들이예수를츠자베드로집에왔다가 예수가거기셔
나심을듯고예수를츠자밖씩이나와셔 예수씩저희성을씩
나가지말으시기를빌거늘 예수가닐너 곧 〇 샤티나 1 가
맛당히다른성에서는빅성의게가셔전도 홍리라 홍시고

그 후에 예수가 그사원성애가셔복음을전하시니복음은
 도흔소문이이라복음에도흔소문은우리가전에본바예수
 가우리악한마음을착하게못치시고우리죄를업게하시
 고심관하는날에우리형벌받을게슬구속하시려고던당
 으로좃차느려오신거시라우리가다하는님을거역하여
 죄짓기를여러번하고또하는님말씀이죄진사름은형벌
 받으리라하시거늘우리가죄지은고로맛당히형벌받을
 게슬예수가엇지능히구속하시느뇨한가지법이잇스니
 예수ㅣ우리를티신하여벌 받으신거시오또예수가우리
 를이러케사랑하시당신이그러케하시기를즐거하시스
 니우리죄에예수가엇더케티신형벌 받으신게슬장춧말
 하시리라우리가그죄를회개하고죄짓기를긋치매우리를

복음요스

세록장

이십륙

인하야 형벌 받으신 예수를 사랑치 아니면 예수 죽으신 거
시 우리를 구하옵지 아니시리라 문동병든 사람을 향하니
수외 왓스니 이거시 미우무서 온병이라 누구던지 이 병들
면 즉시 제 집을 켜나서 혼자 잇슬 곳으로 가거나 저와 갓치
문동병 잇는 사람과 함씩 잇셔 다 낫기 전에 는 집에 도라오
지 못하느 법이니 하는 법이 병을 곳치는 이가 업느니
라 하는 법이 후이 병으로 사람을 형벌하시느니 우리가 성
경을 보니 넷적에 하는 법이 웃시 아라 하느니 금의 계 문동
병을 보내섯시니 그 법이 하는 법 말씀 거역 할 연고
라 웃시 아가 스물여덟히 를 곳치지 못하 고 죽도록 문동병
이 잇스 매 항상 다른 사람을 켜나서 산 집에 잇고 그 아들이
티신 남 굶되 니라 그 때 이 괴악 할 병 잇는 사람이 예수 외와

셔압헤살며안저말흐티주여이것흐시기를즐겨흐려흐
 실진대능히나를써긋흐게흐시리다예수가그사름을불
 상히녀이샤손을들어그사름을문지시고골으샤티나는
 흐고저흐노니너는써긋할지어다예수가그말שמ흐신후
 에즉시그사름의게문동병이업서지고다나흔지라또예
 수가그사름드려닐으샤티하모드려도누가너를긋쳤다
 말흐지마라흐섯시티그사름이났게된거슬너무즐거워
 흐야나가서모든빅성의게말흔지라그러므로여러사름
 들이예수의화셔들너모히니예수가거긋셔머물수가업
 는지라또흔자계실들에가샤거긋셔하는님씩기도흐시
 고또가베나옴성에가시니이성은바다긋히라그썬예수
 가흔집안에가샤긋르치실씩그성에여러빅성들이예수

말씀을 드르려 고 모혀왔스니 사름이 그러케 만흐매 다드
러 올 수가 업서 셔 문밖기도 섰더라 또 었던 사름들이 반신
불슈병잇는 사름을 드리고 왔스니 반신불슈병이 사름을
약하게 문드느 고로 능히 것지 못흐고 제 친구들이 듯거 온
요에 누여 드리고 왔스니 예수가 능히 령적을 흐시고 의원
이 곳치지 못흐는 병을 곳치는 거슬 드른 연고 1 러라 그 사
름들이 예수게 신집에 왔슬 썩에 들너 섰는 사름들이 만흐
매 드리 갈 수가 업느 고로 집우희 올나가 셔기 와를 벗기 여
구멍을 닦후에 병인을 요에 누여 예수게 신방으로 느려 보
내니 그 사름들이 이러케 흐는 거 손저희 밋음을 뵈이느 거
시라 그 병인의 친구들이 예수가 그 병인을 낫게 흐실 줄을
밋고 예수께 오기를 이러케 애쓰므로 저희 밋음을 뵈임이

러라 예수가 그 사름들이 그 만콤밋음을 보시고 그 병인의
 반신불슈병을 곳친 것보다 더 호흔 일을 하섯스니 이는 그
 사름의 죄를 사함이라 그런고로 하는님이 그 사름의게
 는 노함 형벌하시지 아니시리라 사름은 죄를 사함지 못
 하고 오직 하는님이 능히 하시티에 수가 능히 이러케 하시
 는 거손하는님이 오하는님 권능이 잇는 연고라 예
 수가 그 병인 드러닐으샤 티네 죄가 다 사함을 엿엇다 하시
 더라 그새 그 집에선 비라 하는 사름들과 바리새라 하는 사
 람들은 착한 사름이 아니 오거 조 착한 데 하는 사름이니 다
 른 사름으로 하여 몸제 악할새에 착한 줄노 알게 하려 하는
 거시라 그 사름들이 예수가 병인 드러네 죄가 사함을 엿엇
 다 함심을 듯고 깃거 아니 하야 심중에 만이 심각하시하

그럼과 못치 죄를 사함다 하는이 가누구요 하니 예수가 그
사람들 심중에 생각함을 알으시고 곧으샤 티엿지 하야 너
히 믿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도나 너희로 하여곰인조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이 있슴을 보게 하리라 하시고
그병인드려닐너 곧으샤 티네 발노 나셔네 요를가지
고네 집으로도라 가라고 말씀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낮게
하신지라 죽시 그병인이 나셔 제 요를가지고 모든 사
람압해나 가니 모든 백성들이 신기히 녀 곧으 티우리 전
에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데칠장 우리 늙은바 유대사람 사는 처를이 스라엘이라 하
느니 유대사람들이 파로의게 종노릇하던이 곱싸에셔 나
온 후에 하는님이이 스라엘씨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씨를

초지하게 하였스니 유대 사름들이 거기서 수백년 사렸고
 능히 영원히 복받을 수 있겠것마는 그 사름들이 하는 일을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는 님이 다른 나라 님 금을 보
 내사 유대국을 형벌하시실시 그 님금이 군스를 거느려 유대
 사름과 싸워서 이기셨스니 유대 사름들이 그 나라 님 금을
 섬기여 하인이 되었느니라 예수께 상에게 실새에 유대 사
 림들이 로마국 종이 되어야 그 님금이라 하는 때로 하는지라 그
 님금이 유대 사름들 드려 돈을 드리라 할 때 유대 사름들이
 로마국에 돈을 드리니 그 님금이 이스라엘에 친히 와서
 돈을 받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름을 보내어 돈을 받게 하니
 그 사름을 세라하고 그 돈을 부세라 할 때 예수가 길가
 서다가 마태라 하는 세라가 부세 받는 집에 안젓음을 보시

복음요스

에칠장

이십구

고닐너 곧으샤 티날과긔치오라 하시니 마태가 가리나셔
모든물건을 버리고 예수와긔치가 나리세 리가 후부가
되느니 마태가 저잇던 곳에잇섯스면 돈을 팔히모과 부작
가 되엿스런마늘 마태가 가난할지라도 예수와긔치가
를 즐겨하야 그세브터 예수와긔치가 서셔 그대즈가 되니
라 예수가 예루살렘성에 가시니 그성에 양문이 열렸
서 양들이 그문으로 지나 성안에 드리가더라 그양문갓가
이 흘웅덩이가잇스니 일흠은 베테스다 웅덩이라 하더라
또 웅덩이에 도라가며 다숫덩즈가잇스니 그덩즈에 온갓
병인들이 판히모쳤스니 그병인들이 거기 드리논연고
는 그웅덩이에 물이잇다 금누가 젖고 흘드논것긔치요 동
흐는지라고 병인들싱각에 물요 동출후에 아모던지먼저

드러가는 사람이 아모병이던지 낮게 될 줄 알미러라 예수
가 그 웅덩이에 오샤 덩즈에 서기 드리는 불쌍한 병인들 가
온 때로 든니 시더니 거기 실혼여 똥히 병든 사람이 잇서 약
흥야 능히 셔지 못함 때 침상에 누엇더니 예수가 그 사람이
그러케 오래 병든 줄을 알으시고 불쌍히 녀키샤 곧으샤 티
너기가 낮기를 원함은 나함이니 그 병인 생각에는 물에 드
러가야 저기가 나흘 줄 알고 티답함야 곧으 티 물이 요동흔
후에는 나를 도와 웅덩이에 드러가게 함은 사람이 업스니
나기가 물에 드러가려 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드러
가니 나는 가기 녀무는 다함겨 놀예수기 곧으샤 티 나
셔네 침상을 가지고 거러라 함이니 그 사람이 죽시거 운이
나고 병이 아조나 하니 러나셔 제 침상을 가지고 거러가더

라 예수 가 너 러 케 호 신 날 이 레 비 일 이 러 라 유 대 사 롬 들 이
그 병 인 이 침 상 을 가 지 고 가 는 거 슬 보 고 그 사 롬 드 러 말 호
티 레 비 일 에 침 상 을 가 지 고 가 는 거 시 그 르 다 호 너 유 대 사
롬 들 이 이 말 호 는 거 손 하 는 님 이 닐 으 샤 티 레 비 일 에 는 일
호 지 마 라 호 신 연 고 1 라 그 러 나 이 사 롬 은 레 비 일 에 일 호
거 시 아 니 여 늘 유 대 사 롬 이 말 호 티 너 1 가 잘 못 호 셧 다 호
너 그 사 롬 이 티 답 호 티 나 를 곳 친 사 롬 이 나 드 러 침 상 을 가
지 고 거 러 가 라 호 더 라 호 티 그 사 롬 들 이 무 르 티 너 드 러 이
러 케 호 라 닐 으 던 사 롬 이 누 구 요 그 사 롬 이 곧 으 티 예 수 라
호 니 유 대 사 롬 들 이 예 수 를 칩 땅 호 야 곧 으 티 레 비 일 에 사
롬 을 곳 처 지 아 니 할 거 시 라 호 고 또 곧 으 티 예 수 가 레 비 일
에 이 령 적 흠 으 로 하 는 님 을 거 역 호 셧 다 호 고 예 수 쇠 미 우

성내야 죽이려 하거든 예수ㅣ 유대 사람의게 말씀 하야 곧
으샤 티하는 남이나를 보내샤 령적을 하라 하섯다 하친 티
유대 사람들 이하는 남이 예수 보내신 거슬 밋지 아니 하더
라 예수 말씀 하야 곧 으샤 티나ㅣ 가하는 남아 돌이 오또 나
ㅣ 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썬아 니라 죽은 사람 살게 하느 권
능이 잇노라 하시고 또 말씀 하야 곧 으샤 티 죽은 사람들 이
내 부르느 소리를 듯고 무덤에 서 니러 날 새 가 잇스리 니을
흔 일흔 사람은 상주 고 악한 일흔 사람은 형벌 받을 곳으로
보내 리라 하시 니라 예수와 데즈들이 레 퇴일에 밋 봤흐로
지나 갈 시 데즈들이 밋이 삭을 쓰 셔 손에 부 비여 썬 흘 속 에
잇는 밋을 취 하니 때 깨 데즈들이 시 잔 흔 고 로 먹으려 흠이
러라 바리새 사람들 이 그 데즈들을 보고 배 데스 다 웅 덩 이

복음요스

예칠장

삼십일

에셔 레비일에 예수가 병인 곳침으로 칙망함과 궤치도 칙
망하야 곧 으티 너의 데즈들이 레비일에 일을 하엿다 하거
늘에 수 1 그 사름들 드려닐으샤 티나 1 가레비일쥬인이
로라 하시니 예수성각에 당신이 레비일에 하신일이 올흔
죽당신 하신일과 데즈들 드려하라 하신일을 그 사름들이
칙망하지 못하리라 하심이라 다른 레비일에 예수가 빅
성들 모혀성정보고 기도하는 회당에 가시니 거기 올흔 손
이 곱으러져서 궤지 못하는 사름하니 이 왓거늘 그 회당에
잇는 선비들과 바리새 사름들이 예수가 레비일에 사름을
궤치는가 직히니 전에 흠과 궤치에 수를 칙망하고 저 흠이
러라에 수가 그 사름들의 뜻을 알으시고 다른 빅성보는 곳
에셔 손 곱으러진 사름 드려나리셔라 하시고 선비와 바리

새 사름들의게 말씀 하야 곧 으샤 티 만일 레비 일에 구덩이
에 썩러 지는 양이 잇스면 너 1 가 부잡 어 드러 내지 안 켜는
냐 또 만일 양의게 착 하게 하는 거시 을 흘진대 사름의게 착
하게 하는 거시 을 마나 더 올 켜는 노 그러 므로 나 1 가 너 회
드려 레비 일에 올 혼 일 하는 거시 요 라 닐 으 노 라 하시 고 손
꼽 으러 진 사름 드려 닐 으샤 티 네 손 을 펴 라 하시 니 그 사름
이 손 을 펴 니 죽 시 나 셔 다 른 손 파 3 더 라 그러 므로 바 리 새
사름 들 이 예 수 쇠 성 내 여 회 당 에 나 가 셔 예 수 죽 이 기 를 의
논 하 더 라 예 수가 이 일 을 알 으 시 고 당 신 데 즈 와 흠 썩 그 썩
를 썩 나 샤 가 리 리 바 다 에 오 시 니 먼 성 에 사 는 여 러 뱀 성 들
이 예 수 를 썩 를 식 병 들 고 다 리 절 고 샤 귀 들 닐 사 름 들 이 예
수가 든 지 기 만 하시 면 능 히 낫 게 되 는 고 로 예 수 를 든 지 려

고 들너 모혀섯스니 예수가 그 사롬 들을 다 곳치시니라 그 후에 예수가 적막 혼 들에 나가 샐 거기 셔 밤 시도록 머 무르 시며 하느님 쇠기도 향시고 아 침이 되매 데즈 들을 부르샤 그 중에 셔 열 두 스도를 곧 회시니 스도는 스자 와스 혼 뜻이 라 예수 가 열 두 데즈 를 스도라 부르시느거 손 빅 성 의 게 스 자 와스 처 보 내 여 빅 성 을 마 르 치 게 향 려 향 신 언 고 1 라 열 두 스도의 일 흠은 베드로 와 안드레 아 와 야고 보 와 요 한 과 피 립 보 와 바 들 노 미 와 마 태 와 알 피 오 아 들 야고 보 와 시 몬 과 야고 보 의 형 유 다 와 이 시 가 로 사 롬 유 다 라 예수 가 산 에 올 나 가 샐 거기 안 진 후 에 빅 성 을 마 르 치 실 시 었 더 혼 사 롬 들 이 침 락 을 었 느 다 향 시 매 이 사 롬 들 이 복 밧 느 니 라 향 시 더 라 또 곧 으 샐 티 무 음 이 가 난 혼 자 1 복 밧 느 니 라 사 롬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불안할새에 교만함도 음을 업시
 여야 제 죄를 회개 하고 하는 님의 용서 하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슬피 행하는 자 - 복받는 나 우리는 근심이 잇슴으로
 고 슬피 행하는 나 우리 근심 잇슬새에 이 거슬 미우어 럽게
 되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문에 근심하면 하는 님이 우리
 를 어엿비 내어 사죄를 용서 하시고 근심을 업게 하시니
 라 온순한 자 - 복받는 나 온순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게 무례하고 우리를 해하고 저 할새에 참고 성내지 아니
 하는 거시니 예수가 세상에 계실새에 악한 사람들이 예수
 무례하고 사오납게 하되 예수가 그 사람들을 의하게
 하사 그 사람들을 당신씩 할 일을 참으시고 온순하게
 보시니 우리 가에 수대 조되기를 원할진대 맛당히 예수와
 함께

복음요수

제칠장

삼십삼

할거시라 올흔일호기에 비좁흐고 목므르면 복받느니에
수말삼이 우리가 반드시 올흔일을 호고 하는 짐줄 겁지호
기를 비좁흔색음식과 목므르색물과 못치워호라 호심이
라 만일 우리가 올흔일을 그리케 원호면 하는 짐이 우
리를 도아셔 호게 하시느니라 다른 사롬을 불상히 녀이느
자 | 복받느니 다른 사롬들이 장춧그 사롬을 불상히 녀이
리라 불상히 녀이느기 손착호게 호는 하시니 하는 짐이 우
리드려 다른 사롬의게 착호게 호라 호섯스니 우리가 만일
그 때로 호면 하는 짐이 다른 사롬으로 호여 곱우리게 착호
게 호시고 또 하는 짐도 우리게 착호시리라 우리가 말 못호
는 짐승의게도 착할거시니 그 짐승들과 우리를 다 하는 짐
이 내신거시니 우리가 그 것들게 사오납게 할색에 하는 짐

이즐거흐지아니시느니라 믿음이라 믿음은자니복받느니
은 믿음은착하고정함 믿음이라우리가믿은 믿음으로나
지못하고악함 믿음으로나잇마는하느님성신이우리
음을변하여복게문드시고도성신이이러케하신후에하
느님이우리를당신아들삼으시느니라화복케하는자
니복받느니화복케하는자는친히싸호지아니하고다
른사람의싸움을말니고또다른사람들이싸흔후에다시
친하게하는니라

데팔장 예수니골으샤티니가나의데스된고로빅성이
친하지아니하고악하게할새에맛당히근심하고원망
지말거시오깃버라하시니우리가만일세상에셔살새
에예수를위하여악한일을춤이면련당에올나간후에하

복음요스

데팔장

삼십스

느님이우리게도흔거슬주시느니라그러므로우리가에
수를위하야악한티접보는거슬맛당히참을거시니라또
우리만이러케티접보는거시아니라넷적에하느님이보
내신선지자들도악한티접을받엇느니라우리가본바선
비들과바리새사롬들은거짓착한자이니모음은악한티
다른사롬으로하야곰착한줄노알게하고저하는사롬들
이라예수가데즈들드려닐너골으샤티너희가선비들과
바리새사롬들보다낮지아니하면천국에가지못할거시
니그사롬들과국제하지말지어다또비성들의게말씀하
야골으샤티너희선생들은너희드려닐으티만일너희가
다른사롬을죽이면형벌보는위티흠이되리라하티나는
너희들드려닐으노니너희가만일너희게해흠이업는사

롬의게성내기만흐면너희가형벌받는위티움이되리라
또데즈들드려닐너큰으샤되너1가성던에올나가하는
님씩레비할새다른사롬의게잘못흐엇는가싱각할거시
니님의거슬가젓는가님의게거조말흐엇는가님을다른
일에해롭게흐엇는가싱각흐야만일잘못흐일히잇거든
맛당히그사롬의게가셔올케할거시너무음에회귀치하
니흐는죄가잇스면하는님이그피도를듯지하니흐시는
나라우리가모든일흐고말흐는티정절흐고착흐게할거
시오간샤흐고악흐싱각도말거시너만일하는님이우리
가정결치하니흐싱각함으로깃거하니흐실진때우리가
정결치못흐말과형실을흐면하는님이엇더케노흐시겟
느노다른사롬이우리게무정이할새에우리가그사롬의

복음요스

에갈경

삼십오

계무정이 흥지 말고 착흥계 흥며 사름을 위흥야 기도 할 거
시니 우리가 려당에 계신 아바지가 당신을 순종하고 공경
흥지 안는 사름의 계도 착흥계 흥심과 못치 할 거시니라 예
수기도 데즈 들드려 닐으샤 되너기가 착흥일을 할새 다른
사름이 보고 칭찬흥기 만 위흥지 말지어다 너기가 올흥일
흥는 거시 칭찬듯기 만 위흥야 할 거시 아니 오하는님이 깃
거흥시기를 위흥야 할 거시니라 너기가 난흥 사름의 계
돈을 주고 두루 든니며 다른 사름의 계 닐으고 자랑흥지 말
며 기도 할새에 바리새 사름들과 못치 말나 때 개바리새 사
름들은 흥상길에 나와 기도흥야 다른 사름으로 들니고 착
흥 줄 알게 흥고 저흥이 러라 예수 데즈 들은 맛당히 하는님
밖기듯지 못 할 곳에 서기도 할 거시니 하는님이 그기도를

듯고 티답 하시느니라 또 곧으샤 티우리가 이세상에 서 부
자 되야 돈 만히 가지기를 원하시말고 현당에 적물을 들거
시라 하시더라 우리가 현당에 돈을 둔다 하시니 오
우리가 현당에 서는 돈을 쓰지 아니하시니 현당에 서 우리
즐거 하시니 이세상의 돈으로 능히 사는 것보다 더 만
리라 또 비성의게 말씀하시니 가하는님과 사탄을
저 섬기지 못하시라 하시니 우리가 그러케 할수 업는 거
만 일하는님을 순종하시니 그러면 일을 하려니와 사탄을 순
종하면 그 큰일을 할거시니 그러므로 못치 섬길수가 업스
니 맛당히 하시니 흘곧히 여 섬길지니라 또 데즈 들드려
닐으샤 티너가 다른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하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물고 척망하기를 조심할거시라 후그
사람이

복음요스

예팔장

삼십륙

우리나물하는일을하지아니하였는지혹하였스나해로
을줄을모로고하였는가우리논님의모음을볼수가업고
또그사름이그일할새에엇더계상각하였는지알수가업
스티오직하는님은아시고쉬지름하지아니시느니라또
우리가다른사름을나물하던일을흔이하는니예수말씀
이우리가잘못하는일을맛당히몬져긋치고후에다른사
름을척망할수잇다하시느니라또듯는빅성들의게닐너를
이샤티우리가다른사름이우리의게하기를원하는거슬
반드시더들의게하기를하시니우리가다른사름이우리의게
착하고올케티접하기를원할진대맛당히그사름들을착
하고올케티접하기를하시느니라또빅성들의게말씀하시디좁
은문으로드러가기를시힘하라때개광대흔문과넓은길

은 멸망하는 티로 인도하는 거시라 예수가 좁은 문으로 텅
탕에 올라가는 길을 비호신 거시오 문은 문으로 디옥가는
길을 비호신 거시라 허다한 사람이 문은 문으로 갖시 티 좁은
문을 초저셔도 혼길로 드리 가려고 신고하는 사람은 만치
아니 하니라 예수이 말슴 호신 거시 당신을 주이라 부르
는 사람이 다 텅 탕에 드리 감이 아니 오 오 직 텅 탕에 계신 아
바지를 순종하는 사람만 능히 드리 가니라 그리케 하지
아니 할 여러 사람들은 심판하는 날에 예수 쇠와셔 주야 주
야 부르며 곧 티 예수를 위호야 할 호엿느니 다 호고 또 다
른 사람의 계수를 날 잊노라 호여 도 예수가 그 사람들을
계장 츄너 희가 종리나의 춤 데즈이 아니라 날으시고 모든
악한 비성과 곳치 내보내시리라 또 예수가 두 사람이 각각

복음요소

데 팔장

삼십칠

집 짓는 것 스스로 말슴 하샤 디 훈 사람은 실과 훈 바 회를 끝나
그 후 제 집을 지엿스니 다 지은 후에 큰 풍우가 집을 부딪
치 디 집 바친 바 회를 움 죽이지 못 하고 바람이 부러도 밀치
지 못 할 때 그 집이 견고 하셔 풍우가 해 하지 못 하고 또 훈
사람은 모래 타 쇠야 모 것도 업는 곳에 제 집을 지엿더니 그
풍우가 집을 부딪치 매 비는 밋헤 모래를 파고 바람은 집을
거스려 부니 그 집이 문어 졌는 니라 하시니 예수 말슴이 당
신이 날으시는 말슴을 좃는 사람은 바 회 우헤 집 지은 슬기
로운 사람과 갓고 당신을 거역 하는 사람은 모래 우헤 집 지
은 어리석은 사람과 갓 하니 그 두 사람으로 착 하고 악 훈 사
람들을 비 호신 거시오 풍우가 집을 치는 거스로 심판 하는
날을 비 호시 니라 예수 가 배나 음에 다시 오시 니 거 기 사는

훈사름이 로마국군사의빅부장이라 그빅부장이 훈사랑
 하는하인이잇더니 그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엇는지라 빅
 부장이 예수가 병인드러나 흐라 말슴만 하시도 능히 낫게
 하시거슬드러는지라 예수 그성에 오심을 듣고 제 친구
 유대사름중에 슈두를 보내여 예수께 제 하인을 낫게 하시
 기를 청하매 그사름들이 예수께 와서 빌어 곧 잇디 그빅부
 장이 비록 유대사름이 아니 오 로마국사름이나 착하고 또
 제 돈으로 회당을 지엇스니 유대사름의게 어질게 하엿는
 니 다 예수가 그사름들과 곳치 빅부장의 집으로 가실시 집
 에 곳가이가 실새에 빅부장이 또 제 친구들을 예수께 전갈
 로 보내엿스니 그빅부장이 예수께 와서 친히 말하시 못함
 은 제 생각에 불감함이러라 말로 전갈 하야 곧 잇디 예수께

서 제 집 에 오 시 기 는 제 마 음 에 불 감 하 매 오 실 것 업 시 제 하
인 이 나 흐 리 라 말 습 만 흐 서 도 덩 녕 나 흘 즐 알 고 그 빅 부 장
이 제 말 을 좃 는 군 스 들 이 잇 스 니 아 모 티 라 도 가 라 흐 면 군
스 가 가 고 다 른 군 스 를 오 라 흐 면 오 는 니 그 군 스 들 이 제 말
좃 는 것 과 궂 치 그 병 이 제 하 인 의 게 셔 나 갈 즐 밋 는 니 다 흐
엿 더 라 예 수 가 그 전 갈 을 드 르 시 고 것 버 흐 샅 곧 으 샅 티 나
| 이 러 께 밋 는 사 름 을 보 지 못 흐 엿 노 라 그 사 름 이 나 를 밋
는 고 로 저 의 하 인 이 나 흐 리 라 흐 시 더 니 빅 부 장 의 친 구 들
이 그 집 에 드 리 가 니 그 하 인 이 나 왔 더 라

데 구 장 다 음 날 에 예 수 가 나 인 이 라 흐 는 성 문 갓 가 이 오 실
새 에 형 상 에 죽 은 사 름 을 메 고 나 오 는 빅 성 들 을 밋 나 시 니
그 사 름 이 되 로 못 처 러 가 더 라 그 사 름 이 제 어 미 의 외 아 들

이오제어미는과부가되엇더라그새그어미형상뒤에
라가며을고초그성에사는여러백성들이곳치가더니
수가그녀인이우는거슬보시고불쌍히덕이샤을지마라
닐으시고녀인의아들뉘인형상에가셔문지시니메고
는사롬들이머물고섯더라에수ㅣ말씀하샤티점은사롬
하나ㅣ네게말하느니이러나라하시니그죽엇던사롬이
다시살아나셔이러셔며비로소말하느니라에수가제어
미의게주시니그백성들이죽은사롬이살아이러남을보
고두려워하으며골으티에수는놓흔선지샤요하느님이우
리게보내섯도다하더라그후에에수가그동녀와성에가
샤거기사는백성들의게전도하실시열두데즈들이곳치
든니더라세상에잇는물건이모도에에수의거시니능히부

자 되련마는 가난함과 형벌과 근심을 받기를 골라하신 거슨
우리로 하여금 천당에서 영원히 즐겁게 하심이라 예수께
서 병과 악귀 곳 친녀인들이 예수가 쓰시느물건을 드리니
흔녀인의 일홈은 막다렌에 마리아요 또 흔녀인의 일홈은
요안나요 또 그외의 여러녀인들이 예수를 돕더라 허다흔
벽성들이 예수께 들너 모히여 예수하시느말씀을 드를시
에 수가 흔비유로 말씀하시니 누구던지 하느님을 순종하
나 하니 흔나부자만 되면 복잇는 줄로 아는 사름이 었더케
어리석고 악흔 거슬 알게 하시라 그 비유에 흔 사름이
곡식밭과 실과동산이 잇스니 곡식과 실과가 다 익은 후에
그 사름의 하인이 가져거 두어 가져오니 그 밭헤 잇는 거시
믹우만 흐매 광에 다 담을 수 업는 지라 그 사름이 흔 작성 각

후디내 곡식과 실과를 담을 광이 업스니 나ㅣ가 장춧엇지
 할고 또 혼자티답 후디내 광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 곡식과
 실과를 두리라 그러 후면 나ㅣ가 부자가 되고 여러히 쓸거
 시잇스니 내 소원대로 후리라 후디니 그 사롬이 그 생각은
 후에 즉시 하는님이 그 사롬드려닐으샤티너ㅣ가 어리석
 은 사롬이로다 너ㅣ가 오날 밤에 죽을거시니 저 축 후야 든
 여러히 쓸거슬 누가 질고 후시더라 예수가 이 말슴 후신
 뜻은 하는님 섹즐 겁게 후기는 험각지하니 후고 이세상에
 셔 부자 되는 것만 하는 사롬 들은 이 비유에 말슴 후신 사롬
 과 못치의 외에 죽어서 제 짐을 다른 사롬의게 전슈 후고
 저는 저 축 후지 못할 곳으로 가리라 후시니라 예수가 데
 즈들드려닐으샤티가 난 후야 먹을 음식과 입을 옷시 업스

을근심하지 마라 새는 밧헤 곡식을 갈지 아니 하니 하니 흉상 먹
을 거시 너 너 혼 거 손 하는 님이 먹이 시는 연고 요 샷 손 사 롱
과 곳 처 일 하지 안 코의 복을 짓지 아니 하니 하니 흉터 아 롱 다 온 빗 처
잇서 님 금의 옷 보 다 더 고 하니 하는 님이 때 단 처 아니 혼 샷
의 게 곤의 복을 주실 진 때 너 1 가 지 금 나 밋기를 두 려 하니
하 는 님이 네 옷을 주시 리 라 그러 므 로 예수 가 빗 성 들 두 려
닐 으 샤 티 려 당 에 게 신 너 희 아 바 지 가 너 희 쓸 거 술 알 으 시
는 고 로 먹 을 음식 과 밥 을 옷 시 업 슴 을 두 려 위 하니 마 라 그
러 나 너 희 가 하는 님 순 종 하니 기 를 조 심 하니 야 하는 님이 너
희 를 당 신 아 들 을 삼 으 시 고 너 희 쓰 는 모든 거 술 주시 리 라
예 수 가 가 리 리 바 다 2 에 가 실 시 려 비 성 들 이 예 수 쇠 으
매 예 수 가 전 에 흥 심 과 곳 처 비 에 드리 가 안 즈 샤 희 변 에 쇠

는 백성들을 부르치실시 농부가 밭헤서 시무는 비유로 말
 씬 농부 시니 농부가 씨뿌릴새 씨가 후길에 사름들 왕리 호는
 티 썩러져서 썩히든 호고 로 썩히기 박히지 못 호고 씨 거
 족에 잇는 지라 새가 죽시 주어 먹고 었던 씨는 흙이 적은 들
 씨에 썩러져서 급히 나 티 썩히 박힐 틈이 업는 호로 죽시 들
 나 죽고 었던 씨는 풀과 가시가 온 때 썩러져서 풀과 가시가
 더 속히 자라는 호로 썩을 가리 위 죽이 고 그 나 문 씨는 호
 씨에 썩러지 때 비가 나 리고 희가 빛치 니 그 씨가 나 셔 곡식
 이 데 일 잘 되는 니 라 예수 가 데 즈 들 노 만 더 부러 계 실 새 데
 즈 들 이 이 비 유 뜻 슬 무 르 니 예수 께 불히 여 말 씬 호 시 티 그
 농 부 가 씨 시 무 는 거 손 나 께 가 백성 들 을 부르 치 는 말 에 비
 호 거 시 니 었 던 백 성 이 내 말 을 좃 지 아 니 호 는 자 는 씨 잘 나

복음요스

예구장

스십일

지아니 호는 길에 든 든 호 씨 와 들 씨 와 가 시 와 풀 잇는 밭과
꺾고 내 말을 들고 좃는 비성은 곡식이 썰히 박히여 나는도
호 씨 와 꺾 호니 예수 말씀은 씨 요 비성의 믿음은 씨 이라 그
씨 은 우리 믿음의 비 호는 거시니 우리가 예수 말씀을 비 호는
에 그 말씀이 우리 믿음에 시 무는 거시라 만일 그 말씀을 들
고 좃지아니 호면 피 악 호고 들 씨 와 꺾고 만일 우리가 순종
호면 씨 가 썰히 박히여 즈라 셔 결실을 만히 호는 씨 와 꺾 호
나라 예수가 호는 사 롬이 밭 해 밀을 시 무고 일을 다 호 후에 누 어 자
숨 호시니 그 하인들이 밀을 시 무고 일을 다 호 후에 누 어 자
더니 호원수가 밭 해 와 셔 꺾라 지를 시 문지라 그 하인들은
아지 못 호고 원수는 드라 낫 더니 여 러 날 후에 밀이 낫 씨 에
하인들이 밭 해 가 보니 밀 틈에 꺾라 지 가 낫 거 들 하인들이

놀나 주인의 집에 도라와서 말하되 그 밤헤서 문씨가 도흔
 씨가 아나잇가 주인이 되 답하되 도흔 씨라 하인들이 곧으
 티 그러면 마라지가 었지 밀 틈에 낫는 잇가 주인이 누가 그
 러케 흘줄 알고 되 답하야 곧으 티 혼 원수가 밤헤와셔 마라
 지를 심엇도 다 하인들이 무르티 우리가 그 마라지를 썬으
 리 잇가 주인이 곧으 티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그 마라지
 를 썬으러 하면 밀도 썬힐 거시니 마라지와 밀을 거들새 사
 지 흠쇠 두라나 일군드려 닐너셔 밀을 빌새에 마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거셔 불스르고 밀은 광에 잘 두라하
 리라 하더라 예수가 데즈들의 계이 비유를 북히시되 밀과
 마라지는 이 세상에 잇는 비성의 계 비흔 거시니 밀은 착흔
 비성이오 마라지는 악흔 비성이오 원수는 비성의 무음에

복음요스

계구장

스십이

악인 생각을 벗고 악한 일을 하게 유인하는 사탄의 계비환
거시니 착하고 악한 비성이 심판하는 날까지 이 세상
에 살다가 하는 것이 이런 신을 보니 사탄의 비성은 텅
당으로 드러가고 악한 비성은 형벌을 곳으로 보내는
니라

〈데십장〉 예수께서 중에 데일져 근져 주께로 비유하야 말
숨하시티 혼사름이 저 주께를 따에서 무면져 주가 나셔나
무가 되야 그 가지에 새가 안즐 만치 크는 나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에 믿음은 고로져 주께와 주께
나우리가 하는 것을 흥상 사랑하고 순종하면 사랑하느
니
음이 아니라 고침이 잇셔하는 것 사랑하기를 다른
사람 사랑
하는 것보다 더하기 에 나르고 또 하는 것 부시게
하기를
더 힘쓰는 나라에 수가 역문되는 줄로 말함 하시
티 혼녀인

이므로 석을 만들새 예로 할곳에 만 그 술을 부어 덥혀
 두면 잠안동안에 술이 원대로에 퍼여셔 도로를 변할 후에
 구면가 비압고도 혼석이 되는니 성신이 우리 마음을 오시
 는 거시 이와 같하니 전에 잇던 모든 악할 마음을 변할야 죄
 를 업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착하고 세숫하게 하시느
 니 라 예수가 진주를 사고 파는 장스를 비유할야 말습하시
 니 할 장스가 진주사기를 구하더니 나 종에 할진주를 보니
 전에 보던 것보다 더욱 아름답다 오나 임자가 갑슬 뒤우 만히
 달나 하는고로 그 장스가 그것사기에 돈이 넉넉지 못할 때
 제게 잇는 물건은 다 무라셔 그 갑판 혼진주를 샀스니 그 진
 주를 다른 물건보다 가치기를 더원 할연고 1 라 제 죄 용서
 되기 원하는 사름들이 이러케 할지니 죄가 용서되기 전에

복음요스

예십장

스십삼

는복받지 못함매 하는님노함시는일을긋쳐야능히하는
님씩가셔죄용셔되기를청할거시니하는님이금함신일
을긋치기전에는비록원함고청함야도하는님씩죄용셔
되기를브랄수가업는이라예수가데즈들의게그물노성
션잡는어부를비유함야말씀함시니어부들이그물을가
지고비를저어셔가는때로그물을물에넛코살며비를늘
니여천천히도라가셔물그해된후에그물을들어내여잡
힌싱션을취함야내니싱션이여러가지라도은거슨광주
리에담고못된거슨브리는나라예수의이말씀은심관함
는날이이와갓다함심나라또데즈들드려말씀함시티심
관함는날에던신이던당으로좃차는려와셔올흔사람은
또로골으고악한사람은형벌받을곳으로가져가는나라

흔사름이 예수께 화셔 말흐되 주야나 | 가당신이 하모되
가시던지 그곳에 흠씩 가겠느니 다 예수 | 되담흐야 곧으
샤되여 호도씨에 굴이 잇고 새도 집이 잇스되 나느며 리들
곳시업노라 예수말씀이 당신이 새화여 호보다 더가난흐
다닐으신거슨 새화여 호는 제집이 잇스되 나느 집도 업고
곤할새 누어 싯곳도 업노라 흥심이라 예수가 그말씀흐시
고그날저녁에 데즈들로더부리 베키에 드러가샤 가리리바
다다른곳로 건너가 싯시 바다에 풍우가 잇서셔 큰물결이
비를쳐서 베키에 물이 가득흐야 거의 잠기게 되잇스되 예수
는머리에 베키를베고 주무시느니라 데즈들이 밋우무셔
위흐야 예수를췌우며 곧으되 주야 우리를구호쇼셔 우리
가장춍물에 췌저 죽겠느니 다 흥거늘 예수가 내려나샤 바

복음요스

제십장

스십소

람과 물결 드려 만삼흔 샹티고 요흔 리흔 시니 즉시 바람이
긋치고 물결이 고요흔 지라 예수가 데즈들 드려 날너골으
샤티 너희가 잇지 밋음이 업고 두려워흔 노예수 뜻에 당
신과긋치잇슬 썬바람과 물결이엇지 능히 해롭게 할가 두
려워흔 노흔 심이러라 흐뵈를져 다른가로가셔 예수가
비에나오실 썬에 환샤귀들닌 사름을 만나시니 샤귀는 몸
이 업서 우디가지 못흔 노곶에 능히가고 흐사 탄이 잇다 금
샤귀를 사나희와 계집과 어린아희들의게 보내엿는니 그
런 후에 는 샤귀들닌 사름이 샤귀하라는 때로흔 노니라 그
샤귀가 그 사름을 정신을 일혀 밋친 것긋흔 계문 돌매 그 사
름이 제의복을 써져 브리고 밋우사오나오니 사름마다 그
업히 지나가기를 두려워흔 노지라 그 사름의 친구들이 사

술노미여집에가두티사술을쓴코나와서죽은사름못는
 굴속에가셔머물며밤낮으로큰소리를지르고돌로제뭇
 을상호더니멀이셔에수를보고두려워호야에수씩다름
 질호여와셔압헤절호고콜으티하느님아들예수여날과
 더부러무슨상관이잇는잇가나1가비느니심관호는날
 되기전에형벌호지마옵쇼셔호더라그새산갓가이쎄도
 야지가주어먹더니그수는이천이라악귀여럿들닌사름
 이에수씩벌어콜으티우리를쫓치시면더쎄도야지의게
 드러가기를허락호쇼셔에수가악귀드러닐으샤티가라
 호시니그악귀가그사름을쎄나셔도야지쎄의게드러가
 니즉시모든도야지쎄가언덕으로급히드러느러와셔바
 다에쎄저죽더라그도야지직히던사름들이성에드러가

복음요스

제십장

스십오

빅성의게 이런말을닐으니 빅성들이 누와셔 예수와 악귀
들엿던 사롬을보니 그사롬이 그새는 제 옷을닐고 성흔
음으로 종용히안짓는지라도야지 직히던 사롬이 빅성들
의게 예수흐신일과 도야지가 바다에 빠져 죽은거슬닐은
티 빅성들이 두려워흐야 예수가 제 성을써는 시기를빌거
늘 예수가 비에나가샤 그바다 다른가로가실시 그악귀업
서지인사롬이 예수씩코치가기를빌거늘 예수 곧으샤 티
네집과네친구의게가셔너가갓지흐야 난거슬닐으라
흐시니 그사롬이가셔 제시골에잇는사롬들의게 예수흐
신일을닐으더라 예수다시가 배나옴에가시니 그성에
잇는희당주장흔사롬이 큰근심으로 예수씩와셔 쓸어안
져말흐티내져근뜰이병이잇스매 죽을싸 두려워흐는이

다 비는니 당신 이내썩의게 손을 얹지 사 낫게 하쇼셔 하거
늘 예수가 그 사람과 흠쇠가 실시그 데즈와 여러 비성들이
에 수를 용위하여 쓰라가더니 그중에 한녀인이 의원이 못
치지 못하는 병으로 열독히를 알은지라 여러 의원의게 시
험하고 잇는 돈을 다섯스티 낫지 못하고 점점더 한지라 그
녀인이 예수ㅣ거기 오심을 듯고 혼자 심각하더니ㅣ 예수
뒤에 가서 손으로 그 옷만 먼저 도나 흐리라 하고 예수 뒤에
와서 문지니 즉시 병이나 흠을 빼앗더라 예수가 쓰라오던
비성들을 도라보샤 곧 오샤 티위가나의 옷을 문졌는고 그
데즈들은 그녀인이 예수를 문지는거슬 보지 못하였스매
티답하되 허다한 비성이 좃차 오거늘 당신이 엇지 누가 든
졌느냐 무르시는 잇가 하되 예수는 누가즈기를 먼저셔 병

나 흠을 엿은 거슬 알으시고 도라보샤 그녀인을 슬피시니
그녀인이 예수가 알으시는 것과 예수께 몸을 숨길 수 업
숨을 볼 때 떨어 두려워 하야 예수 압헤 쓰러어 안고 여러 사름
압헤 서저 | 가엿지 하야 예수 를 문져 서 죽시 병이 낫음을
말하거늘 예수가 그녀인의게 말삼하시되 두려워 하지 마
라 하시니라 대개 그녀인이 예수가 능히 제 병을 곳칠 줄을
밋은 고로 저 | 가나 흠을 엿엇더라 예수가 그녀인으로 더
부러 말삼하실 지음에 회당 주 장흔 사름 의 집에 서흔 사름
이와 서 말하되 제의 딸이 임의 죽엇스니 주 를 멀리 피셔 오
는 거시 쓸 티 업느이다 하거늘 예수 | 이 말 을 드르시고 회
당 주 장흔 사름 드려 날으시되 두려워 하지 마라 나를 밋기
만 하면 네 딸이 다시 살이라 하시고 그 사름 집에 서 지가시

니 어련으 히가 죽었시 매 여러 사름들이 올거 늘 예수가 말
숨흐시 티으 히가 죽지 아니 흐고 잠들엇거 늘 네 희는 웨우
느 뇨 흐시 니 예수 뜻시 그 계집으 히가 죽음에 서 장츓급히
살거시 니 맛치 훈 사름이 잠세는 것과 못 흐리 라 흐심이라
여러 백성들이 밋지 아니 흐고 웃거 늘 예수가 모든 사름을
다 내어 보내 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데즈와으 히
의 부모를 드리고으 히는 방에 드리 가샤 손으 로으 히를 부
들고 콜으 샤 티니 나 가 너 드려 닐으 느 니 너 나 라 흐시 니
즉시 그 계집으 히가 다시 살아 나 셔 침상에 서 너 나 거 르
니 그 새 그으 히나 히 열두 설이라 예수 가으 히 부모 드려 음
식을 주라 흐시 더 라

데십일장에 수가 그 사름의 집을 써 나가 실시 두 쇼경이 쓰

복음요스

데십일장

스십칠

라와뒤에셔블너골으티우리르블샹이녁이쇼셔때개제
뜻에예수가제눈을곳칠줄앓이러라예수가그쇼경들
려무러골으샤티나이가너희를낫게할수잇슴을밋느나
흐서니쇼경들이티답흐티주여밋느니다흐거늘예수
골으샤티너희가나를밋을진대나이가너희를낫게흐리
라흐시고손을들어쇼경의눈을문지서니죽시그사람들
이능히보더라예수골으샤티아모사람드려도누가너
희눈을낫게흐였다닐으지마다흐시티그사람들아나흔
거슬깃거흐야집에간후에그식골빅성의게예수가제게
흐신일을닐으더라엇던빅성들이흔악귀들인사람을드
디고왔스니그악귀는그사름으로말을못흐게흐였스때
병이러가되엇더라예수가그악귀로그사름의게셔나게

후신 후에 그는 그 사람이 말을 하니 그 사람 병어리 된 줄 알던
 백성들이 말하기를 듣고 놀나 곧 이 이스라엘에 이
 런 신기 할 일을 전에 보지 못하였다 후더라 그 후에 예수가
 유대사람들 사는 성과 등너에 가샤 복음을 가르치시니 우
 리가 전에 본바 복음이란 거슨 도흔 괴별이니 우리 악한
 음을 착하게 곳치시고 우리 죄를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형벌 받을 거슬 구하려고 예수가 천당으로 내려 오신
 거시니 우리가 죄孽군에 맛당히 형벌을 받을 터인 터 만일
 예수가 밝지 아니 하였시면 우리가 잠츠 형벌 받을 거시나
 예수가 우리를 티신 하였야 형벌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
 오시고 또 하는 님 죄 당신이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
 후 심을 청하셨스니 우리가 죄를 회기 하고 죄 짓기를 곳치

복음요스

예십일장

스십팔

고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
려이와 만일 우리가 예수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
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날에 악한 비성과 또 치형벌을
주시리라 그 때에 수가 그 성과 동년에 가서 거기 사는 유대
사람들의 계복을 전하실 것이 이스라엘에 잇는 유대 사
람이 만흐니 혼자 다 전도하실 수가 업스매 열두 스도르를
본다 비성의 계전도하러 보내실 것이 나기 전에 예수가 스도
의 계악귀를 쫓고 병인을 곳치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야 령
적 힘은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가 스도의 계 이런 권능을
주신 거슨 비성들이 신기할 일하는 거슬 보아 하는 님이 스
도 보내 신 줄을 알고 스도의 하는 말을 믿게 하심이라 그
후에 스도들이 각각 성과 동년에 가서 비성의 계전도하고

예수께서도 라와셔 하던 일을 낫낫치 엿조오니 예수께서도
들드려 말씀하시되 올지여다 종용할곳에 가서 혼침쉬리
라 하시니 대개 거기셔는 가고오는 사람이 만흐매 스도들
이 음식 먹을거를 도업는 연고이라 스도들이 예수와 못치
베틀에 나가셔 가리리 바다 다른 곳으로 가실식 베틀성들이 예
수와 스도들이 가는 줄을 알고 예수뒤에 쓰르오니 베틀로 오
는 거시 아니오 바다 곳으로 예수계신 곳까지 거러오니 여러
사나희와 녀인들과 희들이 모혔더라 저녁이 되매 스도
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곳이 먹을거시 업는 적막할곳이
오도 밤이갓가오매 베틀성들을 음식 사먹을 동너로 보내쇼
셔 예수께서 곧으샤 되그 사람들이 갈거시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먹을거슬 주라 하시니 스도들이 곧으되 그 사람들

먹을떡을이빅금앗치를사오릿가이빅금앗치를사와도
각각사름의게조끔식주기가넉넉지못하겠는이다예수
ㅣ골으샤티네게떡이얼마나잇는뇨가셔보라스도들이
보고티답흐티떡다솟과져근심선두개가잇는이다예수
가스도들드려닐으샤티빅성들을골으희츠레로안치라
흐시고예수가다솟떡과두심선을손에들고현당을브라
보며하느님씩감샤흐시고떡을써예스도들의게주시고
또심선을주시니스도들이빅성의게가져갈써예수ㅣ그
떡과심선을늘이여그만흔빅성들이먹기에넉넉하겠은
드신지라빅성들이다먹은후에예수가스도들드려닐으
시티눔은음식을거두어히비흙이엄게흐라스도들이예
수닐으시는데로흐였더니그여러빅성들이빅분이먹은

후에 남은 석과 성선이 열 두 광주리 오 먹은 사름은 녀인과
으히는 제 호고 오 천명이라 백성들이 예수 호신 큰 령적을
본 후에 예수 를 저 회 남 금삼기를 원 호티 예수 가 백성 들을
셔 나 자 홀 노 산에 올라 가 셔 기도 호시 고 스도 들을 비 를 티
히 여 가 리 리 바 다 다 른 가 호로 보 내 시 니 라 그 날 밤에 스도
들 이 바 다 가 온 때 나 아 같 식 바 람 이 비 를 거 스 리 는 고 로 노
질 호니 예수 가 희 변에 서 스도 들 이 물 결 이 험 함 으 로 노 질
호는 거 슬 보 시 고 스도 들 의 게 가 실 식 바 다 우 회 거 러 가 시
니 스도 들 이 예수 오 시 는 거 슬 보 고 귀 신 이 라 호고 미 우 두
려 위 호야 부 르 지 지 니 예수 말 습 호시 티 두 려 위 호지 말 나
이 나 | 로 라 호시 니 베 드로 가 비에 서 티 답 호야 곧 으 티 만
일 주 여 든 날 노 호 여 곰 물 우 헤 로 거 러 셔 주 의 게 로 가 제 호

쇼셔 예수 궤를 밟으샤 티오너라 호시니 베드로가 비에 느려
물우헤 거러 갈식 바람 소리를 듯고 물결치는 거슬 보고 두
려워 호여 잠기기를 시작 호거늘 불너 곧 으티 주어 나를 구
호 쇼셔 예수 가 손을 펴셔 베드로를 잡아 드리어 썩 짐을 구
호 시고 무려 곧 으샤 티 었지 밋지 아니 호는 나 호시니 이는
당신이 베드로를 구할 줄을 었지 밋지 아니 호는 나 호신 뜻
시라 만일 베드로가 제 믿음에 예수 가 저를 구할 줄을 밋 었
더면 물에 썩 짐이 업시 예수 의 계 왔시 리라 예수 와 베드로
가 비에 올 으니 바람과 물결이 곳치고 그 비가 잠 시간 에 스
도 들이 가려 호는 곳으로 왔더라 그 바람과 물결을 곳치게
호고 비를 희 변에 오게 훈거시 다 예수 가 호신 일이니 스도
들이 이 령적 을 본 후에 예수 썩 업 티 여 절 호고 곧 으티 당신

이진실노하는남아들이시니이다하더라예수와사도들이
 이벽에서나와못헤는려오시니거기사는벽성들이예수
 오심을알고온식골로급히든니며예수오심을닐으니벽
 성들이비로소침상으로병인들을메고예수계신곳으로
 오는지라예수가성과동니에가시는데로병인들을길마
 헤누히고예수옷만든지게하기를빌고또예수옷은진사
 림마다병이났더라예수가이스라엘씩갓가히다른씩로
 가시니거기사는흔녀인이예수씩와서말하되내딸이악
 귀들었스니악귀내여보내주시기를비니이다하거늘예
 수가처음에는못드룬데하시니대개그녀인이당신과함
 나라사름이아닌연고이라그녀인이제으히들당신이능
 히곳칠줄을밋는가시험하심이러라그녀인이예수가못

드르테 호심을 보고 예수께 빌기를 곳치지 하니 호고 더욱
근절이 빌며 압레 쫓아 안저 말 호되 주어 나를 도으쇼셔 호
거늘 예수가 그 녀인 드려닐으샤 되니 내가 깃음이 잇고 호
나 내가 배설을 능히 곳칠 줄 믿는 고로 배설을 낫게 호리라
호시더니 그 녀인이 제 집 에 도라 가니 악귀가 임의 나가 고
제 딸이 누엇더라 여러 백성들이 예수께 와서 사흘을 곳치
잇슬 식 먹을 거시 업는 고로 예수가 또 한번 저 근석과 심션
으로 만흔 백성을 먹일 식 데즈 들을 불러닐으샤 되니 내가
더 사름 들을 먹이지 하니 호면 제 집 에 가거 전 에 비 곱 호고
귀운이 업슬 지라 호시고 무려 곱으샤 되 석이 열 마나 잇는
요 데즈니 되 답 호되 석닐 곱과 두어 저 근 심션이 잇는 이다
하니 예수가 그 백성 들을 싸우 회 안치라 호시고 석닐 곱과

심선두엿슬가지시고하는님씩감샤흐신후에씩을여러
조각에씩여데즈들의게주시니데즈들이빅성들의게줄
씩에수씩셔전과긋치적은씩과심선을늘이여사름마다
덕덕히먹게흐시니라데즈들이눔은음식을주어담으니
닐곱광주리요먹은사름은스천명이러라예수가빅성들
을다먹이신후에보내시고벧사이다라흐는성에가시니
빅성들이흐쇼정을드리고와셔빌며골으니이사름을문
지샤낮게흐쇼셔흐니예수가손으로그사름을잇쓸고동
너봤게나가샤눈에춤발으고손으로문지시며무리골으
샤티능히보는나흐시니쇼경이티답흐티능히보나쾌히
낮지못흐야지나가는사름의외가나무거러가는것과긋
치외이느이다흐거늘예수씩셔손을그사름의눈에다시

언고쳐다보라 하시니 그 사름이 모든 거슬 붙게 보더라
[예십이장] 그 후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스도
를 드리고 적막한 산에 올라가 사귀도 하실시에 수일골
이 변하여 빛나기가 희빛 같고 의복이 눈과 못치히더라 주
시모세와 에리아두 사름이 거기 왔스니 보기에 다른 사름
과 같지 아니하고 더 아름답다 오니 그 두 사름이 착한 백성 주
은 후에 갈 곳으로 좃차 옴이러라 우리는 그곳에서 어딘지 아
지 못하거니와 그 두 사름이 그곳에 살더니 그 때 이 세상에
도라와서 예수와 잠간 정답하엿는 나라 즉 시 빛는 구름이
산에 내려나서 세 스도를 덮으며 구름 속으로 말소리 들니
니 하늘의 말씀이라 곧 오 사귀에 수는 나의 사랑 하느 아들
이니 스도 들은 예수 뜻 좃치라 하시거늘 스도 들이 하느

님말씀을듯고미우늘나무름을살고얼골을싸에다히매
예수가오샤스도들의게손을언즈시고닐으시되니러서
셔두려워히지마라히시니스도들이니러서셔들너본즉
모세와에리아가거기업고느려오던도흔곳으로도라갓
더라예수가스도들드려닐으시되나이가죽은후에다시
살도록너희본거슬아모드려도닐으지마라히시니스도
들이서로못되예수가엇더케죽엇다가다시살고히더라
우리가장초예수이말씀히신뜻을보리라다음날에예수
가스도들과산에느려오시니흔사람이예수씩와셔압헤
살어안자곧으되주여나비느니내아들을구히쇼셔이
거시내외아들이라흔악귀가들어가셔잇다봄물어나불
에싸지게히야죽이려히매내아들을당신스도의게드리

고와셔 악귀를 쫓치려 하되 스도들이 능히 못하엿는 이다
예수가 되답 하야 곧 으샤 되네 아들을 내게로 드려오다 하
시니 그 사름이 아들을 드려오매 악귀가 그 아들을 너머지
게 하니 그 아들이 입의 춤을 흘니며 싸에 굴더라 예수가 그
사름 드려 부르시되 내 아들이 악귀 들닌지 얼마나 오래요
되 답하되 어려셔 브터이러 하니 이다 예수가 악귀 드려 날
으샤 되나 | 가너 드려 날 으느니 나아가고 다시 그 사름의
게 잇지 마라 하시니 악귀가 크게 소리 하고 그 젊은 사름을
몹시 요동 하고 곳나아가니 그 사름이 싸에 누어서 운동 하
지 못함이 죽은 사름 같음 때 보는 여러 사름들이 곧 으되 죽
엇다 하거늘 예수가 손으로 잡아 너르키시니 그 사름이 제
발로 니러서 병이 난지라 예수가 그 사름을 저의 아버지의

게 주시니라 그 싸이 이스라엘 다른 성에 사는 사 례 들 이 예 루
살 념 성 던 에 서 머 무 는 제 스 장 들 의 게 돈 을 보 내 는 법 이 라
미 년 사 례 마 다 은 문 을 보 내 면 제 스 장 들 이 그 돈 을 가 지 고
성 던 에 서 하 는 님 쉼 레 비 호 는 새 쓰 는 물 건 을 사 더 라 예 수
와 스 도 들 이 가 베 나 음 성 에 게 실 쎄 었 던 사 례 들 이 베 드 로
의 게 와 서 못 티 녀 의 주 는 성 던 에 잇 는 제 스 장 들 의 게 돈 을
보 내 지 아 니 호 는 노 호 거 늘 예 수 가 그 사 례 들 이 이 말 못 는
거 슬 아 시 고 집 에 가 신 후 에 베 드 로 드 러 닐 으 시 티 갓 가 온
히 변 에 가 서 낙 시 례 물 속 에 녀 허 서 심 셴 잡 히 거 던 그 심 셴
술 들 고 입 속 을 보 면 거 기 서 돈 훈 개 를 었 을 거 시 니 나 와 녀
를 위 호 야 그 돈 을 그 사 례 들 의 게 주 라 호 시 거 늘 베 드 로 가
예 수 말 숨 때 로 호 야 심 셴 입 속 에 서 돈 훈 개 를 었 어 그 사 례

복음요스

계십이장

오십소

들을 주니라 스도들이 흘가지 갈새 예수가 듯지 못함 실줄
알고 저희 중에 데일 놓흔 사롬 되기를 서로 다 토더니 예수
는 스도들 말함는 거슬 듯지 아니함섯스티 능히 알으시는
지라 후에 스도들의 제 저희가 길로 오며 닳튼 거슬 무르시
니 스도들이 붓그리워 티답함지 못함는 지라 예수가 흘어
린으히를 불너 그 중에 두고 스도들 드려 닐너 곧으샤 티너
회교만 함고 서로 다 스리려 함기를 곳치 지 아니함면 하는
님 아 들들이 되지 못함리 라 그 중에 일 놓흔 사롬은 점손 함
고 순종 함는 데어 린으히 곳치 함는 자니라 또 스도들을
무르쳐 곧으샤 티너 회손과 발이 너로 함여 곱그른 일 울 함
게 함면 손과 발을 버혀 버리 라 함시 니 예수 뜻에 무손 일이
던 지고 르고 악한 거슬 우리 가 맛 당히 곳칠 거시 니 아 모 리

그그큰일을하고십어브리가가비록손과발버히는것과
 못치어려울지라도맛당히긋칠거시니라죄를홍상짓고
 죄로인하여영원히형벌받을디옥으로가는것보다죄를
 짓지말고심판하는날에현당으로올가는거시나흐리
 라흐심히라에수가데즈들드려닐으시티흔사람이다른
 사람의게잘못흔후에말하티나이가잘못하였슴으로불
 안하다하면그사람이용서할지니라하시니베드로가무
 르골으티몇번이나용서하겠노릿가닐곱번이라도용서
 하겠노릿가하니에수이베드로드려닐으시티너희다른
 사람용서하기를닐곱번뿐아니라닐흔번씩닐곱번이나
 할거시니라에수뜻에그사람들이청하는때로용서하여
 주라흐심히라에수가흔비유로말씀하시티하인들이님

복음요스

제십이장

오십오

금의 돈을 져스매 그님금이 돈을 밧고 저 호고 또 혼하인을
잡아 왓스니 그사름이 여러 만량을 져스되 감홀거시 업스
니 그나라에셔는 돈진사름이 감지 못호면 저와 제쳐즈가
종으로 끌니는 법이라 그님금이 곧으되 돈을 감지 못호는
고로 녀와 네쳐즈가 내 돈 감세 끌이여라 호니 그하인이 그
말을 듯고 크게 근심호야 님금 압희 쓸어 안저 곧으되 잠간
만나를 춤아 주시면 나이가 진 돈을 다 감호리이다 나이가
일을 호야 돈을 벌던 지내게 빚진 사름의게 돈을 밧던지 호
야가지고 도라와셔 감호리이다 호거늘 그님금이 그하인
의 말을 듯고 또 그근심함을 보고 불쌍히 녀여 그만 혼 빚슬
용서 호야 아조 감지 마라 호니 그하인이 나가다가 제게 빚
진 동류하인을 밧낫스니 그하인은 만히 진거시 아니요다

만백문이로티가난호야갑흘수가업는지라그하인이돈
 진하인의게미우성내여목을잡고골으티네진돈을잡호
 라호니그돈진하인이그하인의압희쓸어안자빌어골으
 티너ㅣ가나를불샹히녀잠싼춤으면나ㅣ가갑호리라
 호티그하인이춤지아니호고그돈진하인을옥에가도어
 빛갑도룩두려호더니님금의게잇는다른하인이이거슬
 보고미우패심히녀가셔님금의게고호티님금이그하
 인을불녀말호티너ㅣ가악호하인이로다나ㅣ가녀를불
 샹히녀여너ㅣ가내게청할새용셔호엿거늘네맛당히네
 동류하인을나ㅣ가녀불샹히녀임곳치아니호느뇨호고
 님금이크게로호야진돈을다갑도룩형벌받는곳에두엇
 느니라이비유에님금은하느님씩비흙이요돈만히진하

인은 죄를 자 조범 혼 우리 의 계 비 흠 이 라 그 님 금 이 그 하 인
이 제 등 류 하 인 을 용 셔 호 지 아 니 흠 으 로 형 벌 혼 거 손 우 리
가 만 일 서 로 용 셔 호 지 아 니 호 면 하 느 님 이 우 리 를 형 벌 호
시 리 라 호 심 이 니 라

복 음 셔 하

예 십 삼 장 예 수 와 스 도 들 이 예 루 살 념 으 로 가 실 셔 사 마 리
단 사 롬 사 는 동 님 갓 가 히 오 샤 예 수 가 스 도 들 을 보 내 여 등
닉 에 드 리 가 셔 나 | 가 거 기 셔 쉬 고 음 식 먹 을 가 무 러 보 라
호 시 니 그 전 에 사 마 리 단 사 롬 들 이 유 대 사 롬 들 과 시 비 호
여 원 수 | 되 니 라 예 수 는 유 대 사 롬 인 고 로 사 마 리 단 사 롬
들 이 예 수 를 제 동 님 에 셔 쉬 기 를 허 락 호 지 아 니 호 는 지 라
야 고 보 와 요 한 두 스 도 가 므 우 성 내 여 예 수 썩 청 호 여 글 으

티우리로 하여곰 하늘노 브러 불을 느려 사마리 단사름 들
 을 티우게 하쇼셔 하거늘 에수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말 함
 을 짓거 하니 하샤 날너 끝으샤 티나 | 가이세상에 사는 사
 림을 죽이려고 온거사 하니 오죽을 사름을 구하려고 왓노
 라 하시고 사마리 단사름의 무정함을 형벌하시지 하니 하
 시고 다른 동닉에 가서 쉬시니라 ○우리 본바 문동병은 미
 우뭇 쓸병이니 하는 님밧기는 곳치는 이가 업는지라 문동
 병잇는 사름은 제가 술과 집을 써나 혼노 살거나 저와 꺾치
 병잇는 사름과 꺾치사느니라 예수와 스도들이 예루살넴
 으로 가실새 문동병잇는 사름 열을 맛밧시니 이병인들은
 성흔 사름의 계갓가이와셔 문지지 못하느고로 예수와 스
 도의 계갓가이 오지 못하교 다만 믿이서서 큰 소리로 말하

되 예수선심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니 저희 뜻
에 예수가 저희들을 낮게 하심을 엿고 저 흠이 러라 아모사
를 이라도 문동병이 잇서 제 집을 여난 후에 제가 나갔슬 지
라도 제스장의 제가 기전에 는 제 집으로 오지 못하 는 법이
니 제스장이 그 사람의 촌나 혼거슬 본 후에 제 집에 가서 가
솔과 못치살나 허락하 는 법이 러라 예수가 그 병인들이 당
신씩 부르는 거슬 드르시고 말씀하시되 너희 몸을 제스장
의게 가서 봐이라 하시니 병인들이 갈등안에 다나 혼지라
그중에 혼병인이 저 1 가나 혼거슬 보고 예수씩 도라와서
압헤 쓸어안자 저를 못치심으로 감사하거늘 예수 1 큰
샤되 병나 혼사람이 열이 하나나 아홉은 여되 잇는 노다 만
흔사람만 하는님이 제제하 신일을 감사하러 온다 하시더

라 우리가 생각할 거슨 아모세라도 병이 있다가 다시 낫거
 던하는 남쇠감샤할 거시니 하는님이 낫게 하지 아니하면
 의원과 약이 능히 못치 못하는니라 ○ 예수가 혼비유로
 말슴하시되 혼사름이 예루살넴에서 먼길에 리코라하는
 성으로 갈시에 루살넴에서 예리코가는 길이 막우적 막하
 매길 2에 도적습는 바회와 굴이 잇더라 그사름이 그길에
 지나갈새 혼연이 도적이 습엇던 곳에 서나와서 그사름을
 붙잡고 가진 거슬 다 빼앗고 뱃은 의복까지 벗기고 그썸아
 니라 그사름을 쳐서 상하야 거의 죽게 된 후에 브리고갓더
 라 그사름이 괴운이 업서 썸에 누엿슬새 혼제스장이 그길
 로 오더니 그마진사름이 유대사름이 오그제스장도 유대
 사름이라 이썸아니라 성던에 잇서 모든 빅성을 하는 남쇠

순종하고 다른 사름을 사랑하고 이르치는 교스리라고
런즉 우리가 생각건디 그제 스장이 덩녕 그 불상히 마진 유
때 사름의 제착하고 제 흘뜻하고 그제 스장이 그리하지 아니
하고 그 사름의 제 갖가지 왓을 새 못 본 것으치하고 길더 편
으로 지나가니 그제 스장이 그러케 흔거슨 그 사름을 구원
하기를 원하지 아니함이 러라 그제 스장이 지나간 후에 또
흔레 위 사름이 그 길 노오니 레 위 사름도 유대 사름이 오제
스장들을 도아서 박성을 하는 님 쇠순종하고 다른 사름의
제착하고 함을 이르치주는 사름이 러라 그러나 그 사름이
그 상흔 사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제 스장 처로 지나가며 그
사름을 누은 때로 두고 가더니 그제 스장과 레 위 사름이 다

지나간 후에 흐사마리 단사름이 거기 왔시니 우리가 본바
유대 사름과 사마리 단사름이 서로 시비 하야 원수가 되엿
시며 서로 친히 하니 흐지라 그 사마리 단사름이 상흔 유
대 사름을 돕지 아니 하고 가기가 괴이치 아니 할 때 그 사마
리 단사름이 그 사름을 보고 불쌍히 녀여 그 사름의 상흔 곳
을 낮게 하려고 기름과 술을 발르고 쓰며 그 사름을 드러
서 저 등던 말썽이 우고 갖가 온 주막에 가서 온 밤을 구원
하고 그 잊흔 날 돈을 내여 주막 주인을 주며 끝으 터이 상흔
유대 사름을 구원 하라 나 | 가 준 돈 보다 더 쓰면 나 | 가 도
라 올 썩 갑 흐리라 하더라이 비유에 우리가 다른 사름의 계
친구와 이웃되는 거슬 볼 거시니 못흔 나라에 잊슴으로 우
리 이웃되는 거시 아니라 비록 못흔 교중에 잊서 도 이웃시

아니니 그제 스장과 레위 사람은 그 상흔 유대 사람과 같
나라와 같흔 교중에 잇스되 이웃시 되지 아니 하고 다른 나
라 사마리단 사람은 그 상흔 유대 사람의 이웃시 되엿스니
이는 착하게 하려 고 1 라 예수 가 이 비유로 우리 를 2 르치
신 거슨 우리가 맛당히 사마리단 사람과 같치 심 소 하려 사람
이던 지원수 되던 지 아모 사람의 제라도 착하게 하려야 참
이웃과 친구 가 될 지라 하 심 이라 ○ 예수 가 예루살렘에 서
갓가 온 베다니라 하 는 동네 에 오시니 마타라 하 는 녀인이
거기 살더니 예수 가 제 집으로 오심을 청하엿스니 마타가
마리아라 하 는 주의 가 잇더라 예수 가 그 집에 오사니 마리아
가 가례 일을 곳치고 예수 압헤 안저 2 르치 심을 듯고 저 하
매 마타가 홀로 일을 함으로 제 주의게 성내여 예수 쇠와셔

청하야 곧 으디 마리아를 보내 여세 일을 돕게 하쇼셔 하거
늘 예수가 마타드려닐으샤 디마리아가 내 2 2 침을 듯는
거시 올흔일이라 여리가 지일중에 우리게 2 장요긴한일
하나 만잇는지라 마리아가 그거슬 곧 희엿스니 가히 세앗
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 뜻에 마리아가 제 죄 용서 됨을 엿
고져 하느고로 믿음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이
되기를 곧 희엿다 하시더라

예심소장 예수가 데즈들을 하느님 쇠빌새 말하느거슬 2
르치섯스니 하느님 쇠빌새에 맞당히 말하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흠이 거룩하심이나 나타나옵시
며 나라히림 하옵시며 뜻하시 하늘에 서처럼 싸여셔도 일우
여지이다 오늘날 우리의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복음요소

예심소장

룩십

가 우리게 득죄한 자를 사함야 주는 것 또 치우리 죄를 사함야
주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함옵시고 다만 우리를
홍악에셔 구함옵소서 때 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이 잇스옵는 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가 당신 스도의 계이기도를 마르치섯스나 이
거시 주의 기도라 그 스도들 드려만 그러케 빌나 함 심이
아니라 우리 드려도 그러케 함라 함 심이니 ○ 우리가 이
도를 말 할 때 맛당히 이 뜻을 심 각 할 거시라 만일 그러케 하
니 함고 기도 함는 거슬 영녕이 엇기를 원함지 아니면 하
는 님이 우리 기도를 들지 아니시고 우리 구함는 거슬 주지 아
니시느니라 주의 기도에 잇는 말을 밝히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함는 거슨 우리가 하는 님의 말 함는 거시니

하는님은은련당에계신우리아바지오우리는하는님의아
들들이라우리가이세상에아바지와어따나가잇서우리
를스랑하고보호호티련당에계신우리아바지는그보다
우리를더스랑하고보호호시는니우리가맛당히하는
님을데일스랑할거시니라일홈이거룩하고요쇼셔하는거
슨하는님일홈이높고거룩하시니우리들이하는님
일홈을조심하야말하기를홍상기억하면이거시거룩하
게하는거시라성내거나말할새심각지못하거나혹실업
서하는님의거룩하신일홈을말하는거시다큰죄라우리
들이하는님일홈이거룩하고요심을말할새하는님씩우리
와다른사름들이다시이죄를짓지말게하심을청할거시
니라

나라히림함옵쇼셔함는거손하느님이우리아바지뿐아
니오또우리님금이시니하느님을순종함는모든빅성들
은하느님나라에밧엿것마는여러빅성들이사란을순종
함야제님금을삼느니그러므로사란도또함나라히잇는
지라우리가주의괴도를말플새하느님나라히림함옵쇼
셔함는거손사란의나라는업게함시고모든빅성들로하
느님나라에밧이게함심을청함는거시라

뜻이하늘에셔처럼셔에셔도일우옵쇼셔함는거손빅성
들이하느님을순종함새하느님뜻이일음이니현스들이
현당에잇셔하느님을순종함는고로하느님뜻이현당에
셔일우즐을우리가알거시오또세상에사는엇던빅성들
은하느님을순종함거니와우리가이괴도함는거손세상

에 사는 사람마다 맛당히 하는님을 순종하여 려던 당에 려스
들이 하는님 뜻을 일음과 처히옵심을 청하는거시라
오늘날 우리제 일용할양식을 주옵소서 하는거슨 우리가
육신살기를 위하야 날마다 먹을음식이 잇서야 쓸거시니
어제는 쇼원대로 먹엇셔도 오늘날과 내일과 살동안에 날마
다 먹는음식이 잇서야 쓸거시라 날마다 맛당히 먹을거시
일용할양식이 라 오늘날 일용할양식을 주옵소서 하는거
슨 하는님 쇠달나 하는거시니라 후우리 부모와 친구가 우
리의 제양식을 주는고로 하는님 쇠로 좇차오지 아니 하는
것과 처히 아니 하는님이 일하는 힘과 돈을 주시지 아니면
부모와 친구가 우리제 줄수가 업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일
용할양식을 주시는이는 하는님이시니 우리가 맛당히 이

거슬하는 남의 빌고 우리게 주신 거슬 감사 할 거시 나라 우
리가 우리게 득죄한 자를 사하여 주는 것 못치 우리 죄를 사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슨 우리가 하는 남의 우리 죄를 사하
야 주심을 청할진대 맛당히 다른 사름이 우리게 득죄한 거
슬 우리가 용서할 거시 니 이 괴도에 하는 남의 우리가 다른
사름 용서함과 못치 우리를 용서하심을 청하는 거시 니 그
런즉 우리가 다른 사름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는 남의 우
리 죄 용서하지 시기를 보랄 수가 업느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
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거슨 었던 사름이 우리를 췌워 하는
남을 깃부시게 아니 하는 일을 하라 하여 시험에 들어 가게
하는 니 사탄이 자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후 우리 본
악한 마음과 악한 친구들이 우리를 유인하는 니 우리가 시

험에 들지 말게 함요셔 함는 거슨 사탄이나 아모사 롭이
 나 우리를 유인 함야 하는님을 로 함시게 말기를 청 함는 거
 시니라 우리를 흉악에셔 구 함요셔 함는 거슨 흉악이 두
 가지가 잇스니 한가지는 그릇 함야 죄 짓는 거시니 데 일악
 한 거시오 또 한가지는 질병과 고심과 근심이니 우리가 하
 는님을 사랑 함고 순종 함면 하는님이 이 두가지 흉악에셔
 구 함시는니라 나라히 립 함요셔 함는 거슨 남금이 다스
 리는 싸이 곳 나라히니 이 세상에 여러 나라와 남금이 잇스
 티 하는님은 남금들의 남금이 신고로 그 남금들과 그 나라
 들을 다 다스리시고 또 천당에도 남금이 잇스니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히 립 함요셔 말 함는니라 천세 가지 잇스옵는
 니다 함는 거슨 주의 기도에 우리가 청 함는 거슬 하는님 만

주시는 권세가 있고 아모도 능히 우리를 사탄의 유감함과
질병과 근심에셔 구하고 죄를 용서 하야 주느니라 가업느니라
영광이 영원히 잇스옵느니라 다 하느거슨 영광 뜻이 찬송
하고 공경 하느거시라 ○셔 국에 이런 풍속이 잇스니 었던
새 남금이 나미 우 놓 혼 사 롱 이 성에 지나 갈 새 모 든 비 성 들
이 거리 에 나 오 며 문 압 회 서 기 를 혼 들 며 남 금 의 일 흠 을 부
르 고 저 희 들 이 남 금 비 읍 는 거 시 었 더 케 깃 봄 을 보 이 느 니
그 런 즉 그 남 금 이 찬 송 과 공 경 과 영 광 을 받 는 거 시 니 라 우
리 가 하 느 님 쇠 그 모 양 과 꺾 치 찬 송 하 느 거 시 아 니 라 ○ 하
느 님 이 올 흐 시 고 높 흐 시 고 우 리 게 착 하 신 고 로 우 리 가 노
래 하 며 모 음 에 찬 송 하 느 거 시 니 라 또 모 든 천 스 들 은 천 당
에 서 하 느 님 쇠 찬 송 하 고 공 경 하 느 니 그 러 므 로 하 느 님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고 또 영원히 있겠습느니라
다홍 눈썹시니 우리가 아멘이라 말하느니 뜻은 기도할 때로 하느
님이 일우어 주시기를 브라는 뜻시라

예수가 스도들 드려 이기도만 하라 하심이니라 무어시
던 지원하느니 때로 기도하라 하섯시니 그러케 하면 하느
님이 주시리라 하시니라 또 스도들 드려 부르시 터 너 | 가 너
희 아 돌들이 구하느니 거슬 주지 아니 하겠느니 나 만일
하 돌 이 석을 달나 하면 돌을 먹으라 고 주겠느니 나 또 심
션을 달나 하면 비암을 주겠느니 나 너 희가 또 혼물 건으
로 너 희 아 돌을 줄진 때 하느님이 덩녕도 혼거 스로 스
랑 하 고 구하느니 자 의 계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열
두 스도 외에 칠십 데즈를 더 큰 회사가 서 비성의
게 복음을 이르치게 하시니 그 칠십

데즈들이가셔예수닐오신때로전도하고도라와셔저희
들흔일을예수씩엇조니라예수가전도하려보내실새
스도들의게권능을주신고로스도들이능히샤귀들닌사
름의게셔샤귀를쫓찾슴을깃거흐거늘예수가데즈들드
려닐오시디샤귀가너희를순종흐는거슬그러케깃거흐
거시아니라하느님이너희죄를용셔하시고당신아돌을
삼으섯시니이거슬더깃거흐거시니라하시고더라

데십오장에수가레벳일에성던으로좃차오실시흔는먼
사름이거리에서셔비는거슬보시고예수가머므르샤씨
에춤밧하진흙을문드러그사름눈에너흐시고닐녀글
샤디실오암못셔가셔눈을씨스라하시고그쇼경이가셔
씻고도라올새능히보더라그진흙과못물이낮게흐거시

하나라에 수가 그 사름을 보게 함심이 러라 전에 그 쇼경을
알던 니웃 사름들이 그 쇼경이 다른 사름과 꺾치인도 함이
업시 혼자 걸어 든니는 거슬 보고 놀으 티이 사름이 거
리에서 셔 빌던 쇼경이 하나냐 었던 사름은 곧으 티아니라
보기에 그 화긔 혼다 른 사름이라 함이 천히 팔
흐 티과 연나 | 가 그 사름이 로라 함니 그 사름들이 못 티 었
지 능히 보는 요 그 사름이 티 답 함 티 예 수 라 함 는 사름이 내
눈에 진흙을 넋코 나 드려 닐으 티 실오 암 못 세 가 셔 씨 시 라
함 기로 나 | 가 가 셔 씨 신 후에 능히 보 노라 함니 그 사름의
제 니 아 기 함던 유 때 사름들이 예 수가 더 료 보 게 함 었 다 함
을 의 심 함 고 그 사름을 드 리 고 바 리 세 사름 들 의 게 오 니 우
리 가 본 바 바 리 세 사름 들 은 을 혼 사름 이 아 니 오 기 좃 착 환

때흐는 사롬이라 또 예수가 더 희미음늘 보프 악흔심 각 흠
을 아는 고로 예수를 뒤워흐더니 그 빅성들이 쇼정 되엿던
사롬을 드리고 왓슬새 바리새 사롬들이 그 사롬 드려엿지
흐야 나핫는 나무른 디 그 사롬이 예수가 저를 곳쳤다 말흐
거늘 바리새 사롬들이 예수의 제 혀를 잡아 말흐 디 하느
님이 우리 드려 레비 일에는 일흐지 말나흐섯스니 예수가
레비 일에 사롬을 곳치지 하니 흘거시라흐니 하느님이 더
희드려 가난흔 사롬과 병든 사롬은 아모 날이라 도도 아주
라흐섯것마는 예수가 레비 일에는 일흐심을 칙망흐는 거
슨 다만 예수를 뒤워흐야 혀를 잡고 저 핏이러라 바리새
사롬들이 쇼정 되엿던 사롬의 부모의 게가서 말흐 디 이사
롬이 갓 낫실새 브러 쇼정 되엿다 말흐던 네 아들이 아나냐

엇지 지금 능히 보느냐 그 사롬의 부모가 티답흐니 이거시
우리 아들이 오노갓낫신새 브터 쇼경인 줄을 알엇거니와
엇지 하야 지금 능히 보는지 알지 못흐니 제가 말할 만흔 나
히니 저드려 무려 보라 그 사롬의 부모가 그러케 티답흔 거
슨 만일 예수가 제 아들을 못챘다 하면 바리새 사롬들이 형
내 여저희를 해롭게 할가 두려 위함이라 바리새 사롬들
이 그 사롬을 다시 불너 닐으티 예수가 너를 못챘다 요 감사
할거시 아니라 하느님 석 감사하라 하니 때개 저희가 예수
를 죄인으로 아논 연고이라 그 사롬이 티답흐니 너희에
수를 그러케 말하느거시 피이 혼일이로 다만 일 예수가 죄
인이면 하느님이 예수를 도으샤 나를 낫게 하시지 아니 할
거시오 노하느님이 도옵지 아니시면 예수가 그러케 하시

지 못하리라 갓 낮을 때 보러 소정된 사롬을 못 찾쳐 보게 하
섯스니 이런 령적은 전에 듯지도 못하엿노라 하니 바리새
사롬들이 밋으 성내 여그 사롬을 저의 친구 집에 가는 것 파
회 당에 가는 거슬 다 금하니 대개 그 사롬을 형벌 하고 저 흠
이러라 예수가 바리새 사롬들이 그 사롬의 계훈 일을 드르
서 고 그 사롬을 맛나 보실 때 무르시 터 너 1 가 하는 님 아 들
을 밋느나 그 사롬이 터 답 하 터 주 여 누구 잇가 날 노 하 여 품
밋게 하 쇼셔 그 사롬이 이러 계 무른 거 손에 수가 제 눈 곳 친
즐 만 알고 예수가 누구 신 즐은 아 지 못 흠 이러라 예수 1 곧
은 사 터 너 드려 말 하 는 이 가 하는 님 아 들 이 라 하 시 너 그 사
롬이 이 말 숨 을 듯 고 곧 은 터 주 여 나 1 가 밋느 이 다 하 고 예
수 암 희 쓸 어 절 하 더 라 예수가 때 즈 들 드려 말 숨 하 시 터 나

| 가 착한 목자 | 니 내의 들을 아노라 하시니 예수 뜻에 당
 신이 데즈들의게 목자 되고 데즈들은 양의 무리 되고 하니 당
 신이 데즈들을 사랑 하시고 보호 하시니 원고 | 라고 나라
 에서는 목자들이야의 무리 합회서 셔가면 양이 쓰러가고
 양마다 일흠이 있고 또 목자의 소리를 알 때 부르던 오느니
 라 목자가 제 양과 밤식도 먹이서 셔 열흘씩 직회며 쓰들준
 승들이 해할까 보호하더라 예수들 사랑하시는 사름은 예수
 를 뵈옵지 못하되 예수가 홍상이러케 못치게 시샤 마귀가
 그 사름들을 해할까 직회시고 텨당에 올라가는 길노이 데
 즈들을 인도 하시니라 ○ 우리 본바에 수가 배다니에 계
 실새 따라라 하느니 인니에 수를 제집으로 쉼하였느니 마
 락가 마리아라 하느니 누의가 잇서 셔에 수가 셋을 쉼에 압해

안저 그르치심을 드릿는 나라 마라와 마리아가 동심라사
로가 잇더니 예수가 베다니에셔 나신후에 라사로가 병이
잇는지라 제누의들이 예수 췌편지를 보내 제 동심이 병
이 잇음을 말하엿는지라 예수가 마라와 마리아와 라사로
를 사랑하되 그의 별드르신 후에 죽어가자 하니 하시고 계
시던 곳에서 잇흠을 더며 모시더니 데즈들드려 말습하샤
티 우리가 베다니에 가서 우리 친구 라사로가 잠들엇음을
내가 헤우리라 하시니 예수 이르샤 라사로가 죽엇심을 다시 살
내려 솟하심이라 예수와 데즈들이 베다니에 갔가 이가시
니 마라와는 즉시 마종나 오고 마리아는 집에 잇더라 마라가
예수를 맞는 후에 말하되 주가 탄일진즉 오섯더 변내 동심
이 죽지 아니 하섯겟는이다 하니 마라가 예수를 향하느님

의 권능이 있는 고로 라사로 죽는 거슬 능히 구하엿슬 만
할 줄 알더라 마리가 집에 도라가셔 마리아드려 예수 오심을
닐으니 마리아가 또 급히 이러나 나가셔 예수를 마주시
제 동침이 죽엇슴으로 을 거늘 예수가 마리아와 마리아의
친구들이 우는 거슬 보시고 미우슬 피하샤 예수도 혼우
시니 거기 왔던 비성들이 말하되 예수가 라사로를 엿더케
사랑하는가 보려하더니 예수가 비성들드려 무르시되 라
로사들 어딤 장소하엿는나 비성들이 에수를 외시고 무덤에
가니라 유대국에 장소지니는 법은 시체를 굴속에 두더라
그 무덤문에 혼들을 세웠더니 예수가 말씀하시되 이들을
옴기라 하시니 들을 옴긴 후에 예수가 큰 소리로 부르시며
라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시라 사로가 손과 발에 죽엄

웃슬 남고 열골에 수건을 쓴 때로 무덤에서 살아 나오니 예
수가 거기 섰는 백성들 두려워닐으시되 이 사람을 끌어 주어
가게 하라 하시니 여러 백성들이 예수 하신 큰 령적을 본 후
에 예수 가하는 님 아 들인 줄을 믿더라 이던 사람들 이 바리
새 사람의게 저희 본 일을 닐으니 바리새 사람들이 깃거하
니 하야 할 사람도 예수 믿지 안키를 원하야 서로 말하되 우
리가 좃 좃 었지 하고 만일 길리예수의 령적 하는 거슬 곳 처
게 하니 하면 이 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으리라 하야
그 때 브러에 수 죽이기를 썩더라 레비 일에 예수 가 회당
에 가셔 거기 온 백성들을 가르치시더라 그 중에 열여덟히
알은 녀인이 있스니 그 녀인의 병은 묵이 곱부러져 펴지 못
하 고 니러 서지 못하더라 예수 가 그 녀인을 보시고 불녀 말

숨흐시되녀인하네병이노히엿다흐시고손을그녀인의
게언지사니즉시그녀인이몸을뛰고나흔지라그녀인이
제병나흠을알고미우깃거흐야하는님쇠크게감샤흐거
늘그회당주장흔사름이예수가이령적흐심을성내여바
리새사름들이빅성이예수밋는거슬즐거하니흐는것
치말흐야골으되예수가레비일에그녀인곳친거사하는
님쇠득죄흐엿다흐고빅성들드려말흐되흔켄일에일흔
날이륙일뿐이니누구던지병이잇서셔못치고저흔진대
레비일에오지아니할거사라흐거늘예수가회당주장과
당신을척망흐던다른유대사름들드려꾸러골으샤되레
비일에는너희가마구간에쇼화나귀를몰어물을마시우
지아니흐느냐만일말못흐는증승의게이러케흐는거사

을 흘린 때 레비 일 에 불쌍 한 너 인 을 낫 게 못 처 는 거 시 을 처
하 니 흐 나 예 수 이 말 습 흐 신 후 에 탕 신 을 칙 망 흐 던 사 례
들 은 붓 그 리 워 흐 고 다 른 비 성 들 은 예 수 흐 신 신 기 흐 일 을
깃 거 흐 더 라

데 십 륵 장 다 른 날 에 예 수 가 바 리 세 사 례 사 는 집 에 드 러 가
샤 흐 비 유 를 말 습 흐 시 디 흐 사 례 이 큰 잔 치 를 배 곶 식 음 식
을 상 에 늦 코 모 든 물 건 이 다 예 비 된 후 에 제 하 인 을 보 내 여
청 흐 사 례 의 게 을 세 가 되 었 습 을 닐 으 디 그 사 례 들 이 잔 치
에 오 고 지 아 니 흐 야 각 각 오 지 못 할 평 계 를 흐 니 처 음 사 례
은 말 흐 디 써 흘 샷 시 매 가 서 보 겠 스 니 가 지 못 함 을 용 셔 흐
라 흐 고 다 른 사 례 은 말 흐 디 쇼 다 솟 쌍 을 샷 스 매 일 을 잘 흐
는 가 시 험 흐 러 가 니 용 셔 흐 기 를 청 흐 노 라 흐 고 또 다 른 사

롬은 말하되 장가를 세로 들었스니 가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 하인이 도라와서 그 사름들의 말을 주인의게 닐은디 그
 주인이 그 사름들을 위하야 예비하잔치에 그 사름들이 오
 고저하니 하때 미우성내여 조귀하인드려 닐은디 이 성너
 거리에 가서 맛는 사름을 다 불러 오라 가난하던지 절던
 지 쇼경이던지 잔치를 먹게 드리고 오라 하니 때개 몬져 청
 흘 사름들이 못오갓다 흠이리라 예수의 비유마다 었던 거
 슬 뜻하거 손나 아기 쳐로 듯기도 하라 고 하신 거시 아나라
 당신 이 우리로 하여 품알게 하고저 하시느 일을 알야듯고
 귀역하계 하심이니 이 비유에 잔치 주인은 하느님을 비함
 이 오상에 노흔음식은 복음의 도흔귀별을 비함이 오청하
 여도 못오갓다 하느 사름들은 당신 이 그러치신 사름이 복

음을 뜻지 아니 하는 거슬 비함이 오고 후에 잔치에 다려 온
사람들은 당신 말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게 비함이 오
가난하고 절고 눈먼 사람들을 다 드려 온 거 손하는님이 부
자나 가난하나 병들었스나 성하나 아모 사람이라도 복음
을 좃고 죄를 용서함을 받게 하려 고원하신 뜻이라 예수가
당신의 마르치심을 뜻고 저 하야 온 백성의게 날너 곧은 사
티너희들이내 데즈되고 저 할진대 너희 십자가를 질머지
고나를 쓰로라 하시니 그 뜻은 백성들이 맛당히 예수희 본
을 밧어 어렵고 고로 올지라도 올흔일을 할거시라 그 큰일
하기가 올흔일하기보다 미우 쉽고즐거하나 우리가 만일
이 올흔일을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시 오올코하는님을 순
종함으로 어려 온일하는 거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시

니 예수 말슴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아니면 당신데 즈가
 되지 못하리라 하심이라 전에 악한 일을 행하던 사 람들이 예수
 석와셔 이르러 달나 하거늘 선비와 바리새 사 람들이 그 사
 람들 온거슬 보고 예수 석척망 하야 말하되 예수가 그 사 람
 들을 친구 삼엇다 하거늘 예수가 선비들과 바리새 사 람들
 의 계적은 비유로 말슴하시되 너희가 양뱀과 리새 사 람들이
 한양을 일흐면 다른 양을 썬나셔 일흔 양을 초스려 가지 아
 니 하겠느냐 그 양을 초즌 후에 깃거 하야 양을 엿썬에 매고
 즐거히 집에 도라와셔 친구와 이웃 사 람의게 말하되 일헛
 던 양을 초졌스때 나와서 치즐김시다 하고 또 열은 진헛던
 녀인이 온은 전을 일흐면 등불을 발키고 집을 쓸고 그거슬
 초도록 초세히 쓸피지 아니 하겠느냐 그녀인이 그 돈을 초

즌 후에 니웃 사룸의게 말하되 내 일헛던은 전을 초젧스매
우리가 다즐김시다 하리라 예수ㅣ 두비 유로 선비들과 바
리새 사룸들을 마르치심은 예수씨 말씀드르려 온악한 사
룸들이 그로 일을 하고 하느님을 숭종치 아니 하엿스매
일헛던 양과 일헛던은 전과 못하나 예수씨 오느기 슬금 하
지 아니 하시고 도로 허초저 보고 오기를 권하셔는 거손더
희들이 죄를 회기 하고 하느님 말씀 때 르 하계 마르치심이
라 ○ 예수ㅣ 곧 으샤 되 었던 악한 사룸이던 지 죄를 회기 하
고 하느님 숭종 하기를 시작 하던 험당에 잇는 련스들 도 깃
기 하느니라 예수가 환비 유로 말씀하시되 사룸이 두 아들
이 잇더니 환날은 적은 아들이 제 아버의 제 청하야 곧 으터
아들 들 위하야 든 돈을 논 호아 주쇼셔 그 아버가 반을 주엿

더니 몇날 후에 적은 하돌이 제 아버가 준 돈을 다가지고 제
 집을 떠나 먼의 골로 가서 거기 악한 사름들을 친구 삼어
 치든니 며 악한 일하기 에 제 돈을 다 허비하더니 돈이 다 업
 서 진 후에 그 싸에 큰 흉년이 들고 또 석하나 사먹을 돈도
 녀지 못할지라 그 악한 친구 들은 그 사름이 궁하게 된 후에
 그 사름을 버리고 아모도 도와주 고저하 는 자 업는지라
 그러므로 그 사름이 거기 사는 한 사름의 게 가서 품을 파라
 일 할식 그 주인이 그 사름을 제 밭에 보내여 도야지 를 먹이
 라하니 그 사름이 밭이 우비 곱흐매 도야지 먹는 거시라 도 먹
 구십은 때로 먹으면 도켓스틱 그 주인이 주지 아니하 는지
 라여러 날고 심한 후에 혼자 말로 곱으되 나 는여기 서 주려
 죽게 되엿스나 우리 아버가 집 에는 여러 품군들이 잇서 서

먹을 음식이 넉넉할 때 먹구십은 때로 먹고 또 남는 거 시 잇
스리라 나 | 가우리 집으로 가서 아바지 의게 말하티 나 |
가하는 남을 거역하고 아바지의게 악한 일을 하였스매 아
바지 아들이 되지 못하겠스오니 품군과 궂치 녀이 쇼셔 하
갓다 하고 그 식물을 썬 나 셔제 아비 집에 도라올 시 집을 향
하여 멀리 올 썬 그 아비가 즈기 아들이 오는 거 슬 보고 갓가
이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 하고 즉시 드림질 하여 나와 마 즐
시 꿀을 아들의 목에 얹고 입을 맛초거 놀 그 아들이 곧 으티
아바지 여나 | 가 죄를 졌스매 하는 남을 거역하고 아바지
의게 악하게 하였스니 나 | 가 아바지 아들이 되지 못하겠
슴는 이다 하거 놀 그 아비가 밋우 깃거 하여 아들이 다시 말
을 못하게 하고 하인을 불러 새 옷을 가져다가 납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그 아버지를 이끄러 오니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여 즐거우니 자녀를 불러 앉히니
다시 왔스니 일히던 조식을 초저녁에 먹고 잔치 자리에 안자
즐거우니 그 큰 아들이 밤에 일출을 하러 갔다가 올새가 되
매 집가가 이르러 다 풍류와 가무하는 소리를 듣고 하인을
불러 물어 이르되 일일이 노하인이 이르러 대답하되 네 동성이 왔스
매 너의 아버지가 조국의 아들이 평안히 도라오음을 기뻐하
야 술잔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거늘 그 큰 아들이 성내
여 집에 이르러 오지 아니하려 하니 아버지가 나가서 이르
오기를 권하니 그 큰 아들이 대답하되 내가 여러 허를 아
바지닐으시는데로 하고 말씀은 거역하지 아니하였스니
나와 내 친구를 위하야 잔치를 하니 하더니 돈을 허비하고

악훈 일흥던 동성이 도라오매 즉시 술진 송아지를 잡었는
잇가 흥거늘 그 아버지 답흥되 내 아들 아나 | 가 너를 흥상
스랑 흥고 또 내 제 잇는 거슨 다 배 것 흥거니와 네 동성은
우리를 썬 나갓다가 다시 도라왔스니 일히다가 지금 다시
초젓스니 우리 맛당히 즐 겁고 깃부니라 흥더라이 비유에
그 아버지는 하나님 쇠비 흠이 오 아버지 썬 나갓던 아들은 악
훈 사람의 계비 흠이라 예수가 이 비유로 악훈 사람의 계 전
도 흥심으로 예수를 칩 땅 흥던 선비와 바리새 사람을 이르
치 신 거시니라 하나님 이그 사람을 지 금 사지 사랑 흥시 때
만 일 더 희 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 흥고 순종 흥면
하는 하나님이 장 초당 신 아들 들을 다시 삼고 저 흥시니라 예
수 차 두 사람을 들을 또 흥비 유로 말 함 흥시되 훈 사람은 부자

요고흔의복을넘고도흔음식을날마다먹고또라사로라
흐는사름은가난흐야비러먹고온몸에부스럼이잇스매
그친구들이그사름을드려다가부자의집문밖게누이여
부자의밥상에셔셔러지는음식을먹게흐니거리에잇는
기들도그사름을불상히녀여그부스럼을할더라그후에
그비러먹는사름이죽으매턴스들이그사름을턴당으로
드려가니그사름이턴당에셔는가난치아니흐매부자집
상에넘는음식을기드리지아니흐고턴당에임의올나온
착흔사름들과긋치잔치를먹으니높고착흔아브라함다
음자리에안저셔아브라함의가슴을의지흐더라그후에
부자가또흔죽어장스지내엿스매그령흔이악흔사름들
가는곳으로가셔제죄로인흐야형벌밧을쇄에쳐다보다

가라사로가아브라함의가슴을의지하야잇슴을보고크
게말하되아브라함아바지여나를불쌍히보이샤라사로
를보내여손가락에물을적시여내혀에흔방을만셔러트
려나1가불에드는거슬셔늘하게하여주소셔아브라함
이되답하되너는성전에도흔거시잇섯스되라사로는고
싱하엿스니지금위로받고즐겨하려니와너는고싱밖으
리라그췌아니라우리와너와두스이에아모도건너갈수
업는^고고집흔곳이잇스니우리게셔네게로가려하느사
름이가지못하고네게셔우리게로오려하느사름이오지
못하느니라부자사름이말하되라사로가내게올수업스
면내아버지집에다숫형데잇스니라사로를거기보내여
더희들의죄를회개하고하느님을순종하여야죽은후에

이 무셔 온 곳으로 오지 아니라 날 너 주 시기를 비는 니다
 아브라함이 티답흐니 네 형제들이 성경이 잇스니 보고 회
 기하기를 비홀 거시니라 부자ㅣ 티답흐 티아브라함 아버
 지 여엇던 시름이 죽엇다가 아니라 가셔 날 으면 더희들이
 덩녕회기하리다 아브라함이 티답흐 티네 형제들이 성경
 에 하는 님이 날 으신 거슬 좃치 아니 할진 때 비록 었던 사
 림 이 죽엇다가 아니라 가셔 말흐 여도 더희들이 하는 님을 순
 종하고 죄를 회기하지 아니라 하 더라 이 비유에 우리가
 착한 사 림들이 죽은 후에 복을 받고 악한 사 림들은 죄 석 문
 에 형벌 받을 거슬 하는 니 우리가 가난하고 병이 잇슬지라
 도 하는 님을 순종하야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노 거시 이 세
 상에서 데일 부자 되고 하는 님아 들되지 안는 것보다 미우

복음요스

제십륙장

칠십오

나음을 알이로다

예십칠장 예수가 또 다른 사름들보다 제가 나흔 줄로 아는 사름들의 제흔 비유를 말슴하시되 두 사름이 성던에 가기도 할시흐나 혼바리새 사름이 오또흐나 혼세 밝는 사름이라 바리새 사름은 다른 사름들 보고 드를 곳슬 츠저가셔 기도 할시 말흐야 곧 으티 주어 나이가 다른 사름과 또 혼져 기섯는 셋 밝는 사름과 못치 악흐지 아니 흠으로 감사흐오며 나이가 흥상기도 하고 혼칠 일에 두 번식 금식 하고 또 나가 성던에 잇는 제스장의 제 모든 물건을 열에 흐나 흘덜어 주엇는 이다 이거시 바리새 사름기도 할새 이 말을 크게 소리흐야 다른 사름으로 듯게 하니 때개 다른 사름으로 하여 품저이가 올흠을 알게 하고 저 흠이 러라 세 밝는 사름은

귀도 할새 사름이 듯게 호고저 아니 호고 다만 하는님 만듯
게 호고저 호야 홀로 호곳에 가서 머리를 숙이 고저 | 가 모든
악 할 일 호섯 숨을 누웃 침으로 하는님 쇠 말 호티나 | 가 죄
인인 줄을 세드렸스니 하는님 쇠셔 나를 용셔 호쇼셔 호더
라 예수 가이 비유를 듯는 사름의 게 말 숨 호시 티 하는님이
바리새 사름 보다 세 빛는 사름을 더 깃거 호시는 거 손 바리
새 사름은 교만 호야 제 몸 만 생각 호고 세 빛는 사름은 제 죄
를 회기 호고 조복 호여 용셔 호심을 청 호는 연고 | 라 빅성
들이 어 린 으히 들을 에 수 쇠 드리고 와서 예수 가 손을 머리
에 언고 위 호야 빌어 셔 복 받게 호심을 원 호거 늘 스도 들이
싱각 호티 에 수 쇠 고로 올가 흠 으리 드리고 온 빅성 들
을 칭망 호야 보내 고저 호는 지라 예수 가이 로인 호야 스도

들을 것거 하니 호샤닐 너 곧 호샤티어린 호희와 그치검손
호고 사랑호는 빅성이 라야런국에 드리가는 니 그런고로
호희들을 내게 오게 호고 금호지마라 호시고 그 호희들을
골에 안으시고 손을 언즈샤복을 빌으시니 이로써 우리가
에수가 호희들 사랑호심을 알고 또 그 호희들도 예수를 스
랑호야말음을 좃츠면 예수희데즈 1 될수잇는 니라 예수
가 열두 스도들과 그치에루살넴에 가샤 스도들을 종용호
곳에 드리고 가샤 당신이 거기와셔 장춧엇지 되실일을 날
너 곧 호샤티에루살넴 빅성들이 장춧나를 육호고치고 춤
밧고 그 후에 나를 십즈가에 못박으리라 호시더라 십즈가
라호거 손두큰 나무로 열십즈형상을 만든 거시니 그 나
라에서 형벌호야 죽일 사름을 십즈가에 큰 못스로 손과 발에

박는 법이라 못박아서 죽도록 거러두는 거시니 예수 말씀
이 당신의 계장 좃그려 케되리라 함심이라 우리가 전에 본
바 우리 죄孽 문에 형벌에서 구속함시려 고 예수가 이 세상
에 내려오시니라 우리를 구속함시려는 거시니 할 모양뿐이니
우리를 티신 함여 형벌 받으시는 거시니라 그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우리 티신에 좃그려 형벌 받으실지
라 당신 이 예루살렘에 가신 후에 그려 케 될 줄을 아섯 것 마
는 우리를 사랑함여 우리 티신에 죽기를 들게 녀이시느 고
로도 라 오지 아니함시 고 더 가시니라 예수가 예루살렘 길
로 에 리코라 함는 성에 지나 설 석벽 성들이 예수를 쓰로 더
니 바 티 마 요라 함는 쇼경이 길에 안자 구결함다 가 벽 성
의 소리를 들 고 이 엇진 일이 노 못 거늘 벽 성들이 날으 티 예

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바티마요가 예수가 쇼경을 능히 보
게 하신다 함을 드렸는지라 예수가 거기 오심을 드룬 후에
즉시 크게 소리 하여 말 하니 티베수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굶치라 닐은 티그쇼경이
더욱 크게 소리 하여 콜으 티베수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가 서서 말 하니 티베수여나를 불쌍히 여기
니 쇼경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 급히 오려고 옷을 벗고
드름질 하거늘 예수가 부르시 티베수여나를 불쌍히 여기
니 티베수여나를 보게 하야 주쇼소서 하거늘 예수가 바
티마요에게 말씀 하시 티베수여나를 능히 보겠나
를 밋는 고로 낮게 되리라 하시니 즉시 쇼경이 능히 보는지
라 예수를 부르 오며 크게 소리 하여 하니 티베수여나를

감샤 하더라 예리코라 하는 성에 삭키요라 하는 사람이 있
 스니 세 밤은 사람중에 피수요도 부자라 예수가 그 성에
 지나실새 삭키요가 지나는가 보고 저 하나 사람들이
 만코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적으며 보지 못함으로 압흐로
 드름질 하야 썩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가 그 길로 지나시는
 현고 이르라 예수가 거기 나르샤 쳐다 보시다 삭키요를
 보시고 큰으샤 티삭키요야 나이가 오날네 집에 가서 쉬겟
 스니 션니느려오라 하시거늘 삭키요가 급히느려와서 예
 수를 깃거히 마져 집으로 드리오니라 그새 로마 남금을 위
 하야 비성의 게 돈받는 사람들 이혼이 공번되 지아니 하고
 사오나 온 사람들 이라가 난흔 비성의 게 맞당히 밧을 것외
 에 더 귀하니 삭키요도 예수가 제 집에 오시거 전에느그러

깨끗한 것을 뜻하니 너희 수를 본 후에 하는 것이 예수를 보네
심을 밋고야 수 말씀대로 좃더니 삭키요가 여러 백성압헤
서 서서 예수께 말씀하니 그가 다시 공변되 지아닌 일을 아
니 하고 또 내 제 잇는 돈반을 늘 호와가 난흔 백성을 주고 또
내게 당치아닌 것 가져온 거시 잇스면 그 사람의 게스 감절
을 보내리라 하니 그늘에 수가 삭키요가 제 죄를 회개하고 당
신 말씀을 순종함을 보실새 삭키요도 려닐 으시되 네 모든
죄가 다 용서 되었다 하니 더라 우리가 용서 받기를 원할진
대 맛당히 삭키요와 못치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밋어
순종할 거시 오우리도 맛당히 우리보다 더가 난흔 사람의
게 착하게 할 거시 오우리가 만일 가난한 사람의 게 줄 돈이
없거던 아모리 케라도 할 수 잇는 때로도 아줄 거시 니라도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당치아닌 거슬 취함이 잇스면 비록 그
 사름이 업는 거슬 아지 못 할지라도 우리가 맛당히 돌녀 보
 내던지 갑던지 할 거시니라 하는 님은 이 거슬 다 알으시고
 또 우리에게 당치아닌 거슬 취하고 도로 주지아 남으로 하는
 님을 거역호면 용서 받기를 바라지 못하리라 이새 유월절
 이거 의되 때 우리 아는 바 하는 님이 유대 사름으로 히마 다
 이 절기를 직히라 호는 거시 오 또 다른 성에 서는 이 절기를
 직히지 못호고 다만 예루살렘에 와 서 직히라 호신지라 예
 리 유대 사름들이 그새 왔더니 예수와 제자들이 또 혼거기
 왔스되 유대 사름들이 알지 못호고 저희들이 서로 예수를
 말스며 이르되 예수가 이 절기 직히는 디 오겠느냐 하니
 때 개바리새와 사름들이 그 전에 빅성의게 빌으되 아모라

도예수를보거던우리게닐으라흐엇스니예수를초저죽
이고저흠이러라예수와데즈들이예루살렘으로오다가
베다니라흐는동녘에셔쉬실시베다니는마티와마리아
와예수가살니신라사로사는곳시라유대사람들이라사
로가거기잇슴을알고또그전에죽엇다가이러남을드른
고로유대사람들이예수썬아니라라사로를보고저흐야
베다니에왓스니유대사람중에피수와관장들이라사로
를죽이고저흠은여러유대사람들이라사로를보면예수
가하느님아들인줄을밋을시흠이러라예수가머지하니
흔예루살렘으로가시려고베다니를쳐나셔엘나온산에
오시다가갓가온동녘로두데즈들을보내시며닐너글으
샤티그동녘에드리가면붓드리민나키가나키솟기화긋

치잇슴을맛나리니그거슬풀어가지오라만일엇던사름
 이연고를뚫거던우리주가나귀를구흐신다흐라데즈들
 이에수말슴때로나귀와나귀숫기를맛나풀쌔나귀남자
 가뭇티엇지흐연이고노흐거늘데즈들이에수닐으신때
 로티답훈티그님자가데즈들노흐여곰그나귀를가저가
 게흐는지라데즈들이나귀를에수쇠가지고와셔것옷술
 버서어런나귀등에업고에수가나귀를드시고에루살뵈
 에가설시여러빅성들이뜨르며저희들의것옷술버서싸
 후헤슬고에수가드고지나가시게흐고또다른빅성들은
 나무가지를베혀에수압헤펴더라그빅성들이저희남금
 이거리로지나가면이러케흐는법이러니에수를공경함
 으로서러케흐더라또압헤가고뒤에가는빅성들이크게

소리 흥야 곧 이르러 주에 일흠을 받드려 온 자를 맛당히 찬송
흥리 라 흥더 다 유대 사름들이 예수를 이르러 궤공 경흥고 제
성에 오심을 기거 흥는 모양이 잇스되 므음에 는 예수를 스
랑 흥지 아니 흥으로 몇 날 아니 되야 그 빅 성들이 크게 말 흥
되 예수가 맛당히 섭즈가 에 못 박히리라 흥 줄을 예수가 미
리 알 으시니라

예 십 팔 장 예수가 예루살렘에 니르샤 성던에 올라 가시니
빅 성들이 다리 절고 눈 먼 사름들을 드리고 예수 쇠왔거늘
예수가 그 사름들을 다 낫게 흥시키고 그 날 밤에 예수가 그 전
날 밤에 계시던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잇흔 날 아침에 예
루살렘으로 오실시 예수가 시장 흥시더니 무화과 나무가
길 그 헤잇 슴을 보시고 무화과를 잡스시고 저 흥샤 나무 밋

헤가시니 그 나무에 무화과는 업고 다만 낱써이여 늘 예수
 가 무화과 업슴을 보시고 나무의게 말씀하시되 너 1가 다
 시실과가 업스리라 하시니 2차가던 데 즈들이 예수가 이
 말씀 하심을 드러 더니 다음 날에 데 즈들이 지나 갈식 그 나
 무가 뿌리에 서 브러 샷지물나 죽엇슴을 보고 데 즈들이
 예수 하신 말씀 생각 하 고 곧 이 무화과 나무가 었지
 이 2차 쉬이 물나 죽엇는 잇가 하 더라 이는 예수가 그 나무
 의게 물나 죽으라 말씀 하심 으로 그 나무가 죽은 거시니 이
 거시 또 현령적이러라 ○ 예수가 포도 동산 심은 사름으로
 현 비 유를 말씀 하시니 포도 동산이란 거손 포도 나무 심으
 는 밭치라 현 사름이 포도 동산을 심으 고 을라 리를 두루 고
 그 안 에 술 만든 들을 두엇스니 술틀이란 거손 포도가 익

으면 거기 담어 즈음을 하여 술이 되게 하는 거시니 그 술은 포
도 즈음으로 만든 거시라 그 사름이 올라와 들을 문들고
또 혼탁을 지었스니 사름들이 거기서 머물러 드적과 들 즈
음을 직히다가 위티 혼일이 잇스면 그 합에 들러가고 문을
닫아 방비 하는 거시라 그 포도 등산 임자가 친히 직히고 저
아니 하여 엇던 롱부들의 게맛기 엇더니 그 롱부들이 포도
등산에 서 머물며 직히니 그 포도가 익으면 그 롱부들이 싸
서 임자의 게도 디를 보내고 그 늑어지 포도는 저희들이 가
질 거시라 그 롱부들 노포도 등산 직이 삼은 후에 그 임자가
먼식골에 갔더니 포도의 을 싸도 디 밧으려 고 하인을 보내
니 그 롱부들이 언약 때로도 디를 주지 아니 하고 그 하인을
잡아 싸리고 아모 것도 주지 아니 하고 보내 거늘 그 주인이

다른 하인들을 보내엿더니 그 롱부들이 들을던져 그 하인의
머리를 상하여 옥을 밧고 도로 가게 하니 그 주인이 하인을
더 만히 보내엿더니 그 롱부들이 후썩디고 후죽인지라 그
주인이 장춧엇지 할고 생각하니 혼스랑 혼는 아들이 잇
는지라 혼자 곧 으티나의 스랑 혼는 아들을 보내던더 회들
이 해쳐 못하리다 하고 조귀아들을 보내엿더니 그 롱부들
이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는거슬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제하비죽은 후에 포도동산을 초지 할 사람이니 우리가 더
사람을 죽이고 우리 거슬 삼으리다 하고 그 사람을 포도동
산 밧쇠 잡아 배에 죽이더라 예수가 뜻는 십성들의게 말슴
하시다 그 포도동산 임자가 된의 클로부더도 라와 포도동
산에 가서 그 악한 롱부들의 거 장춧엇지 할겐는요 박성들

이 티 답 하 티 그 임 자 가 장 초 그 악 혼 롱 부 들 을 다 죽 이 고 포
도 도 디 출 다 른 사 림 들 은 보 내 여 등 산 에 있 제 하 리 이 다 하
더 라 이 비 유 예 코 드 등 산 임 자 는 하 는 님 의 비 흠 이 오 악 혼
롱 부 들 은 유 때 사 림 의 제 비 유 흠 이 나 하 는 님 이 유 때 사 림
의 제 미 우 착 하 게 하 셧 는 너 유 때 사 림 이 이 품 싸 에 셔 종 노
릇 하 거 늘 하 는 님 이 이 스 라 엘 싸 흐 로 드 러 다 가 제 싸 를 삼
게 하 셧 것 마 는 거 괴 온 후 에 하 는 님 을 순 종 하 지 아 니 하 고
하 는 님 이 착 혼 선 지 자 를 보 너 자 더 희 들 의 제 죄 를 회 기 하
라 고 님 녓 스티 듯 지 아 니 하 고 도 르 혀 선 지 자 를 악 하 게 티
접 하 야 죽 인 지 라 지 굄 하 는 님 이 당 신 아 들 에 수 를 보 내 셧
거 늘 유 때 사 림 들 이 죽 이 고 저 하 나 악 혼 롱 부 들 과 갓 혼 거
시 라 바 리 새 오 사 림 들 과 유 때 사 림 중 에 괴 수 들 이 이 비 유

를듯고 악훈 롱 부들로 저희 들게 비음을 알고 깃거 하니
 악예수를 잡아 형벌하고 저하니 여러 백성들이 하니
 예수를 보내 심을 밋는고로 예수를 잡아 형벌하면 백성들
 이 성별싸 두려워 하더라 예수가 또 남금이 아들을 위하야
 혼인 잔치 하는게 스로 혼비유를 말함 하시니 우리가 생각
 하건디 아그 사립이라 도 남금의 잔치에 가기를 즐기련마
 는 그 남금이 모든 물건을 배하고 하인을 보내 여사림들
 을 청하디 그 사림들이 오지 아니 하거늘 그 남금이 하인을
 다시 보내 여말하디 내 쇼라 양을 잡아 잔치를 배하고 기
 드리니 외석 잔치를 막으라 하엿더니 그 사림들이 하인에
 말을 드른 후에 후도라 가더 뜻기를 즐기지 아니 하고 또
 언사림들은 그 하인을 악하게 디 짐하야 죽인 자라 그 남금

복음요스

제십팔장

170

이이거슬듯고그악한사람들을형벌하려고큰스름보내
여죽이고집들을불살오게하고다른악인을불더닐으되
혼인잔치가에비되잇스나튼져칭찬사람들은악하야오
지아니하니네이거리에나가맛나는빅성을다드려오라
흔티그하인이나가져부자나자남하니맛나는때로도
드려온지라그새거괴온빅성의의복이남금의집에오기
가도치못한지라그러므로그남금이오는사람을위하야
도흔세의복을에비하여모든사람들더러그집에드러올새
그의복을남겨하라닐넛더니그남금이잔치비설한방에
올새그중에흔사람이잔치의복을남지아니하엿슴을보
고남금이무르되베포하엿지잔치의복을남지아니하고여
괴왔느냐때겨그사람이그의복에비되엿슴을알엇것마

는 믿음이고 만항야 스스로 생각항티내의 복이 넉넉히도
 타항고 잔치의 복을 넘지 아니 항였스매 능히 티 답항지 못
 항는지라 그님금이 미우성 여하인들의게 분부항야 그
 사름을 잡아 손과 발을 절박항야 드라나지 못항게 항야
 금을 거역항는 사름가도는 옥에 가도라 항나라이 비유에
 잔치항던님금은 하는님 석비 흙이오 님금의 아들은 예수
 석비 흙이오 몬저 청항였스티 오지 아니 혼사름들은 유대
 사름들의게 몬저 예수를 밋으라 항였스티 밋지 아니 흙을
 비흙이오 거리에 서드려 온 백성들은 그 후에 예수를 밋고
 순종항는 사름들의게 비 흙이오 혼인의 복을 넘지 아니 혼
 사름은 예수 데즈와 곳치 든니 데 데즈되는 데 항나 믿음은
 아니 되는 사름의게 비 항심이니 하는님이 우리 믿음을 보

복음요스

제십팔장

갈립스

시대 보시는 때로 우리를 상주요 후별주시는 나라 훈바리
새 사 례이 예 수 석 화 서 무 르 티 성 경 에 데 일 큰 계 명 이 무 어
시 잇 가 계 명 이 라 흥 는 거 손 하 는 님 이 우 리 제 맛 당 히 흘 일
을 닐 으 신 거 시 니 우 리 드 러 레 비 혈 을 직 히 라 흥 시 고 서 로
착 흥 계 흥 라 흥 시 고 도 적 흥 지 마 라 흥 시 고 거 좃 말 흥 지 마
라 흥 섯 스 니 이 거 시 다 계 명 이 오 쓰 하 는 님 이 성 경 에 여 러
가 지 계 명 을 닐 으 섯 스 매 이 바 리 새 사 례 이 모 든 계 명 중 에
무 어 시 데 일 큼 을 알 고 저 흥 이 러 라 예 수 궤 곶 으 샅 티 너 궤
맛 당 히 네 성 품 과 네 령 혼 과 무 음 을 다 흥 야 너 희 주 하 는 님
을 스 랑 흥 라 흥 시 더 라 예 수 가 이 바 리 새 사 례 의 제 만 이 거
시 데 일 큰 계 명 이 라 닐 으 신 거 시 아 니 오 우 리 드 러 도 좃 츠
라 흥 심 이 니 우 리 가 맛 당 히 스 랑 흘 수 잇 는 때 로 하 는 님 을

데일스랑 흘거시니라 후이 무르티 우리가 하는님을 보지
 못흐거늘 었지 사랑호리 오티 답호티 하는님을 보지 못흐
 다 흠은 울커니 와배가 감사호고 사랑호는 사랑을 다 맛당
 히보는 노가 령너 1 가 홀노 집을 썬나 멀리 갔다가 도라올
 시네의 복이 더럽고 썬러지고 신이다 히여지고 또 미우비
 곱호티 음식사 먹을 돈도 업스매 길 2 그늘진 곳에 누어 쉬
 고 또 자다가 썬 후에 네 것혜 새의 복과 새신과 먹기도 혼음
 식을 누가 두엇스던너 1 가 이거슬 누가 두엇는지 아지 못
 호티 그 사랑을 감사호리라 또 가 령너 1 가 어 뚝고 비바람
 치는 밤에 길을 일코 깎 혼강에 썬저물속에 잠길 썬 혼힘잇
 는 사람이 썬여 드리와셔 너를 붓잡어 강변에 건저 노앗슬
 썬 미우어 두어 그 사랑을 보지 못호고 그 사람이 가셔 못춤

복음요스

데십팔장

갈립 2

내 보지 못하여도 너 | 가 그 사람이 예 목숨을 구제 하였음
으로 감사 하니라 하는 것이 네 의복과 음식과 모든 도흔 물
건을 주시고 또 당신 아들을 보내사 너를 구속 하였으니 물
에 잠겨 잠깐 고심 받는 것을 구함이나 아니라 영원히 형벌
밖을 거슬러 구속 하였는 지라 너 | 가 비록 하는 것을 보지 못
하니 이것씩 문에 하는 것을 맛당히 사랑하지 아니 하였는
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는 것을 볼 수 없스니 하는
님을 사랑할 것이니 그러치 아니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이 되지 못하니라 예수가 바리새 사람의 계대 일 큰 계명
은 맛당히 하는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도 그 다음 계
명을 말삼 하시니 너 | 맛당히 너 웃 사람을 네 몸과 못치스
랴 하시니 이 세상에 우리가 착하게 할 만 한 복성이 다

니 웃시니 하는님 말씀이니 웃사름을우리몸과긋치스랑
흐라흐섯느니이말씀은우리가착흐고을혼일흐기를내
몸에흐는것긋치흐라흐신뜻시라

예십구장에수가선비와바리새사름드려말씀하시티너
회는거긋착흐다하시니선비와바리새사름들이레비일
에홍상회당에가셔여러사름보다높은자리에안고모든
사름이듯게흐려고거리에나가기도흐고다른날은악흐
고의리가업서제게당치하니흔물건을취하니이런고로
예수가거긋착흐사름이라부르시니라우리가레비당에
나와악흔일을헛흔진때레비당에가셔비는거기도흔거
시업느니라느님이레비당에셔판우리를보시느거시아
니오홍상보시느니라예수가선비와바리새사름들드려

닐너 곧으샤 티너 희물이 믿음에는 하는님을 순종치하니
하고 거긋순종하는데 하는고로 심판하는날에 너희들의
게하는님이 형벌를더하시리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에 있
는 성던뜰에 제들이잇스니 그제는 속정에 구멍이잇는지
라 비성들이 돈을 가져다가 넣는제라 그 돈을 제스장이 모
화서 성던에 쓰는물건사는거시니 그물건이하는님 쇠레
비홀싸쓰는거신고로 그 돈을하는님 쇠드리는것과 같고
나라 할날에 예수가 제잇는곳에 갔가이안즈샤 비성들이
돈 넣는거슬보시니 각각 사름이 제 믿음때로 너희들 시부자
사름들은 만히 넣더니 할가 난 할과 부가 와서 미우적은 돈
을 넣거 볼에 수가 데스들을 볼너닐으시되 과부의 적은 돈
을 부자의 만흔 돈 넣는것보다 하는님이 더 깃버하시니

라부자는 돈을 만히너 혼후에도 돈이 만히 남엇거너 와이
파부는 제게 잇는 거슬 다너 헛스니 음식 살 돈도 업는 이라
흐시더라이러 흠으로 우리가 적은 거시라도 주기어려온
거슬 주면 남는 거시 너너 흐여 만히주는 것보다 하는님이
더깃버흐시느니라는님을 위흐여 무어슬 주던지 무어슬
흐던지어려온거슬 할스록하는님을 더옥 사랑함을 뵈이
는 거시오 흐하하는님이 우리로 흐여 품대일흐고저흐시
는 거손우리가 당신을 사랑흐는 거시라 예수가 유대사름
을여러번 부르치시고여러가지령적을 뵈이신거손더희
들로 흐여 품대수가하는님이 아들이 생을 밋제흐고저흐침
이현마는 유대사름들이 믿음이라함고로 예수를 밋지아
니흐니라 우리본바우리로 흐여 품대그런일을 흐게흐고을
복음요스 데십구장

갈림일

혼 일을 행하게 하는 것과 사 례를 사랑하고 위 위 하는 거 시 전
히 믿음이라 우리 가 새 례고 착한 믿음 이 빛스 면 예수 를 우
리 구세 주로 사랑하고 순종 할 거 시 여 늘 유 대 사 례 들 은 악
한 믿음 이 빛스 때 예수 가 더 희 들 의 죄 를 말 습 행 신 고 로 그
사 례 들 이 예수 를 위 위 하고 구세 주 됨 을 믿 지 아니 행 더 라
예수 이 이 세 상 에 다 시 는 려 오 심 을 말 습 행 신 지 라 그 때 즈
들 이 어 는 때 다 시 는 려 오 실 지 아 지 못 행 때 예수 가 데 즈 들
드 러 낼 으 시 티 그 때 를 위 행 야 흥 상 에 비 행 라 행 시 너 라 예
수가 열 처 녀 들 이 새 로 장 가 들 러 오 는 신 랑 마 종 가 는 비 유
로 말 습 행 시 티 그 신 랑 이 안 해 를 집 으 로 드 러 올 식 그 나 라
에 서 는 사 례 이 장 가 들 세 신 랑 과 신 랑 의 친 구 들 이 곳 처 가
서 밤 에 신 부 를 드 리 고 신 랑 의 집 으 로 도 라 올 식 신 랑 이 집

에갓가이올새다른친구들이각각등과화를가지고마종
 가논법이라이열쳐녀들이신랑을마종갈식등을예비하
 었더니신랑이오리지체할때쳐녀들이누어서기드리다
 가잠들엇더니다솻쳐녀는지혜가잇서등에담은기름외
 에기름을더가지고왔스니만일불이써지계되면또기름
 을담으려고그러케하엿스디다솻쳐녀는어리석으매등
 에담은기름외에더가지오지아니하엿더니신랑을기드
 리다가잠들엇슬새밤중에사름들이신랑을보고소리
 질너큰으디신랑이오니다종나가라하거늘여러쳐녀들
 이급히나리나등을잡을식자는동안에등이뜨고기름이
 업는지라어리석은쳐녀들이기름이업스대지혜잇는쳐
 녀들의게와서말하디우리등이써짓스니너희기름을우

리 게 존달 나 흥 거 늘 지 혀 잇 는 처 녀 들 이 티 답 흥 티 녀 희 와
우 리 들 쓸 기 록 이 녀 녀 지 못 흥 니 녀 희 는 기 록 포 는 사 록 의
게 가 셔 녀 희 쓸 거 슬 사 라 흥 더 라 그 령 으 로 어 리 석 은 처 녀
들 은 기 록 을 사 리 갓 더 니 간 사 이 에 신 탕 이 온 지 라 지 혀 잇
는 처 녀 들 은 등 을 예 비 흥 엿 스 때 신 광 과 又 치 집 에 드 러 가
셔 잔 처 에 안 족 더 니 조 콤 잇 다 가 어 리 석 은 처 녀 들 이 왔 스
나 썩 가 녀 무 느 족 스 막 문 이 닷 첫 는 지 라 문 밖 게 셔 셔 부 르
티 드 러 오 게 흥 지 아 니 흥 더 라 이 비 유 에 신 랑 이 밤 에 옴 은
예 수 가 련 당 으 로 좃 차 다 시 이 세 상 에 는 려 오 심 을 비 훈 거
시 오 지 려 잇 는 처 녀 들 은 예 수 를 스 랑 흥 고 순 종 흥 야 예 수
오 실 썩 를 예 비 흥 는 사 록 의 게 비 훈 이 니 예 수 가 장 좃 그 사
롬 들 을 드 러 갈 거 시 오 어 리 석 은 처 녀 들 은 예 수 를 스 랑 흥

고순종치하니 하고 예수 다시오실 날에 예수 맛남을 예비
 하지 아니 사람의게 비 흠이라 예수 가면 식 골간 사람의
 비유 할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썩나기 전에 하인들을 불
 너 돈을 주터이 돈을 제 것 삼으라고 주는 거시 아니라 조귀
 업는 동안에 이 돈으로 써 취리하라 흠이라 하인의게는
 오천 금을 주고 또 하인의게는 이천 금을 주고 또 하인의
 에게는 일천 금을 주었스니 생각에 그 하인들이 돈 쓸 줄 알
 만치 주고 길을 썩나니라 오천 금 받은 하인은 그 돈으로 장
 스 하여 오천 금을 더 얻었고 이천 금 가진 하인도 그 화긋치
 야 이천 금을 더 얻었스니 그 두 하인들은 재주를 준 것보다
 비를 얻고 일천 금 받은 하인은 주인을 사랑 하지 아니 함으
 로 일하기를 즐기지 아니 할 때 썩나기 전에 하인들을
 파고 돈을 준

초야쥬인이오도록두엇더니오린후에쥬인이도라와셔
하인들을불너더희들흔일을무르니오천금밧엇던하인
은말흐티쥬인이나를오천금을주엇느니라
가오천금
을더엇엇슴을보쇼셔흐거늘쥬인이골으티잘흐엿도다
너
가착흐고충직흔하인이라내준돈으로부즈런히
고조심흐엿슴으로나
가돈을더줄터히너
가내집
에와셔즐거이살나또이천금밧엇던하인이말흐티쥬인
아당신이나를이천금을주엇느니라
가이천금을더느
릿느이다쥬인이골으티착흐고충직흔하인이라나
준
돈으로부즈런이흐고조심흐엿슴으로나
가돈을더줄
터히너
가내집에와셔즐거이살나또일천금밧엇던
하인이와셔쥬인의게악흐게말흐티쥬인아당신씩잇는

것외에 더원하매나 1가 주인의 돈을 일허 버리고 형벌 받
을가 두렵기로 싸에 금 초엇더니 아모도 초자가 저가지 못
하엿스매나 1가 저왓스니 돈을 도로 받으쇼셔 하거늘 주
인이 곧으 터 너는 게으르고 거역하는 하인으로 핑계만 하
는도 다 하고 다른 하인을 불러 너를 이 하인의게 짓는 일
천금을 취하야 오천금엇은 하인의게 주라 아모사름이라
도 무엇세 리 남기면나 1가 더 주려니와 리 남기지 아니하
면 제게 잇던 조고만 거시라도 도로 쟁아스리라 하더라 이
비유에 그 주인은 예수의게 비좁이 니 텃당에 올라가 셔 열
마나 오래 계실는지 우리가 아지 못하나 다시 느려오시리
라 그 하인들은 예수를 위하야 일하라고 이 세상에 둔 우리
의게 비좁이 니 예수가 우리에게 일하라고 다 돈 주지 아니하

복음요스 제십구장

구십

엇스나 우리로 하여야 품엇던 일을 할 만하게 문드섯는 나
리가 후손으로 무슨 일을 잘 하거나 후크치기를 잘 하거나
나 후크씨를 잘 쓰거나 후그림을 잘 그리거나 무어시던지
잘 할 수 잇는 것과 무어시던지 우리게 돈줄을 주신 것과
후크하 일 할 수 잇는 거시 예수가 우리게 돈을 주신 것과
후크하 나라이 비유에 베풀거든 우리 주께 수를 위하야 일하
기에 힘쓰기를 두착 하인과 크치하면 심판하느새에 예수
가 우리를 상주시려나와 만일 그 악한 사람과 크치
고 예수께 수를 위하야 일하지 아니하면 예수
가 그 새에 형벌하시리라 예수
가 데즈들드려 심판하느새에 엇지
할 일을 말할 수 있나 시
디나이가 현상으로 좇차이
세상에 다시는 오고 모든
기록 현상들이 나와 후크
의 화셔나이가 여러 사
를 보이느

곳에 룡상 우혜 안고 모든 죽엇던 사름들이 이러나셔 내압
 헤셔셔 나로 호야 곰더희 상과 벌을 심판 할거시오 바다에
 생진 빙성과 싸에 못친 빙성들이 다 이러나셔 거괴 올거시
 니나 | 장춧그 빙성들을 두썬로는 호아 할썬는 내 올흔편
 에 세을 거시니 착흔 빙성이 오또 할썬는 내 윈편에 세을 거
 시니 악흔 빙성이 라그 리 할후에 나 | 가 올흔편에 잇는 빙
 성들의 게어질게 말호 티너희 들은 하는 님 아 들들이 라호
 고 또 님 이 티너희 들이 세상에 잇슬썬나 를 사랑호고 순종
 호고 로 하는 님 이 너희 들을 위호야 예비 호신 들거 온 곳스
 로 나 와 흠쇠가 자호고 윈편에 잇는 악흔 빙성들 드려 님 이
 티너희 들은 나 를 사랑호고 순종 처하 님 고 로 나 를 썬나 셔
 형벌 밧을 무셔 온 곳스 로 가 리 라 호섯시니 그 림으로 악흔

복음요스 10 제십구장

구십팔

빅성들이 그곳에 가서 영원이 형벌 받으려니와 착한 빅성
은혜 수와 못치 영원히 복 받을 터인데 당으로 가리라
데이 십장에 수가 이런 기슬다 말슴 후 신 후에 데스 들드려
닐너 곧으샤 티 두 날 후에 유월 절된 때에 나가 비 반 흠을
벗어 십조가 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 비 반 이라 하는 거슨 우
리가 었던 사람과 친하다 후에 위위 할 때에 더 의원수 들
의게 그 사람을 잡아 해코저 하거던 어티가 면츠즈리라 날
으는 거시라 예수가 당신 이세루 살넌 유월 절 직 할 때 데스
중흔 사람이 당신을 비 반 하고 원수의게 십조가 에 못 박으
라고 주리라 뜻 하심 이라 열 두 문도 중에 이시가 료 유다가
당신을 비 반 할 줄을 알으심 이라 예수가 베다니 성에 가
시니 거기는 마리아와 마다가사는 곳이라 그녀인의 형

님라사로는 예수 썩서 전에 다시 살이신 사름이라 그곳에
 었던 사름들이 예수를 위하야 흘잔 죄를 베풀하엿스니 그
 썩마타는 예수를 순종하교라사로는 상에서 흘가지 먹더
 라그썩유대사름들먹는 풍속은 우리와긋지아니하니 상
 마테두루평상이잇서누어왼편골노평상을의지하교을
 흘손으로먹더라에수가상에셔갑소오실썩마리아가흔
 적은함을가지고왔스니이함은화반석으로만들고귀흔
 기름을마득히담엇스니그썩사름들이그런기름을머리
 와슈염에브르고후몸에도브르니그기름이사름의몸을
 부드럽게하교아름다운내음새나머몸에병이업시될듯
 흘지라후친구가츠자오면도흔기름으로브르는법이니
 이거슨미우착하게티점함이니라그썩마리아가함을가

지고 예수와셔 합을 세쳐 기록을 예수 발에 붓고 제 머리
털 노문 쓰르니 도흔 내 음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 마리아가
이러케 혼뜻손에 수가 텨던 당으로 조차느려 오샤 저를 무르
쳐 하느님 손이 되게 하심으로 이러케 사랑함을 뵈이느
거시 여늘에 수를 뵈 반하려 하느 악한 문도 유다가 마리아
를 칙망하야 곧으 티엇지 이 기쁨을 삼뵈 금에 푸르셔 가난
한 뵈 성을 주지 아니 하느 노유다가 춤가난 한 뵈 성을 위하
야 이 말한 거시 아니라 이에 돈자로들 가졌고 도적이니 그
돈을 제 것 삼으려 함이 러라 예수가 유다 드려 닐너 곧으 샤
티 마리아가 내게 올케 하엿스니 칙망하 지 마라 내 데즈들
이 온 세상에 가서 뵈 성을 무르 칠새 마리아가 착한 일한 거
슬 뵈 성의 게 닐너 셔 흥상 기억 하게 하리라 우리가 본 바에

루살넴성던에 하는 님의 레비 하는 일을 맛흔 제사장들이
 잇스니 여러 제사장들 중에 늙은 제사장들이니 왕후사름
 들이 아니라 예수가 빅성의 재을 흔 일을 하고 하는 님을 순
 종이라 부르치심을 듯고 예수를 위하더니 그새 유다가
 늙은 제사장들의 재가 셔 무르티나 1 예수를 비반하야 너
 희를 드리고 예수 잇는 곳에 가서 잡아 죽이 재하 면 나를 돈
 얼마나 주려 하는 노 늙은 제사장들이 곧 이 티 은 삼십기를
 주리라 하니 이 거시 만치 아니 하나 유다는 돈을 그 장 사랑
 하는 고로 은 삼십기를 위하야 제 주인을 비반 할 믿음을 두
 고 그새 브러 예수 흔로게 신새를 직히 늙은 제사장들을
 드려다가 예수를 비반하러 하더라이 새는 유대국 유월절
 이라 사름마다 양을 잡아 불에 구어 집안 식구로 더 부러 밤

복음요스

제이십장

구십삼

에 먹으니 때 개 유월절 잔치는 밤에 먹는 법이러라 예수가
문도들로더 부러이 잔치를 잡스오러가실시 문도들이 었
즈오티 우리가 어티가셔 잔치를 예비하리릿가 예수 곧
으샤티 예루살렘 성에 드리가면 불통가지고가는 사람을
맛늘거시니그사람가는집에 쓰라가셔그집주인을보고
말하티우리쥬가데즈들로더 부러 유월절 잔치를 먹을
우리의 계획이기를원한다하면그사람이 밥상과 평상잇
는 옷층큰방을 퇴일거시니그방에셔 잔치를 예비하라하
시더라 문도들이 예수말씀때로 예루살렘에 드리가셔 물
통가지고가는 사람을 맛나 쓰라그집에 드리가니그주인
이에수말씀과 쓰치 옷층큰방을 퇴이거늘 문도들이거기
셔 잔치를 예비하니라그전녁에 예수가 열두데즈로더부

러 흠쇠 오샤 잔치를 잡스 오실 시 데 즈 들 드려 닐 으 시 티 나
 | 너희 와 갓치 잔치 먹음 이 이 번 이 뜨 막 이 라 흐 시 니 때
 개 당 신 이 죽 을 죽 을 알 으 심 이 러 라 문 도 들 이 예 수 는 죽 지
 안 이 실 죽 을 뜻 흐 었 스 니 예 수 는 하 는 님 의 아 들 인 고 로 미
 우 높 게 되 여 보 좌 에 안 저 나 라 를 다 스 리 시 리 니 저 희 들 도
 높 히 되 리 라 싱 각 흐 고 저 희 들 이 전 에 혼 일 때 로 누 가 데 일
 높 혼 사 름 이 될 가 서 로 닷 토 거 늘 예 수 | 닐 너 큰 으 샤 티 내
 나 라 에 데 일 높 히 되 는 사 름 은 다 스 리 고 저 아 니 흐 고 온 전
 히 검 손 흐 야 다 른 사 름 섞 기 기 를 돌 게 녀 이 는 나 라 흐 시 고
 예 수 가 상 에 서 이 러 나 샤 것 옷 을 벗 고 슈 건 으 로 몸 을 동 히
 고 등 의 에 물 을 부 어 문 도 들 마 다 발 을 씻 기 시 고 슈 건 으 로
 닷 고 시 니 라 그 나 라 에 미 우 는 진 하 인 과 좋 이 슈 인 과 슈 인

의 친구의 발을 씻기는 법이 어늘 예수가 문도들의게 이러
케 하심은 낭신이 주와 스승이 되엿스디 문도들을 위하야
하인의 처디 들들게 취하심을 죄임이러라 발을 다 씻기시
고 벗섯든의 복을 넘으시고 다시 상에 안즈샤 문도들드려
말씀하시디나 1 가 너 회개함과 처녀 회개가 서로 하라 하
시더라 잔치를 먹을새 예수 1 곶으샤 디나 1 진실로 말하
노니 너 회개 중에 혼사름이 나를 비반하리라 하시니 데즈물
이 이 말씀을 듣고 미우 놀나고 근심하야 서로 보라 보며 누
구를 씻하심인지의 심하야 낫낫치 못조오티 주여나 1 너
잇가 나 1 너 잇가 하더니 예수 1 2 장 사랑하시는데 조 1
예수애 가슴을 의지하야 무리 곶으티이 중에 누구 1 닛가
예수 1 곶으샤 디나 1 가정반에 석할 조각을 적시여 그사

롬의게 주리라 하시고 석을 적시 여히 시가료 유다를 주시
 더라 유다가 상을 썬나 거리에 나오니 그새는 밤이라 그사
 롬이나 간 후에 예수이 데즈들 드려닐으시되나 | 잠산 등
 안만녀 희들로 더부러 낫치 잇스리라 하시고 곧으샤 되너
 희들 썬나기 전에 새 계명을 주노니나 | 가너 희를 사랑함
 과 낫치너 희들이 서로 사랑함라너 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백성들이 너희가 새 데즈 | 즐알니라 하시더라 또 데
 즈들 드려닐으시되 이 밤에 너희들이 유감에 드리 가나를
 버리고 다라나라 하시니 유다 | 못사 롬을 드리 고 예수
 를 잡으려 올고로 데즈들이 그사 롬들을 볼새에 두려워 할
 즐을 말슴함 심이니 예수는 모든 일을 알으시느고로 못사
 롬이 올 즐을 알으섯거니와 데즈들은 알지 못함은 지라 예

수 | 말슴이 너희나를 브리리라 하실 쎄 데 즈들이 밋지 아니
하더니 베드로로 고클으 디 나는 주와 꺾치 육에 꺾치여 죽을 지
언덩주를 쎄나지 안켓고 다른 데 즈들은 다 주를 브릴지라
도 나는 당신을 브리지 아니 하리이다 하거늘 예수 | 베드
로 드려닐으시 디 이 밤에 뉘이 두 번을 기 전에 너 | 가 세 번
말하 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리라 예수 | 이 말슴 하실 쎄 베
드로가 힘써 말하 여 고클으 디 나는 주로 더 브리 죽을 지라도
알지 못한다 말아 니 하리이다 모든 문도 들도 다 그리 말하
더라 데 즈들이 상에 쎄 유월절 잔치를 먹을 시에 수가 손의
석을 가지 고 하는 님 쎄 감사 후 에 석을 여러 조각 에 쎄 여
데 즈 들을 훈조 각 식 주시고 고클으 샤 디 이 석을 밋아 먹으라
이 석이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야 쎄는 거시라 하시니 이 석

이당신몸과갓다흐심은당신이미구에더들과우리를
 위하야집즈가에상하여쳐치심을뜻하심이러라석을주
 신후에술을가지시고하는님씩감샤후후에데즈들을주
 며글으샤티이술을마시라이술이내피니너희죄를샤함
 으로홀이논거시라이술이당신피와갓다흐심은당신이
 미구에집즈가에못박히실새손과발상흔곳에셔피흐름을
 뜻하심이니예수ㅣ집즈가에못박힘을받는연고는사름
 의죄를용셔되게하고저하심이라데즈들드려닐으시티
 나ㅣ죽은후에너희흔가지모하나ㅣ가갓르친때로석을
 먹고술을마시고또어는새던지너희들이이잔치할새맛
 당이나를귀억하라하섯시니그러므로지함교중사름들
 이성찬먹는법을직힘이러라우리가그예는석을볼새심

즈가 에 못 박힌 예수 의 몸을 생각 하니 그 손을 붙여
예수 의 손과 발에 서 흘이 신 피를 생각 하니 뜻이 라 예수 를
밧는 사 람 들이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 도록 이 잔치를
흘 거시 니 이 잔치를 먹을 때 마다 저 의 지은 죄 를 예수 가 십
자가 에 티신 형벌 받 으심을 생각 하니 그 죄 를 회개 하니 다시
범 하지 안 키 를 결 단 할 거시 니 라

데이 십 일 장 예수 와 데즈 들이 잔치를 먹을 때 예수 가 데즈
를 드려 닐 으샤 티나 | 너 희 를 썬 나 는 거 슬 근심 치 마 라 나
| 너 희 를 위 하니 아바 지 씨 가 서 흘 곳 슬 에 비 하니 라 하니
시 니 현 당 을 뜻 하니 심 이 라 또 글 으샤 티나 | 너 희 를 위 하니
흔 곳 슬 에 비 하니 후에 다시 와 서 너 희 를 드려 가 흠 썬 잇 스 리
라 하니 니 라 또 글 으샤 티나 | 가 준 계 명 에 무 르 친 모 든 착

훈일을 할 거시니 이 거시나 를 사랑 하는 표이니라 만일 너
희가 나를 사랑 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 하시리라
또 상약 하였으니 너희를 썬 후에 내 아버지가
너희 마음에 성신을 주샤 그 성신이 동상 너희 화 곳 처 잇
서서 너희로 하여 품 내 마르친 거슬 기억 하게 할 거시오
또 나이가 간 후에 너희들이 견디기 어려 온 근심이 잇슬 때
성신이 위로 하시고 또 너희들이 박성을 마르칠 때 성신이
너희 말을 바를 마르치시리라 또 곧은 샤디 지금 너희를 썬
나 죽음으로 너희들이 썬 후에 나 죽었다 가 다시 살어
난 후에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고 썬 후에 단 거시 변 하였을
거음이 되리라 또 날으시디 너희들이 아모 때라도 하는
썬 무순 거슬 빌 때 나를 인 하였나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슨물건을밧기에유공한지못하고다른사름은그물건을
을밧기에유공하면그사름을인하여달나하는너우리는
죄가잇고하는님을거역하고로하는님의아모것도밧을
공이업스매우리가하는님의빌새아모거시라도우리를
인하여빌수가업는나라그러나우리가에수데즈가되야
아모거시컨지하는님의에수를인하여빌면하는님이우
리가그거슬엇지아니하면도흔거슬알으시는외에는주
시는나라에수가데즈들드려말씀하신후에현당을우리
러보시며데즈들을위하여하는님의비르시고데즈들뿐
아니라무론남녀노소하고데즈들의마르침을듯고예수
를밧는사름을위하여비르시나라그데즈들이다죽은고
로우리가데즈의마르침을듯지못하나성경에데즈들이

그러 친말씀을 보느니 우리가 성경에 그러 친말씀을 보
는 고로 예수 를 밋고 사랑 하면 우리 도 예수 가 하는 님 쇠 위
하야 기도 할 사 례 중에 잇느니라 예수 가 하는 님 쇠 비 르 시
티 데 즈 들 로 그 른 일 을 행 지 말 게 하시 며 해 를 밧 는 디 셔 구
하시 티 내 데 즈 들 이 려 당 에 올 나 가 나 와 곳 처 잇 셔 아 바 지
가 나 를 주 신 권 능 과 영 화 를 보 게 하 쇼 셔 하시 니 라 예수 가
기도 를 다 할 후 에 데 즈 들 과 할 가 지 찬 미 하시 고 잔 치 잡 스
오 시 던 집 을 쉼 나 가 게 로 살 념 갓 가 온 엘 나 온 산 에 가 샤 거
기 잇 는 동 산 께 서 만 에 라 하 는 곳 에 드 러 가 셔 데 즈 들 잇 는
곳 에 셔 조 금 더 가 샤 쉼 어 안 저 기도 하시 니 라 그 때 예수 가
기도 하시 기 를 극 히 이 통 하 심 이 잇 스 니 당 선 이 장 츳 미 옥

무섭고 어려울을 당하실 연고 | 다 예수가 었지 하야 이러
케 견디기 어려온 고로 음을 당하섯는 노 우리 가지 온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밧으리라 죄는 무셔 온 거시 너 하는님이
진노하샤 항상 형벌하시느니라 우리 죄가 잇스매 맛당히
형벌 밧을터인 디에 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느 고로 우리를
디신 하샤 형벌을 밧으시느니라 예수가 기도하신 후에 사에
셔 내려나샤 데즈 들 잇는 곳으로 도라 오시느니라 데즈 들이 잠
자는 지라 예수 | 곧으샤 디너 희엿지 자는 노 내려나셔 너
희가 유감에 들지 말기를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때 개미 구에 그
문도 들이 당신을 버리고 드라나 유감 밧을 줄을 알으심이
러라 예수가 다시 가서 기도하시 고 문도 들 의 계도라 오샤
곧으샤 디나 를 비 반 흘 사 름 이 갓 가 이 오 니 너 나 같 지 여

다 할지더라 우리가 본바 악한 문도 유다가 놉흔 제사장들의
의게가 셔무르대나 | 가 예수잇는 곳을 구르쳐 주면 돈을
얼마나 주겠노요 하니 그 제사장들이 은삼십기를 허락한
지라 그 후로 브터 유다가 예수 비환할새를 직히더니 이새
에 수가 적막한 등산에 데즈들 노만 더 브러 제심을 알고 유
다가 생각 하니 이새에 수를 비환 하기도 흔새라 하야 그 놉
흔 제사장들과 바리새사람들의 게가 셔 예수 잇는 곳을 날
으니 그 사람들이 흔새 사람을 모악 칼과 몽동이 를 주어 예
수를 잡으려 보낼 식 유다가 그 사람들을 드리고 등산에 올
새에 수가 그 사람들 몸을 알으사 티 굽히드라 나 지아니 하
시고 잡히기를 기드리시니 당신이 죽을새 되엿슴을 알으
시는 연고 | 러라 예수가 데즈들 드려 날 니 곧 으샤 티 나 를

비반할 사람이 갓가이 온다 할 실새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와 불을 가지고 오더라 유다가 이 사람들이 드려
닐으되 예수가 어나 사람인지 너희 엿지 알니 오나 | 가 입
맛 초는 사람이 예수라 그 사람을 썰니 잡으라 하고 유다가
예수 쇠와 쳐 보기를 반가워 하는 데 하고 주여 주여 하며 입
을 맛 초니 예수 | 곧 으샤 티 유다야 너 | 가 입 맛 초 으로나
를 내 원수 들 의 계 비 반 하는 나 하시니 놓 혼 제 스 제 장 들 의
보낸 사람들 이 유다가 예수와 입 맛 초 을 보고 예수 를 잡아
줄로 결박 하여 가져가는데 즈들이 그 사람들 이 저희 스
랑 하는 주의 계 이 곳 치 흠 을 보고 그 사람들 로 더 부러 싸 호
고 저 하여 예수 쇠 말 숨 후 티 주여 우리 가 더 사람들 과 칼 로
싸 호 리 잇 가 후 더 니 베 드 로 가 훈 칼 이 잇 는 지 리 칼 을 썰 혀

후사롬의을흔편귀를버히니 예수ㅣ베드로드려닐으샤
되네 칼을칼집에너호라나ㅣ가내아바지씨청호면아바
지가련스수천명을보내샤싸화내죽음을구호시리라호
시더라그러나예수가죽어우리죄의형벌을티신받지아
니시면우리들의죄가용서됨을받지못호겟는고로청호
지하니섯스니예수가우리로인호야잡히여죽기를들게
녁이시니라예수가손을펴셔베드로가칼로쳐버힌사롬
의귀를문져났게호시니데즈들이저희들도줄로결박호
야예수와함씩가저갈싸두려워함으로다예수를브리고
급히도망호니라우리가본바유월절잔치먹을새예수가
데즈들드려닐으시되너희들이장춧유감을받어나를브
리리라호실새데즈들이말호때아니라우리가유를브리

지안켓느이다 하고 또 베드로 1 골 5 티 다른 데 즈들은 주
를 브릴지라도 나는 하니 브리리라 하였것마는 이새베드
로와 모든 데 즈들이 예수를 원수의게 브리고 드라나니라
우리가 본바 성던에 잇는 놉흔 제스장들 중에 현데 일놉흔
제스장이 잇스니 이 때 제스장이 다 른 제스장들을
거느리고 빅성의 계법과 이 된고로 유대 사름 중에 미우놉
흔 사름이라 예수 잡은 사름들이 때 제스장집에 예수를 드
려왔스니 모든 놉흔 제스장들과 유대 법관들이 거기 왔더
라이새베드로가 못사름이 등산에 서예수를 잡아 감을 보
고 그 사름들을 쓰라 갈식아 모사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
흐야 갓가이가지안코 멀니 쓰라가더니 그 사름들이 예수
를 드리고 때 제스장의 집에 왔슬새베드로가 그 집에 드러

와셔 하인들과 궤치화로 불²에 안저 몸을 썩히며 예수 의
게 엿지 흠을 보고 저 할시 아모 사름이라 도저¹가 예수와
궤치잇섯고 또 저¹가 예수 의 데즈¹출아지 못²게²하려
하더라 거기 안젓슬 썩²흔²점은²게²집²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무르디너¹가 예수 데즈가 아나나 베드로가 디답²하²디 아
니라 하고 이러나셔 퇴마루에나 갔더니 그새 밤중이 된지
라 둥이 울더라 즉시 또²흔²게²집²이 베드로를 보고 깃헤잇는
사름드려 말²하²디 이 사름도 예수와 궤치왔다 하²거늘 베드
로가 또²콜으²디 아나라 하²엇더니²흔²참²후²에 또²흔²하²인이 귀
베혀진 사름의 일가라 베드로드려 말²하²디 너¹가 예수와
흔가 지 동산에 잇슴을 나¹가 보지아나 하²엇는²나 하²거늘
베드로가 거²즈²성²내²여²콜으²디 너¹말²하²는²사²름²을²나¹가

하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들이 두 번 재울더라 그 때에 수가
거기 갔가 이 제 사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와 근치 잇지라
니 하였고 예수의 대답이 아니라 고 세 번 말함을 알으시고
베드로를 도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가 도라 보심을 보고
그 전에 예수 말씀이 들이 두 번을 기 전에 너 하나가 나를 아지
못한다 고 세 번 말하리라 하심을 생각하 고 저 한 일이 악함
을 세듯 고 그 집을 떠나 홀로 노흔 곳에 가서 통곡하더라

데이 십이 장 때 제사장들과 유대 법관들이 미양성던 갖가
온 집 에 모혀 일흔의 노흔 때 빅성이 른 법을 범하였스면 문
죄흔 후에 그 사름 들 의 게 무슨 형벌을 맛당히 받을 거슬 닐
은 법이 러라 하 좃이 되매 그 유장들이 예수를 드리고 공
회에 와서 예수 한 신일이 좃 른 법을 범하였는가 상고 할식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드리고 왔스니 이는 예수 죽임 핑계를
를 문물고져 함이러라 여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와서 예
수를 치러 말하되 예수의 그 큰 일을 증거할 수 업는지라 때
제 스장이 친히 예수 드려 부르되 너 | 가하는 남의 아들이
냐 예수 | 되 답하시되 그러하대 이후에 너 | 가하는 남을
후 편에 인젓다가 구름을 드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
술 너희들이 보리라 때 제 스장이 크게 성내야 곧 이르되 너 |
가하는 남 아들이라 하니 맛당히 형벌 받으리라 하고 공회
에 잇는 법관들 드려 부르되 예수의 게 무슨 형벌을 할고 하
니 여러 히 되 답하되 맛당히 죽일 거시라 하되 라 그 사람들 이
예수를 희롱하고 춤밧고 슈건으로 예수 눈을 덮혀 보지 못
하게 하고 손으로 예수를 치며 부르되 너를 치는 자 | 누구

고 너ㅣ가 하는 남 아 들 이 면 보 지 아 니 하 여 도 능 히 알 니 라
하 너 라 유 대 국 형 별 하 는 법 이 여 러 가 지 라 아 모 섀 라 도 사
롬 을 형 별 하 야 죽 이 려 하 면 로마 국 감 스 의 허 락 을 청 하 는
법 이 라 이 감 스 는 로마 국 왕 이 유 대 사 롬 을 다 스 리 라 고 보
낸 사 롬 이 니 우 리 가 본 바 유 대 사 롬 들 이 로마 국 에 부 치 인
고 로 로마 국 감 스 의 허 락 이 업 시 면 사 롬 을 죽 이 지 못 하 는
법 이 라 유 대 법 관 들 과 거 기 잇 는 사 롬 들 이 예 수 를 드 리 고
로 마 국 감 스 빌 나 도 의 집 에 와 서 예 수 를 허 러 말 하 티 예 수
가 유 대 사 롬 들 드 러 로마 국 을 비 역 하 라 하 였 다 하 고 또 예
수 말 이 저ㅣ가 남 금 이 라 한 다 하 니 빌 나 도 가 예 수 드 러 무
르 티 너ㅣ가 남 금 이 나 예 수ㅣ티 답 하 시 티 나ㅣ가 남 금 이
로 라 그 러 나 세 상 에 잇 는 남 금 과 같 지 아 니 하 다 하 시 니 때

개예수가세상에잇는님금과긋지아니함은예수는당신
 을사랑하는사람의모음을다스리시니예수의나라는곳
 비성의모음에잇는나라벨나도가유대사람들드러닐으
 터너희들이예수를악한사람이라하고내게드리고왔스
 나나이가문죄한죽아모죄도업고또예수가죽을만흔일
 을하지아니하였도다하더라히마다유월절이되면로마
 국감스가의레옥에갓치인유대사람은나흘늦는풍속이
 니비성의구함을죽음이러라이새가유월절이라유대사
 람들이벨나도의저녁새전과그저녁인후나늦키를청하
 거늘벨나도이곳사람의게무르더어나사람이맛방히노
 힐고예수가노힐거시냐하니대게벨나도가유대사람들
 이에수른죄가잇서잡아온거시하니오다만위위하야죽

이러함을 아는 연고 | 러라 빌나도 | 비성들과 말할새 빌
나도의 부인이 말을 보내 여골으되 예수를 해하지 말나오
날 그 착한 사람씩은으로 민망하고 두려운 심을 쉬엇노라
흐엇더라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예수 놋키를 원하지 아니
흐매 빌나도 | 너희들 두려에 수가 노힐거시냐 무를새 여
러히되 답하되 아니라 예수를 놋키 말고 바라바를 노흐라
흐더라 바라바는 불한 당질하고 사람을 죽인고로 옥에 갓
치엿거늘 유대 사람들이 빌나도의게 바라바 놋키를 청하
는지라 빌나도 | 못 사람의게 말하되 그러면 예수를 엿더
캐쳐치하라 하는 요하니 못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되 못박
으쇼셔 못박으쇼셔 하거늘 빌나도 | 골으되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고 못 사람이 더욱 큰 소리로 말하되 못박

으쇼셔 허거늘 빌나도 | 예수를 죽이고 저하니 허것마는
유대사람들의 구함을 뜻지아니 허면 민요낼가럼너 허야
물을가지고 못빅성압희셔 손을씨스며 곧으티나 | 가착
훈사름을죽임이아니라 너희들의게 죄당 허는거시니라 빌
나도싱각에제손씻는거스로제죄를물로셔씨셔 브림곳치
흠이로티에수가죄업슴을알엇스니 맛당히죽게아니할
거시여늘못춤내 못박게 허엇스니 빌나도의죄가손에잇
슴이아니라 모음에잇스니 손을씨심이쓸티업는나라로
마국법에사름을못박기전에 쓰리는법이니 옷슬벗겨형
틀에결박훈후에몽둥이와혹치직으로치는법이라 빌나
도가예수를그모양으로 쓰리거든후에군스들이예수를
잡아다가빌나도의검을방안에두고너리군스들이도히

예수를 희롱할시 예수가 남금이로라 말삼하시니 고로 옷슬 벗기고 남금남는롱포티신으로 조쥬빗옷슬 남히고 가시를역거셔면류관티신머리에 씌우고 남금이손에가지는금홀티신갈티를흔손에 쥐이고 여러군스들이 예수압헤 절하며 거즈골으티 유대남금은 평안하시온잇가 하고 예수얼골에 춤밧고 그갈티를 쥐고 예수머리를 쓰리고 또 더희손으로 치더라 이러케 후후에 빌나도 | 생각하티 예수가 이긋치미맛고 참후후 관육을 밧엇스니 유대사름들이 후노흐리라 하고 그사름들의게 예수가 죽암죽지 아니함을 날으고 저하야 유대사름들보는곳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몸에 조쥬빗옷남힌치에 수를 쓰러내여 늦코 빌나도가 유대사름의게나 | 가 그사름의 죄를 알지

못흐노라흔번더말흐려고에수를드려왔다흐니눅흔제
스장들과유대사람들이에수를보고소리질너글으티십
즈가에못박으라십즈가에못박으라흐거늘빌나도ㅣ글
으티나는에수의게아모죄도찾지못흐겟스니너희들이
친히에수를드려다가십즈가에못박으라흐더라빌나도
가에수가아모죄업을알엇스니맛당히유대사람드려
에수를해흐지말나흐거시오또빌나도는로마국감스ㅣ
라권세가에수를노흐만흐것마는유대사람들을분흐게
흐면유대사람들이다른감스를원흐싸흙으로에수를유
대사람들의게주어군스를보내여죽이게흐니라이새에
수를비반흐던유대ㅣ에수가참죽게됨을볼새저의흔일
이악흔줄아는고로미우겉내여은삼십기를가지고눅흔

제스장들과 법관들의게 화셔 말하되 나이가 죄업는 사람을
올해 하엿슴으로 죄를 지엇스니 이은삼십기를도로 받고
에수를노하라 하되 그놈은 제스장들과 법관들이 되답하
야 곧으되 우리의게 무슨 상관이냐 너이가 스스로 담담할
거시니라 하고 에수를놋코져아니 하여 그돈을받지아니
하거늘 유다가 은을싸헤더지고 나가셔 노سن으로 목을
미여 죽으니라 그러나이러케 할거시아니 오맛당히 회기
하여 에수씩가셔 제큰죄가 용서됨을 청할거시니라 우리
가 본바 베드로가 에수를알지 못하노라 말함으로 죄를지
엿더니 회기 하고 미우불안 하야 한곳에 홀로가셔 통곡할
후에 성전에 에수를스랑 하고 섬기엿스매 에수가 베드로
를 용서 하시니라 유다는 에수를스랑 하야 죄를참회기 하

지하니 호고 두려 위 호야 제 죄 악을 생각 함으로 전 티 지 못
호야 목 미 여 죽 으니 라 유 다 가 썬 는 후에 그 좁 혼 제 스 장 들
이 그 은 을 집 어 셔 밧 출 샷 스니 덤 한 의 밧 치 라 그 밧 춘 제 식
골 썬 나 예 루 살 념 에 왔 다 가 킷 스 혼 신 테 를 영 장 호 는 곳 시
되 니 라 군 스 들 이 예 수 를 희 롱 혼 후에 즈 쥬 빗 옷 슬 벗 기 고
이 전 의 복 을 님 히 고 못 박 으 러 갈 식 아 모 사 름 이 라 도 못 박
히 러 갈 썬 십 즈 가 를 지 고 가 는 법 이 라 예 수 는 미 맛 고 상 혼
후 에 기 운 이 약 호 매 십 즈 가 를 혼 자 질 수 가 업 는 고 로 군 스 들
이 길 에 식 골 썬 오 는 시 몬 이 라 호 는 사 름 을 맛 나 예 수 를 도
아 십 즈 가 를 가 저 가 게 호 니 라 군 스 들 이 예 루 살 념 에 셔 갓
가 온 갈 와 리 아 라 호 는 곳 세 예 수 를 못 박 으 려 고 드 리 고 왔
스니 예 수 는 맛 당 히 못 박 을 죄 가 업 것 마 는 그 사 름 들 이 큰

못스로 십자가에 예수를 손과 발에 못박을 때에 수가 춤고
견티여 하느님의 그 사람들을 형벌음을 청하시지 안코도
로히그 사람들 위하야 하느님의 기도하야 곧으샤 티아바
지여 더 사람들 이 흘바울 하지 못하엿스매 용셔하여 주옵
쇼셔에 수싱각에 그 사람들 이 당신을 죽이느거시엇더
큰 죄가 되고 엇더한 큰 형벌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연고
라그 사람들 이 당신을 죽일 때라도 그 사람들 을 해치 아니
하시 고 사랑하고 착하고 저하시 니 다 군스들이 예수를 초
에 쓸기를 드셔 마시우니 이는 정신이 업게 하야 앎품을 알
지 못하게 함이 러라 그리나 예수 가 우리가 영원히 형벌 받
을 거슬 구속하시려고 그 형벌을 견티시느고 로고로
을 덜하기를 원치 아니하샤 초에 쓸기 든거슬 맛보시고 마

시지하니 호시더라 그새 두사람을 예수와 혼까지 못박을
시흐나 혼을 혼편에서 못박고 또 혼나 혼원편에서 못박엇
스니 그 두사람은 도적질 혼죄로 죽는 사람들이라

데이십삼장 못박히는 사람이 죽지하니 호고 후여려
시를 사는지라 그러므로 예수가 아참에 못박혔스나 오후
까지 죽지하니 호시고 그동안에 십자가에 들니 여몹시고
싱긔오시니라 예수 못박은 군스들이 아모 사람이라도
예수를 손과 발에 못슬 쉼여 십자가에 서는 리지 못호게 직
희더라 예수 복을 혼조각 식저희가 호고 또 속옷슬 제
비썬여 누가 가져갈가 보더라 빌라도가 큰 돌썬여 우미리
우희 십자가에 못쳤스니 그 글에 써서 티나 살잇 예수는 유
대 사람의 남골이라 호엇더라 예수 못박힌 곳서 티 성들영

리하는 예루살렘 문에 갓가온 고로 여러 사름들이 지나가
며 그 글을 보고 예수를 보며 불쌍히 여기어 하니 하고 도로
혀 희롱하며 말하되 예수가 만일 하는 능하거든 십자가
에 서느려 올지라 그리후에는 우리가 밋겠다 하더라 예
수가 능히 십자가에 서느려 올수가 잇스되 우리를 위하야
십자가에 서 죽으시니라 예수와 못박힌도적 하나 혼
에 수죄악하게 말하고 또 하나 혼 제 죄를 회개 하야 예수 죄
용서 됨을 청하거늘 예수가 그 회개한도적 드러닐으시되 너
죽은 후에 죽시나 하라 또 처도 혼 곳스로 가리라 하시더라 예
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젓헤 섰고 또 예수가 사랑하
시던 데즈 유월절 잔치 먹을 때 당신 가슴을 의지하였던 데
즈 도거기 잇는지라 예수가 장초그 어머니를 브리고 죽으

실고로 그 데 즈로 흐여 곰당신 어머니를 봉양 하게 하고 저
흐샤 요한 드려 닐으시 티나 | 가 죽은 후에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 사랑함과 같치 않게 섬기라 하고 또 어머니 드
려 말 숨 흐시 티 요한을 참당신 아들 같치 티 접 흐쇼셔 흐시
니 그 때 브러 요한 이 마리아를 제 집 에 드리고 가셔 모든 물
건을 쓸 티 잇는 때 로 드리 더 라 예수 가 십 즈 가 에 계 실 때 밤
이 아니 로 티 하 는 님 이 세 시 등 안 희 스 빛 업 셔 어 둡 게 흐 션
스 니 이 거 손 당 신 아 들 을 악 훈 사 름 들 이 죽 이 는 연 고 | 라
예 수 가 십 즈 가 에 셔 큰 소 리 로 하 늘 에 계 신 당 신 아 바 지 석
청 흐야 글 으 샤 티 엇 지 흐야 나 를 의 면 흐시 는 잇 가 흐시 더
라 우리 가 세 상 아 바 지 를 거 역 할 때 우리 를 깃 거 아 니 흐샤
도 라 보 지 아 니 흐시 는 니 그 와 같 치 하 는 님 이 그 때 예수 를

외면함 심을 알지라 예수가 하는 일을 거역하지 하니 하셨
것마는 우리가 여러 번 거역하였스매 예수가 그 거스로써
당신 몸에 허물을 삼으셨스니 하는 일이 예수가 친히 죄지
심 곳 처녀 이사외면함 심이라 예수가 이 거슬 보시고 몸에
형벌 당하는 것보다 더 근심함 사 크게 부르지지 시 거늘 십
즈가 것 해섯던 사람들 이히 용에 초를 적시여 긴 갈 티로에
수입에 티여 그 초를 마시게 함 거늘 예수가 그 초를 마신 후
에 곧 으샤 티이 거사 다닐 유엇다 함이니 그 뜻은 우리를 위
함야 하늘에 서느려와 받으시는 형벌과 모든 함려 오신 일
이다 되었다 함 심이라 예수가 머리를 굽히시고 기절함시
니라 그 쓰히 혼들니고 바회가 쓰여지며 무덤이 열이
며 착함 사름들이 무덤 속에 서다 시 살아 나려나서 에 루살

넬에 가서 여러 사람의게 보이니라 예수를 못박던 군스들이
이 예수를 죽을새에 이런 신기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곧으
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아들이로다 하더라 우리 본바에
수 못박힌곳시 예루살넬가 온때가 아니오 문밖갈와 리야
라 하는싸히라 그런고로 성안에 잇는 유대 사람들 이 예수
가 죽은 줄은 알지 못하고 빌나도의게 가서 청하야 곧으터
군스를 보내여 예수와 두도적을 죽이여 잇흔날 되기 전에
장스지내게 하쇼셔 하니 때개고 잇흔날은 레비 일인 연고
러라 빌나도가 유대 사람의 청하는 때로 군스의게 분부하니
군스들이 가서 두도적의 다리를 부러치고 예수는 발셔 죽
은고로 다리를 부러치지 안코 흔군스가 창으로 넬구리를
씨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못박힌곳세 흔동산이 잇

고 그 동산에 장스지 내지 아니 할 무덤이 잇스니 그 무덤은
바회 측에 구멍을 파 둔 거시 니 하리 마다 야 사름 부자 요셉
의 거시 라 요셉은 예수 데즈 요예수를 사랑 하티 그 전에는
유대 사름이 저를 위하야 해 롭게 할 가 두려워 함으로 아
모도 알지 못 하계 하엿더니 이 때 예수 죽은 후에 는 숨기는
것 업시 빌나 도 의 게 가 셔 예수 신 테 를 가 저 다 가 등 산 안 에
잇는 제 가 파 둔 새 무덤 에 장스 하기를 청 하티 빌나 도 이 처
락 하거늘 요셉이 십자가에 셔 예수 시 테 를 느 려 셔 가 는 모
시로 싸 셔 무덤 에 두 고 큰 돌 를 굴 여 무덤 문 을 막 을 식 그 때
두 녀 인 이 그 것 헤 셔 셔 예수 시 테 를 어 티 두 는 거 슬 보 더 라
그 두 녀 인 은 일 흥 이 마 리 하 니 예수 데즈 이 러 라 예수 시
테 못 치 는 거 슬 보 고 집 에 도 라 가 셔 다음 날 을 지 내 니 그 날

은레비일이러타두너인들이레비일다음날에향내나는
것과기름을가지고와셔유대사람장스지내는법대로에
수시태에브르려고작정하엿더니예수를무덤에장스흔
후에엇던유대사람들이빌나도의게가셔말하되예수말
이죽은후삼일만에다시살어나리라하엿스니그데즈들
이밤에그뫼에가셔예수시태를도적하여가져다가빅성
의게예수가다시살엇다할가두려우니군스를보내여그
뫼를직히가를청하되빌나도가그말대로군스를뫼에보
내여직힐시밤에군스들섯던싸히크게진동하며하는
이현당으로죽차던스를보내섯스니그던스가무덤에들
을옴가고그우희안젓거늘얼골이번키벧고웃시눈코
치희더라그군스들이답대하야던쟁에서늘두려워하지

아니 하였으나 그런 스를 보고 미우 두려워셔 싸헤 너머저
죽은 사람 못치운 동치 못하더라 그 다음 날 아침 미우 일죽
이 두녀인과 또 사로 매라 하는 다른녀인이 향내 나는 것과
기름을 가지고 오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야 무덤
문에 들을 홈길고 하니 때개 그 들이 미우 크고 무거 온 연고
러라 브라 불새 무덤에 붙이 밭셔 홈긴 거슬 보고 그녀인들
이 무덤 속에 드러가 보니 흰 의복 입은 현스가 잇는지라 미
우 두려워하거늘 그런스가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가 못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예수가 여긔 잇지 아
니 하시고 당신 이전 에 하신 말씀 못치다 시 살 아니려나섯
스니 화셔 무치엿던 곳슬 보고 가서 그 데 즈들의 게에 수가
죽었다 가니 러 낮 습을 날으라 하거늘 그녀인들이 미우 두

렵고 또 깃거 하야 급히 무덤에셔 드름질 하야 예수 가 니 러
나 섯슴을 데 즈 들 의 게 닐 으 려 고 가 다 가 예 수 를 맛 나 받 아
래 업 디 어 절 흘 디 예 수 1 닐 너 곧 으 샤 디 두 러 위 하 지 말 고
내 데 즈 들 의 게 가 리 리 싸 에 가 셔 나 를 맛 나 리 라 닐 으 라 하
시 거 늘 그 녀 인 들 이 예 수 말 슴 때 로 데 즈 들 의 게 와 셔 예 수
가 니 러 닳 슴 과 또 저 희 맛 닳 슴 을 닐 은 디 그 데 즈 들 심 각 에
그 녀 인 들 이 치 안 흘 말 을 흘 다 하 며 밋 지 하 니 흥 더 니 베 드
로 와 요 한 두 데 즈 1 급히 무덤에 갈 식 두 사 름 이 3 처 드 름
질 흘 썬 요 한 이 문 저 무덤에 니 르 러 굽 흐 러 예 수 샳 던 모 시
웃 잇 는 거 술 보 앓 슴 디 드 러 가 지 하 니 흥 었 더 니 베 드 로 가
후 에 니 르 러 무덤에 드 러 가 모 시 웃 과 예 수 의 머 리 샳 던 슈
건을 보 니 이 거 시 모 시 웃 과 흘 가 지 잇 지 하 니 흥 고 흘 곳 에

접히여 잇더라 요한이 또 무덤속에 드리차 예수 업슴을에
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으심을 밋더라 두데즈
| 제집으로 가니라 예수가 나리나 신 후에 피에 서직히던
엇던 군스들이 예루살렘 좁흔 제사장들의게 도라와서 텃
스가 텃당으로 노려와 돌을 음김과 예수가 나리나 슴을닐
은디 그제사장들이 군스들드려닐은디 이 말을 빅성의게
닐은지 말고 너희가 말한 것을 잘 동안에 이 수네즈들이와
서 예수 신례를 도적한여갓다 한라 한고 군스들드려이거
즈말 한라 흠으로 돈을 만히 주니라 그제사장들이 이긋치
훈 뜻은 만일 빅성들이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엇슴을 알면 하는 님아 들인 줄을 밋을가 한야 빅성의게 알
지 못 한게 한고 제 흠이 러라 군스들이 그 돈을 밋고 그제스

장들의 날은 때로 혼지라 그러므로 그 때 브러 유대 사 람 들
이 말 하되 티 에 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아 나 지 아 니
하 였 다 하 고 군 스 들 잘 동안 에 그 데 즈 들 이 화 셔 예 수 신 테
를 도 적 하 여 갓 다 하 더 라

데 이 십 스 장 예 수 이 러 나 시 던 날 에 두 데 즈 가 예 루 살 념 에
셔 이 십 오 리 되 는 임 마 요 라 하 는 등 니 로 갈 식 그 일 이 었 지
되 었 슘 을 니 야 기 하 더 니 그 때 예 수가 사 람 들 의 제 곳 가 히
오 사 등 행 하 셧 스 나 그 일 끝 이 변 하 였 스 때 그 데 즈 들 이 예
수 신 줄 을 알 지 못 하 고 모 로 는 사 람 인 줄 알 었 더 니 그 사 람
이 데 즈 들 드 려 무 르 티 되 지 하 야 그 말 을 하 며 슬 퍼 하 는 모
양 이 잇 는 노 하 게 볼 줄 데 즈 의 일 품 은 그 리 으 파 니 티 답
하 야 곧 으 티 티 이 예 루 살 념 에 처 음 오 는 손 이 니 큰 일 에 잇 는

일을 듯지 못하였거되 다 그 사롬이 곧으되 무슨 일이요 데
즈이 곧으되에 수라하느큰 선지자가 여귀와서 빅성을 위
하야 령적을 행하더니 유대 법관과 농흔 제사장들이 예수
를 잡아셔 못박은지 삼일만에 우리게 친흔 녀인이 그 밧에
든 여와셔 말하되에 수가 거귀 업고 흔현스의 말이에 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 하기로 우리가 놀났로라 또 우리가
어사롬이 무덤에 가서 그 녀인의 밧과 갖치쳐 보아도 예
수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 두 데즈이 말할새 더희가 고저하
는 동닉에 갔가히 온지라에 수가 두 데즈를 썬나셔 더가려
하시거늘 그 데즈들이 그 사롬이 행인인 줄 알고 청하야 곧
으되히가다가 고저녀이 갖가오니 우리집에 가서 오날 밤
을 쉬라 하되에 수이 데즈들과 갖치쳐 그집에 가시니 저녀이

에 비된지라 예수져 녀 잡스으 실새 석을 손에 들고 하느님
석감샤 후 후에 석을 쟈 여 두 데 즈를 주 거 늘 두 데 즈 | 눈이
즉시 붉 아 예수 신 줄 알 때 예수 | 별 안 간 에 업 스 샤 보 이지
아니 흥는 지라 두 데 즈 | 서로 날으 티 길 에 셔 우리 로 더 부 러
말 흥고 성 정 을 붉 힐 새 우리 모 음 이 었 지 쓰 겁 지 아 니 흥 었
느고 급 히 니 러 나 셔 예 루 살 념 에 와 셔 데 즈 들 드 려 더 희 가
예 수 를 보 앓 슘 과 상 에 셔 석 을 쟈 힐 새 예수 신 줄 알 었 슘 을
닐 을 식 흘 연 이 예수 가 그 가 온 티 섰 는 지라 데 즈 들 이 예수
를 보 고 령 신 이 인 줄 알 고 두 려 워 흥 거 늘 예수 | 데 즈 들 드 려 무
르 시 티 었 지 두 려 워 흥 는 요 령 신 은 몸 이 업 는 나 를 문 져
보 라 흥 시 고 손 과 발 에 못 박 히 었 던 흔 적 을 봐 이 시 거 늘 데
즈 들 이 괴 이 히 녀 이 고 너 무 깃 거 워 예 수 신 줄 밋 기 가 어 려

위할새 예수가 무슨 음식이 잇는가 무르시거늘 데즈들이
구은 성션호조각과 꿀을 드리니 예수ㅣ 데즈들압헤셔잡스
오시거늘 데즈들이그일을보고령신이아니오츄예수신
줄을알더라 예수ㅣ 데즈들로더부러당신이심즈가에셔
죽엇다가삼일만에다시살아오신연고를닐으시니당신
이죽지아니호엿스면우리죄가용셔됨을받지못함이라
당신이우리죄로인호야죽으신후에만일우리가죄를회
기호고예수를밋으면하는님이우리를용셔호시기를즐
거호시느니라 예수ㅣ이세상에잇는빅성을위호야죽으
신고로하는님이빅성을용셔호심을즐기시느니라그런고
로예수가빅성으로당신이죽으심을알게호고저호시매
그데즈들이그일을위호야가셔증거할지라이스라엘에

잇는 유대 사름들 드려 만일을 썬이 아니 오원 세상에 잇는
빅성의 제닐을 거시니 누구던지 제 죄를 회기 하고 예수를
밋고 사랑 하면 그 데즈가 세례를 줄지라 예수 말씀이나
밋고 세례 받은 사름들은 죽은 후에 천당에 올라 가려니와
나를 섬기지 아니 하고 제 구세주를 삼지 아니 하는 사름들
은 영원히 천당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도마라 하는 데
즈는 예수 오셨을새 다른 데즈와 못치 잇지 아니 하니라 그
후에 여러 데즈도 마드려 예수 퇴엿음을 빌으니 도마
밋지 아니 하야 곧 이 틈에 가 친히 예수 손에 못 박힌 흔적을
보고 창설인 곳 슬문지 지 아니 하면 밋지 아니 하니라
니 여덟 날 후에 그 데즈들이 한 방에 모히 문을 닫고 잇을새
도마도 또한 거기 왔더니 예수 전과 못치 오샤 그 가온 때

그러치신고로아들이그말씀을밧는니아바지가말씀하
시되네가장성흔새그거슬즈새히알어드르리라하는
이와못치하는님이당신을위하야우리가알어듯지못하는
여러거슬성정에닐으섯거늘하는님이우리게그러치신고
로우리가맛당히밧을거시오또우리죽은후에하는님께
진곳에갈새이세상에잇슬새보다더잘알어드르리라우리
가보지못하고또알지못하는거슬하는님이우리게그러
치신새문에밧으면그거시밧는거시라하는님이우리가
밧기를원하시거늘도마는밧음이업셔예수를보기전에
예수가죽음으로말미암아다시살으심을밧지아니하니
예수가도마드려닐으시되보지아니하고도이거슬밧는
사람이하느님을즐겁게하는니라하시더라그후에배드

로와 또 데즈네 사름이 가리리 바다 그 헤 모리여 베드로가
큰 으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흐거늘 다른 데즈들이 큰
으티 우리도 너와 갓치가리 라 흐고 희를 득고 금물을 물에
너어 밤식도록 그물질 흐티 싱션을 잡지 못흐지라 아침이 되
매 예수이 희변에 섰시티 데즈들은 보고 알지 못흐엿더니
예수 무르시티 싱션을 잡앗는 노흐거늘 데즈이 티 답흐티
잡지 못흐엿노라 예수이 큰 으샤티 그물을 비을 흔편에 너
흐면 싱션을 잡으리라 흐거늘 데즈들이 그 말티로 흐엿더
니 싱션이 엿더케 만히 들엇는지 그물을 쓰어 낼수가 업는
지라 데즈들이 이령적을 보고 흐데즈이 큰 으티 이가 주로
다흐거늘 베드로이 싱션잡는 옷을 낚고 희변에 굽히가고
저흐야 바다에 뛰여가고 또 다른 데즈들은 비를 노질흐야

성션이 마득흔 그 물을 쓰을 고 니 르니 그곳에 솟불이 잇고
그 우희 성션과 석이 잇는 지라 예수 께 꺾으샤 티잡은 성션
을 조곰 가져 오라 하시거늘 배드로가 가서 그 물을 쓰으리
히 변에 올니키니 큰 성션 들이 마득하야 그 그 물에 일빅 오
십삼 리가 들엇스 티 그 물이 상하 지아니 하엿더라 예수 가
데 즈들 드려 말슴 하시 티 와셔 먹으라 하시고 석과 성션을
주신 티 후에 즈도 예수 드려 누시 뇨 감히 못지 못함은 이곳
주신 줄을 아는 연고 이러라 이거시 예수 죽엇다가 다시 살으신
후에 세 번 재 뵈이신 거시 라 또 그 후 후에 오 빅 여 명 문 도 들
의 게 나 타 내 여 뵈이시 고 또 후에 즈 들이 예수 를 가 리 리
에 잇는 산에셔 뵈이 니 이곳 예수 가 전 에 말 슌 하시 티 데
즈 들 을 여 기 와 셔 맛 나 리 라 하시 신 곳 시 라 데 즈 들 이 예수 를

보고 절한 티에 수— 곧으샤 티 너희들이 가서 모든 나라에 잇
는 빅성을 마르쳐 나히 데즈가 되게 하야 너희 말을 좃게 하
라 초 곧으샤 티 나를 사랑 하 고 순종 하 겠다 하 는 빅성을 세
레를 주라 하 시니 그 데즈들이 형부와 형조와 성신의 일홈
으로 세레를 줄지라 이 일홈으로 세레를 주는 뜻은 하 는
우리가 하 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사랑 하야 섬기 고 예수를
하 는님이 우리 하 기를 원 하 는 거슬 마르치는 선성으로서
랑 하야 섬기 라 하 는 표— 나 라에 수다시 살으신 새 브러스
십일 후에 예루살렘 데즈들의 계 또 오사 날 너 곧으샤 티 너
희 맛당히 하 는님이 려당으로서 성신을 보내시 도록 예루
살렘에 서머 물나 하 시더라 우리가 본바에 수가 데즈들로

더부러 유월절 잔치 잡스 오실새 말씀하시되 당신이런당
으로올나가신후에하는님이성신을보내시리라하시느
니이새예수가현당으로가시느니하는님이장초대자들
의게성신을보내시리라성신이홍상대들과긔치잇서
셔예수의닐으신거슬긔억히고빅성들을긔칠거
슬긔긔치시느니라예수가대들과긔말씀하신후에
대자들울드리고에루살렘에나와배다니등닉에니르러
예수가손을들어대자들을위히야복을빌새에하늘에올
나가실시구름이들니니대자들이다시에수를볼수업더
라대자들이예수를쳐볼새두현스가흰옷스로느려와서
말씀하시되예수구름을긔고현당에올나가섯스나후에
또구름을긔고다시느려오시리라하시더라우리가이복음

요소를보니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가련당에셔는 려오샤 우리 죄를 없게 하고 우리가 죽은 후
에 형벌받을 것을 구속하신 거시니 이 거시 복된 소분이라
우리가 본바 예수가 어린 으히 로벳니 헬마구간에셔 나샤
장성하도록 나살았에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못치 살으시
니라 요로 단강에셔 요한에게 세례 받고 들에셔 사탄에게
유인함을 당하였더니 그 후에 두루 든니 며 빅성에게 착한
일을 하시고 빅성이 저희 죄를 회개 하야 당신을 사랑하고
죽으라 고 못치시고 그 빅성과 우리를 위하야 십자가에
셔 못박히고 무덤에 못치였다 가 삼일 만에 다시 살으셨스
니 우리를 위하야 려오신 일을 다 못치시고 전
에게 시던 려당으로 다시 올라가 사하느님 견혜 안으샤 모

든 남녀 노쇼 밋는 사름 들을 느려다 보샤 흥상 그 사름 들을
니저 브리 지아니 흥시는 고로 그 사름 들이 겁날 거시 업는
나라 그 사름 들이 예수 의 계 빌새 예수ㅣ 드르시고 샤란이
그 사름 들을 해 흥지 못 흥게 흥시고 또 올흔 일을 흥게 도으
시는 나라 언약을 니저 브리고 그 큰 일을 할새 죄를 회기 흥
면 에 수가 하는 님 석 용 셔 됴 을 청 흥시는 나라 예수 이 세 상
에 다시 느려 오시 리니 십 즈가 에 고 흥 흥시고 죽으려 오심
이 아 니 오 모든 천 스 들 을 드 리시고 영화 로 느려 오시 리라
우리 본 바 예수 가 심 판 흥는 날 에 모든 사 름 보 는 보 좌 에 안
즈시고 죽 었 던 사 름 이 다니 러 나 석 그 압 헤 서 셔 에 수 로 흥
야 품 심 판 할 시 예수 가 장 츫 그 빅 성 들 을 두 무 리 에 는 호 아
흔 무 리 는 올흔 편 에 세 을 거 시 니 이 는 올흔 빅 성 들 이 오 또

훈무리는 원편에 세울 거시니 이는 악훈벽성들이라 그 후
에 예수ㅣ장초악훈벽성들은 형벌받을 곳으로 보너시고
착훈벽성들은 천당으로 드러다가 하는 남과 예수와 천스
들과 영원이 흠씩잇스리라

154